





이 발표논문집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2-B00013)



2013년도 HK 국내학술대회

## “유라시아의 분쟁”

- 일 시 2013년 4월 19일(금) 오후 2시~6시
- 장 소 한양대학교 대학원 7층 화상회의실
- 주 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APRC)
- 후 원 한국연구재단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 프로그램

2013년 4월 19일(금)

### 제 1세션(14:10 - 15:40) : 유라시아 분쟁의 다차원적 이해

- 사회자: 엄구호(한양대학교)
- 발표자:
  1. 우준모(선문대학교) : 러시아-그루지야의 갈등양상:  
남오세티야 문제를 중심으로
  2. 김성진(덕성여자대학교) : 몰도바 분쟁에 대한 구성주의적 이해
  3. 박정호(한국외국어대학교) :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 연구
- 토론자: 황성우(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진영(인하대학교), 최아영(이화여자대학교)

### 제 2세션(16:00 - 17:40) : 유라시아 공간의 민족 갈등과 테러리즘

- 사회자: 정세진(한양대학교)
- 발표자:
  1. 강봉구(한양대학교) : 키르기스령 페르가나 지역 키르기스-우즈벡 민족간 유혈 충돌
  2. 우평균(한양대학교) :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갈등 양상과 국제 개입
  3. 현승수(한양대학교) : 러시아연방 북카프카스 지역의 테러와 분쟁 확대
- 토론자: 김선래(한국외국어대학교), 김상철(한국외국어대학교)



# 목 차

## 제 1세션, 유라시아 분쟁의 다차원적 이해

우준모   러시아-그루지야의 갈등양상 : 남오세티야 문제를 중심으로	11
김성진   몰도바 분쟁에 대한 구성주의적 이해	23
박정호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 연구	39

## 제 2세션, 유라시아 공간의 민족 갈등과 테러리즘

강봉구   키르기스령 페르가나 지역 키르기스-우즈벡 민족간 유혈 충돌	55
우평균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갈등 양상과 국제 개입	75
현승수   러시아연방 북카프카스 지역의 테러와 분쟁 확대	97



## 제 1세션(14:10 - 15:40) : 유라시아 분쟁의 다차원적 이해

- 사회자: 엄구호(한양대학교)
- 발표자:
  1. 우준모(선문대학교) : 러시아-그루지야의 갈등양상:  
남오세티야 문제를 중심으로
  2. 김성진(덕성여자대학교) : 몰도바 분쟁에 대한 구성주의적 이해
  3. 박정호(한국외국어대학교) :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 연구
- 토론자: 황성우(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진영(인하대학교), 최아영(이화여자대학교)



# 러시아-그루지야의 갈등양상: 남오세티야 문제를 중심으로\*

우준모(전문대)

## I. 문제제기

그루지야는 카프카즈 산맥의 남사면에서 서쪽으로 흑해를 끼고 동서로 비스듬하게 자리잡고 있다. 접경국가로는 북쪽의 러시아와 동쪽과 동남쪽의 아제르바이잔, 남쪽의 터키와 아르메니아가 있다. 그루지야는 역사적으로 로마제국과 몽골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터키)의 침략을 받았으며 특히 남쪽의 이슬람 세력인 터키와 북쪽의 정교세력인 러시아가 세력다툼을 벌일 때 지정학적 요충지로 기능해왔다. 그루지야는 18세기 말부터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더불어 자카프카즈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Закавказская Советская Федеративн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을 수립하여 소연방 구성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 1936년 자카프카즈공화국은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으로 분리되었으나 여전히 소연방의 구성공화국으로 남았다.

1991년 소연방의 해체 국면에서 그루지야는 독립국가 건설을 시도했으나 국내적 정파 대립과 민족문제가 분출하여 1994년까지 내전을 겪게 되었다. 1995년 11월 세바르드나제(Эдуард А. Шеварднадзе)가 그루지야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대통령직에 올랐다. 이후 그루지야는 탈리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친미, 친서구적인 국가진로를 모색해왔다. 그루지야는 1997년 10월 우크라이나, 몰도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등과 함께 <민주주의와 경제 개발을 위한 구암 기구(GUAM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를 만들어 반(反) 러시아 세력연대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그루지야의 탈러-친미적 지향성은 남카프카즈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러시아는 소연방의 해체로 상실한 남카프카즈 지역에서 카스피해 지역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터키와 이란 등 이슬람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그루지야를 이 지역 안보정책의 핵심국가로 상정하고 군대를 주둔시켜왔다.<sup>1)</sup> 탈소비에트 체제전환 과정에서 러시아와 그루지야 양국은 간헐적으로 관계 정상화를 모색한 바 있다. 그러나 그루지야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등 국내의 민족분쟁과 유라시아 석유 및 가스수출 루트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NATO 가입 시도<sup>2)</sup> 등 다양한 쟁점에서 러시아의 핵심적 이해를 손상시켜왔다.

\* 줄고는 미완성 상태이므로 인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엄구호, “그루지야의 국가정체성.”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엮음,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0), p. 245.
- 2) 사카슈빌리(Михаил Н. Саакашвили) 그루지야 대통령은 2004년 1월 취임이후 줄곧 그루지야의 NATO 및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그루지야는 2006년 9월 NATO와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여 2008년 4월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에서 가입절차에 해당하는 회원국 행동계획(MAP, Membership Action Plan) 승인 심사를 받았다. 그루지야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프랑스와 독일의 동의를 받지 못해 회원국행동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NATO News, *NATO decisions on open-door policy*, <http://www.nato.int/docu/update/2008/04-april/e0403h.html> (검색일: 2013.02.19).

특히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 그루지야는 남오세티야의 수도 츠хин발리(Tskhinvali) 시를 비롯하여 곳곳에 정부군을 투입하여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여 러시아를 도발했다. 러시아는 남오세티야에 주둔하는 자국의 평화유지군과 이 지역 거주 러시아인들이 희생되자 곧바로 전쟁 개입을 선언하고 그루지야의 주요 군사시설과 도시, 군항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하였다.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그루지야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응이 예상보다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되자 사실상 항복에 준하는 휴전협정을 제안하여 단 5일 만에 러시아 군대가 그루지야 영토에서 순차적으로 철군을 실행함으로써 전쟁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이 연구는 러시아와 그루지야의 갈등양상을 남오세티야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순서는 먼저 남오세티야 갈등의 연원을 살펴보고 그루지야 전쟁<sup>3)</sup>의 발생원인과 진행과정을 정리한 다음, 궁극적으로 남오세티야를 둘러싼 러시아의 국익을 고찰해 볼 것이다.

## II. 남오세티야 갈등의 연원과 심화과정

### 1. 갈등의 연원

남오세티야는 그루지야공화국의 중북부 지역으로 카프카즈 산맥의 남사면 3,900km<sup>2</sup>를 차지하고 있다. 1989년의 소연방 인구통계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9만 8천명의 주민이 거주하였으며 이 가운데 6만 5천 명이 오세티야인이었다. 남오세티야의 행정수도인 츠хин발리 시에는 오세티야인이 74%, 그루지야인이 16% 기타 다양한 민족이 9% 정도 거주하고 있다. 그루지야에서 남오세티야 자치공화국 외부에 거주하는 오세티야인도 약 십 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그루지야 전체 인구 5백 4십만 명 가운데 오세티야인의 비율은 3%정도를 차지한다.<sup>4)</sup>

남오세티야 갈등이 촉발된 이후 그루지야 내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오세티야인들은 남오세티야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가거나 러시아연방에 속하는 북오세티야 지역으로 이주해 갔다. 한편 남오세티야 지역에 거주하던 많은 그루지야인들은 분쟁지대를 벗어나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현재 츠хин발리 시에 거주하는 그루지야인은 노인층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남오세티야 갈등이 촉발되기 이전까지 그루지야인들과 오세티야인들은 남오세티야 지역에서 지난 수 백 년 동안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해 왔다.

역사적으로 오세티야인은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카프카즈 산맥 중서부 지역에 부족집단을 형성하고 살았던 알라니아(알란족)의 후손들이다. 당시 알란족은 기독교를 수용한 상태였으며 비잔틴 제국과 키예프 루시 그리고 그루지야와 정치적으로나 교역에 있어서 우호관계를 맺고 있

3) 2008년 8월 그루지야 정부군이 남오세티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발생한 전쟁을 표현하는 통일된 명칭이 없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루지야 사태”, “그루지야-남오세티야 전쟁”, ‘러시아-그루지야 전쟁.’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영어나 러시아어 자료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전쟁을 지칭할 때는 “그루지야 전쟁”으로 표기할 것이며 그 이외에 남오세티야 문제를 포괄적으로 의미할 때는 “남오세티야 갈등”으로 표기한다.

4) 이 통계 수치는 1989년 소연방의 인구조사를 인용한 것으로 그 당시 오세티야인 전체 인구 수는 16만 4천 명 정도였다. 그 이후 그루지야는 지속적인 내전과 경제난으로 인한 사망과 대규모 이주 등이 발생하여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2013년 현재 그루지야의 인구는 4백 5십 5만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Stephen f. Jones, "Georgia: the trauma of statehood," in Ian Bremmer and Ray Taras, (eds.), *New States, New Politics: Building the Post-Soviet N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 507; 고재남, 『구소련지역 민족분쟁의 해부』,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p. 298; 그루지야 전반에 대해서는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gg.html> 참조(검색일: 2013.04.12).

었다. 그런데 13세기 중엽 몽골 따따르의 침략을 받아 알란족은 카프카즈 산맥 중앙 깊숙한 곳으로 은신하게 되었는데 그들 중 일부가 이미 수세기 이전부터 그루지야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던 남오세티야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후 알란족은 오세티야 지역에서 그루지야인들과 병존하면서 수 백 년에 걸쳐 봉건 그루지야와 그루지야 왕조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루지야인들에 동화되지는 않았고 독자적인 종족으로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1801년 그루지야 지역 전체가 짜르 러시아에 병합되면서 오세티야 지역은 남북으로 나뉘어졌다. 행정적으로 북오세티야는 러시아제국의 직할령으로 편입되었고 남오세티야는 러시아제국의 지배를 받는 그루지야 지방 귀족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이 시기부터 오세티야인들은 종족 고유의 수준 높은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면서 민족의식을 증진해갔다. 러시아제국의 짜르 정부는 지방엘리트층을 중용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그로 인하여 오세티야인 인텔리겐차 층이 증가하였던 것이다.<sup>5)</sup>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제국이 와해되면서 오세티야 지역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던 그루지야인과 오세티야인 간에 최초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혁명과 내전으로 러시아 중앙권력이 혼란에 빠져들자 그루지야의 멘셰비키 세력인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루지야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Georgia) 창건에 나섰다. 그들은 남오세티야를 그루지야 민주공화국의 영토에 포함시켰으나 오세티야인들은 그루지야민주공화국에 귀속되기를 거부하고 러시아에 귀속되기를 희망하였다.

1920년 6월 그루지야민주공화국 건국세력은 오세티야인들이 자국의 영토적 통합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대규모의 토벌군을 편성하여 응징에 나섰다. 토벌군은 오세티야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과 역외 추방을 강행하여 무려 5천여 명을 사살하고 5만여 명을 북오세티야 산악지대로 쫓아냈다. 기록에 의하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오세티야인 가운데 무려 1만 5천여 명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사망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21년 볼셰비키 혁명 군대가 그루지야 전지역을 평정하여 그루지야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건설하였다. 이로써 북오세티야는 행정적으로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에 속하게 되었고 남오세티야는 자치주의 지위를 얻어 그루지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구분은 다분히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오세티야인들을 남북으로 갈라놓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소연방 시기를 통틀어 오세티야 지역은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남-북 오세티야 지역의 연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오세티야인들은 스스로 나뉘어졌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으며 상당한 자치권과 토착적인 민족어와 문화를 유지할 권리도 누렸다. 오세티야 지역은 험량하고 거친 산악지대로 소연방 시기를 통틀어 산업화로 인한 발전이나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던 그루지야인과 오세티야인은 각기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 2. 갈등의 심화과정

남오세티야 갈등이 새롭게 분출된 것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이 동유럽 공산권 위성국가들의 체제변혁을 초래하고 소연방 자체가 와해의 수순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그루지야는 고르바초프가 개방정책을 내세울 때 발트3국과 더불어 가장 먼저 기회를 포착하고 독립을 선언한

5) Edward Ozhiganov, "The Republic of Georgia: Conflict in Abkhazia and South Ossetia," in Alexei Arbatov, Abram Chayes, Antonia Handler Chayes, and Lara Olson, (eds.), *Managing Conflict in the Former Soviet Union: Russian and American Perspective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1997), Chap. 13.

공화국 가운데 하나이다. 그루지야의 독립운동은 인종적 민족주의를 내세운 감사후르디아(Zviad Gamsakhurdia)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1990년 10월 그루지야에서 최초로 실시된 민주적인 다당제 총선거에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결집시켜 선거연합 “원탁회의-자유 그루지야”(Mrgvali Magida - Tavisupali Sakartvelo)를 결성하여 참가하였다. 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감사후르디아는 곧바로 그루지야공화국 최고회의의 의장에 선출되었다. 그루지야의 최고 통치자가 된 감사후르디아는 1990년 11월 그루지야의 주권을 선언하고 그루지야 민족주의에 입각한 단일 공화국 체제의 국가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다.<sup>6)</sup> 이 과정에서 남오세티야주의 자치권은 박탈되었고 1991년 4월 그루지야는 공화국으로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였다.

남오세티야의 오세티야인들은 감사후르디아를 주축으로 한 그루지야인들의 민족주의 형성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민족적 신화를 발굴하고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1989년 9월 그루지야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 남오세티야 자치주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률을 발표하자 같은 해 11월 남오세티야 자치주 인민대표자회의는 자신들은 그루지야 내에서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루지야 최고소비에트는 1990년 12월 남오세티야의 자치권을 폐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측의 분쟁이 고조되자 소연방정부가 나서서 남오세티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sup>7)</sup> 결국 1991년 1월 감사후르디아는 남오세티야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강공책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남오세티야 갈등은 감사후르디아의 그루지야 민족주의와 남오세티야의 소수계 인종인 오세티야 민족주의의 충돌로 고착화되어갔다.<sup>8)</sup>

남오세티야의 유혈독립투쟁은 1992년 6월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과 그루지야의 세바르드나제 대통령이 흑해연안의 휴양도시 소치에서 회담을 갖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그루지야의 독립국가건설을 이끌었던 감사후르디아가 독재를 일삼다가 민심이반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1992년 1월 권좌에서 축출되었기에 가능해진 일이었다. 소치 평화협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sup>9)</sup>: 우선 양국과 남오세티야, 북오세티야 등 4자가 참여하는 합동조정위원회(Joint Control Commission)를 설치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합동조정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합동평화유지군(Joint Peacekeeping Forces)을 창설하여 분쟁지역의 평화유지에 투입한다. 합동평화유지군은 러시아군, 그루지야군 그리고 북오세티야군 등 3개 대대로 편성한다.<sup>10)</sup> 여기서 북오세티야군 편대는 종종 남오세티야인들로 충원되기도 했다.

그런데 소치 평화협정은 평화유지의 임무를 교전 당사자들을 포함하는 합동평화유지군에게 위임하는 아주 특이한 구성을 지니고 있었다. 러시아는 합동조정위원회와 합동평화유지군의 의

6) [http://en.wikipedia.org/wiki/Zviad\\_Gamsakhurdia](http://en.wikipedia.org/wiki/Zviad_Gamsakhurdia) (검색일: 2013.03.17).

7) Sergey Markedonov, "Caucasus Conflict Breaks Old Rules of the Game," *Russian Analytical Digest*, 45/08 (4 september 2008), pp. 2-6; Сергей Маркедонов,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 перезагрузка - Пятидневная вой на сквозь призму постсоветск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Том 6 No. 5 (сентябрь-октябрь 2008), сс. 113-126.

8) 남오세티야 갈등의 원인과 심화과정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Dennis Sammut and Nikola Cvetkovski, *The Georgian - South Ossetian Conflict*, VERIFICATION TECHNOLOGY INFORMATION CENTRE [http://www.vertic.org/media/Archived\\_Publications/Matters/Confidence\\_Building\\_Matters\\_No6.pdf](http://www.vertic.org/media/Archived_Publications/Matters/Confidence_Building_Matters_No6.pdf) (검색일: 2013.03.28) 참조.

9) Vera Michlin, "The Post Soviet Knot: Understanding the Georgian-South Ossetian Conflict", *e-International Relations*, Published: 08.11.08/9am, <http://www.e-ir.info/?p=548> (검색일: 2013.01.11).

10) 합동평화유지군 편대의 규모는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러시아군이 6개 대대로 합동평화유지군의 대부분이고 그루지야와 오세티야군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훨씬 미약한 규모로 소개한 자료도 있다. 상세한 내용은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war/south-ossetia-3.htm> (검색일: 2013.03.27).

장직을 맡아 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합동평화유지군 내부의 국가별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각의 진영에서 파견한 군사감시단(Group of Military Observers)이 구성되었다. 합동조정위원회는 남오세티야의 수도인 츠хин발리 주변지역을 갈등지대로 분류하고 남오세티야 영토의 경계를 따라서 안보회랑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합동조정위원회는 갈등지역에 안전지대를 마련하여 그루지야군과 남오세티야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양측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남오세티야 분리주의 세력 가운데 일부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채<sup>11)</sup> 지속적으로 독립을 추구하였다. 남오세티야인들은 스스로 독립국가임을 자처하면서 1993년 11월에는 독자적인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구성하였다. 남오세티야는 비록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치비로프(Ludwig Chbirov)를 국가원수로 선출하고 독립적인 정치체의 위상을 만들어갔다. 1996년 11월, 남오세티야는 대통령제로 전환한 다음 치비로프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러시아와 그루지야는 남오세티야 갈등을 통제 가능한 범주 안에 묶어둔 상황에서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정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2001년 12월 남오세티야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통해 코코이티(Eduard D. Kokoity)를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코코이티는 전임자인 치비로프에 비해 훨씬 강도 높게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러시아가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승인해 주기를 요청했다. 코코이티는 먼저 그루지야로부터 남오세티야를 완전하게 분리독립시킨 다음 북오세티야와 통합국가를 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독립 오세티야 국가를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로 참여시킨다는 정책적 입장을 제시하였다. 코코이티는 남오세티야 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 그루지야 중앙정부와 협상을 촉구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2006년 11월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그루지야 중앙정부는 같은 날 다른 선거를 통해 사나코이예프(Dmitry Sanakoyev) 전 남오세티야 총리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sup>12)</sup>

남오세티야의 끈질긴 독립 움직임과 더불어 그루지야는 매우 극적인 정치변동 양상을 전개해왔다. 감사후르디야의 뒤를 이어 그루지야를 통치하던 세바르드나제도 2003년 12월 전임자와 유사한 상황에 몰려 권좌에서 물러난 것이다. 그루지야 시민들은 경제침체와 부정부패 그리고 비민주적인 통치행태와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바르드나제를 시민혁명(장미혁명)으로 무너뜨렸다. 그리고 2004년 1월의 대선에서 사카슈빌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사카슈빌리는 미국 유학파 출신으로 그루지야 내의 분리주의 세력을 척결하여 국가적 통합성을 완성하고 그루지야를 NATO와 유럽연합에 가입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웠던 전형적인 친서구적 인물이다.

사카슈빌리는 남오세티야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완전한 통제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소치 평화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공언하였다. 그는 남오세티야 갈등을 다루는 합동조정위원회가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역할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사카슈빌리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남오세티야 갈등은 그루지야 중앙정부와 지방세력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루지야와 러시아 간의 국가간 갈등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는 갈등의 초점을 국제화시킴으로써 러시아가 근외지역에서 신제국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고 기존의 합동조정위원회를 국제적인 분쟁해결의 기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서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사카슈빌리는 합동평화유지군의 중

11) 남오세티야 무장세력의 규모는 대략 2,000명의 군인과 30대 정도의 장갑차 그리고 약간의 탱크와 대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Military Balance 2004-2005*, Vol. 104, No. 1 (2004), p. 88.

12) Vladimir Socor, "Alternative South Ossetian Leader Inaugurated," *South Ossetian Press and Information Committee* (Nov. 29-Dec. 3) <http://leader.viitorul.org/libview.php?l=ro&idc=48&id=331> (검색일: 2013.03.27).

립성에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NATO와 같은 국제화된 대체조직으로 교체를 요구하였다.<sup>13)</sup>

한편 2005년 1월 사카슈빌리는 그루지야의 국가적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남오세티야에 대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특혜를 베풀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독립투쟁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남오세티야의 경제상황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보상계획을 마련하며 피난민의 귀환과 정착을 지원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카슈빌리의 제안은 남오세티야의 코코이티에 의해 거부되었다.<sup>14)</sup> 코코이티는 사카슈빌리의 제안이 국제기구의 권고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나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 제안은 단지 그루지야의 영토적 통합성만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뿐 남오세티야의 지위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었고 오세티아인 난민문제와 보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나 정부예산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카슈빌리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고 분명한 독립을 표방한 남오세티야를 무력으로 진압하기에 이르렀다. 그루지야와 남오세티야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역시 2007년 10월 이미 양측 간의 협상을 위한 대화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며 포기를 선언한 다음이었다. 특히 2008년 3월 남오세티야의 코코이티 대통령과 의회가 국제연합과 유럽연합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소속국가들과 러시아 등에 남오세티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내 국제사회에 독립을 기정사실화했다.<sup>15)</sup>

### III. 그루지야 전쟁의 발발원인과 진행과정

#### 1. 전쟁의 원인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남오세티야 갈등은 소연방이 해체되기 이전부터 불씨를 키워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으로 확산된 직접적인 원인을 다시 짚어보면 첫째는 악화일로를 겪은 그루지야의 경제 상황이다.<sup>16)</sup> 그루지야 경제는 탈소비에트 공간 내의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시장과의 연계 없이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카슈빌리 대통령의 등장 이후 그루지야-러시아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러시아는 사카슈빌리의 친미정책에 반감을 갖고 그루지야에 대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2006년 1월, 러시아는 그루지야와 유럽연합에 대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고 3월에는 그루지야산 포도주와 생수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항공, 철도, 통신의 교류를 중단시켰고 2007년에는 천연가스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2005년 50불에서 2007년 235불로 인상). 이로

13) Sergey Markedonov, (2008), *op. cit.*, pp. 2-6.

14) C. J. Chivers, "Plan Offers Autonomy for Enclave in Georgia", *New York Times*, January 25, 2005, <http://www.nytimes.com/2005/01/25/international/europe/25georgia.html> (검색일: 2013.03.14); В. Быкова, Н. Давлешина, *День катастрофы - 888. Остановленный геноцид в Южной Осетии*. Сборник,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Европа», 2008, сс. 175-176.

15) RIA Novosti, "Ossetians ask Russian lawmakers to recognize South Ossetia", March 6, 2008, <http://en.rian.ru/world/20080306/100838218.html> (검색일: 2013.03.11).

16) 카프카즈 분쟁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은 Л. Григорьев, М. Салихов, "Конфликт на Кавказе: вой на против развития", <http://www.wpec.ru/text/200809041109.htm> (검색일: 2013.03.18).

인하여 그루지야인의 생활수준은 더욱 낮아졌고 실업과 저발전,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그루지야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사카슈빌리의 정책적 실패를 성토했고 야당세력들은 그의 과오를 부각시키면서 정권교체를 역설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카슈빌리는 자신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질타를 외부로 돌리고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통합시켜 스스로를 구제하고 싶었을 것이다.

둘째, 그루지야의 대외정치적 요인을 들 수 있겠다.<sup>17)</sup> 장미혁명을 통해 집권한 사카슈빌리는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친미·친서구적인 정책을 추구해왔다. 그는 미국의 환심을 사기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고 대량의 미제 무기를 구입하였으며 NATO 가입을 서두르면서 독립국가연합(CIS) 탈퇴를 검토하는 등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는 도발적인 정책들을 수행하였다.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탈소비에트 국가들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이례적으로 그루지야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면서 사카슈빌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영토분쟁의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도덕적 지원만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사카슈빌리의 공언과 달리 그루지야는 NATO 가입이 여의치 않게 되었고 그만큼 사카슈빌리는 국내외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카슈빌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과 서구 모두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셋째, 에너지안보 전략과 연결된 파이프라인 문제이다.<sup>18)</sup> 러시아 측의 분석에 따르면, 바쿠-트빌리시-세이한(BTC) 석유 파이프라인은 러시아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이 파이프라인과 평행하게 건설된 South Caucasus 가스 파이프라인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를 우회하여 수송하기 위해 건설된 것이다. 서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전략적인 문제이며 특히 미국은 카프카즈지역에서 파이프라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익이자 관심사이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서구는 카프카즈 남부의 파이프라인 연결망에 대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적어도 그루지야와 러시아의 관계는 악화되는 것이 유리하고 그만큼 그루지야에 대한 서구의 영향력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서구의 동의나 지지확인 없이 사카슈빌리가 독자적으로 남오세티야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넷째, 소위 음모론인 미국 배후설이다.<sup>19)</sup> 푸틴 총리의 측근 정치학자인 세르게이 마르코프는 전쟁 직후인 8월 13일 러시아 국영라디오에 출연하여 ‘딕 체니 부통령이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그루지야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게 공화당이 대선승리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음모론이 나돌았다. 그러나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서 많은 러시아 학자

17) Ровшан Ибрагимов, “Причины грузинской операции в Южной Осетии”, 21 августа 2008г. <http://eurasianhome.org/xml/t/print.xml?lang=ru&nic=expert&pid=1964> (검색일: 2013.02.20).

18) Михаил Делягин, Гей дар Джемаль, Глеб Павловский, “Россия и Грузия после вой ны : перспективы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 <http://www.eurasianhome.org/xml/t/print.xml?lang=ru&nic=expert&pid=1711> (검색일: 2013.02.25).

19) 칼튼 대학교 유럽러시아연구소 전 소장인 표트르 두트케비치 교수는 2008년 8월 26일 캐나다 신문 *The Glob and Mail* 지에 “러시아는 그루지야를 응징하고서도 어떻게 패전하고 말았는가?”라는 사실을 게재했다. 그는 그루지야 전쟁이 고도로 계산된 미국의 전략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미국은 기대하던 눈부신 결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두트케비치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등지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공공연하게 반대사를 개진해 온 유일한 핵강국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루지야 전쟁을 도발시키고 러시아의 개입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과격하고 충동적인 사카슈빌리 대통령을 능수능란하게 조정”했다고 주장하였다. Виталий Шлыков, “Вой на с неизвестной целью : Чего добивался Михаил Саакашвили?”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том 6, № 5, Сентябрь-октябрь 2008. сс. 73-86. 참조.

들은 과연 미국의 용인 없이 그루지야가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사카슈빌리를 부추겨서 전쟁을 도발하게 만든 다음 러시아가 가혹하리만큼 대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보복하도록 유인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러시아는 미국의 노림수에 빠져들어 약소국을 도발한 꼴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국제적 위상 약화와 외국자본의 철수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sup>20)</sup>

이외에도 미국 등 서구가 코소보의 독립을 승인한 것이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등 미승인 공화국들의 민족자결과 독립열망을 강화시켰다는 점도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사카슈빌리의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오판과 서구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자주 회자되는 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 2. 전쟁의 진행과정

2008년 8월 7일 밤 로켓포와 탱크 등으로 증무장한 그루지야 정부군은 남오세티야의 츠хин발리시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하였다. 사카슈빌리의 집권 이후 그루지야 군대는 수 백 명의 미군 교관들을 초빙하여 정교한 훈련을 받아왔으며 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수입하여 우수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루지야 정부군의 기습적인 침공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하던 러시아군과 남오세티야군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만들어냈다. 또한 남오세티야 지역에 거주하던 수많은 민간인들을 전쟁 난민으로 내몰았다.<sup>21)</sup>

러시아는 그루지야가 남오세티야를 공격하자 신속하고 강력한 반격에 나섰다.<sup>22)</sup> 그루지야 정부군의 기습공격으로 이 지역에서 평화유지의 업무를 수행하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고 지역 거주 러시아 시민권자들 다수가 희생되거나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북오세티야에 주둔하던 병력을 포함하여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츠хин발리시를 공격한 그루지야 군대를 곧바로 밀어냈고 인접한 그루지야의 거점도시 고리시를 장악하였다. 나아가 러시아군대는 그루지야의 수도인 트빌리시 인근에 위치한 군사기지 바지야니와 대규모 송유시설 및 군사시설이 있는 항구도시 포티와 바투미 등에 대한 대규모의 공습과 폭격을 감행했다. 더불어 흑해함대의 군함을 동원하여 그루지야의 해안봉쇄에도 나섰다. 사카슈빌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러시아의 전방위적인 반격에 그루지야는 휴전을 요구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의 지원과 중재를 호소하였다. 결국 유럽연합국의 평화안을 위임받은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

20) 그루지야 전쟁과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에 대한 독립국가 승인으로 러시아 증시는 연일 폭락하였다. 양이랑, “요동치는 러시아 증시”, 『이데일리』, 2008년 08월 27일자 기사.

21) 그루지야 전쟁의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루지야 정부와 남오세티야의 주장에 큰 차이가 나고 그 외에 러시아나 국제연합, Human Rights Watch 등의 진상조사단이 밝힌 내용에도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에 다양한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더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Игорь Джадан, *Лия тидневная вой на. Россия принадлежит к миру*.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Европа», 2008; В. Быков а, Н. Давлешина, *День катастрофы - 888. Остановленный геноцид в Южной Осетии*. Сборник,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Европа», 2008; Евгения Пядышева, “Пять дней, которые изменили мир”,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11, 2008 참조.

22) 외신보도에 의하면 러시아는 그루지야가 전쟁을 도발하자 반격에 앞서 그루지야 대통령실과 군 및 정부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규모적인 사이버 공격(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을 감행하여 기간 정보통신 및 전산망을 마비시켰다. 효율적인 지상전을 전개하기 위해 사이버 전쟁을 병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 일간지 The Telegraph 인터넷 판이 2008년 8월 11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상세하게 다루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 "Russia 'conducting cyber war against Georgia'," (11 Aug 2008), "Russia continues cyber war on Georgia," (13 Aug 2008), <http://www.telegraph.co.uk/> (검색일: 2013.04.11).

스대통령의 평화중재안을 러시아와 그루지야 양측이 수용하면서 전쟁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sup>23)</sup> 2008년 8월 26일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Dmitri Medbedev)는 공식적으로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독립을 승인하였다.<sup>24)</sup>

#### IV.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대립

미국과 그루지야의 관계는 크게 3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치적, 지정학적, 그리고 에너지 안보의 측면 등이 그것이다. 우선 정치적 맥락에서 미국은 탈공산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놓인 국가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착하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민주주의의 확산 혹은 이식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라크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독재자를 제거하는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sup>25)</sup> 이 과정에서 미국과 그루지야는 급속도로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위해 터키에 영공개방과 공군기지 임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루지야로부터 공군 및 군사와 병참기지를 임대하게 되었다.<sup>26)</sup> 더구나 2003년에 이르러 그루지야는 이른바 장미혁명으로 알려진 시민혁명을 통해 친미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사카슈빌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그루지야의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어 여타 이행기 국가들에게 그 효과가 파급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루지야의 친미정책은 군사·안보적 교류로 이어졌다. 미국은 그루지야 군대를 교육하고 군장비를 현대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테러분자나 분리주의세력 등 국내외에 상존하는 위협세력들로부터 그루지야의 안보를 확립할 전략전술 개발을 지도하였다. 그루지야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기를 구매하는 등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sup>27)</sup>

미국이 그루지야의 지정학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미국은 과거 소련방을 구성하던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이 지역의 평화유지 임무를 러시아의 책임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데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구심이 깊어가고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카스피해 유전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자 남부 카프카즈 일대의 국가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sup>28)</sup> 그루지야가 미국과 서구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편으로 급

23) 평화중재안 6개 항목은 1. 무력사용 자제, 2. 모든 군사작전 중단, 3. 인도적 원조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 4. 그루지야 군대의 원 주둔지 복귀, 5. 러시아 군대의 전쟁 발발 이전 주둔지로 철수 6. 남오세티야 및 압하지야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적 논의 착수 등이다. 전쟁 상황에 대한 정리된 내용은 진태유, “러시아는 히틀러의 전술을 모방하나? - 2008년 남오세티야 전쟁”, 『뉴스피플』, 2008년 10월호(2008.09.26).

24)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45(4 September 2008), pp. 14-15;

Зая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26 августа 2008 года [http://kremlin.ru/appears/2008/08/26/1545\\_type63374type\\_82634type205158\\_205744.shtml](http://kremlin.ru/appears/2008/08/26/1545_type63374type_82634type205158_205744.shtml) (검색일: 2013.03.24).

25) 박찬수, “부시 ‘민주주의 확산론’ 허와 실”, 『한겨레 신문』, (2005.6.9).

26) Elizabeth A. Baker, *How do U.S./Georgia Relations Affect U.S./Russia Relations? Can the U.S Have Both?* A Research Report Submitted to the Faculty, (Air Command and Staff College/Air University, 2008), p. 15.

27) Baker, 2008, pp. 20-21; 이민식, “그루지야 분쟁의 에너지 파이프라인 공학”, 『글로벌지역연구』, (2008.8), p. 104.

부상한 것이다.

미국과 서구는 터키와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을 동-서로 연결시켜 카스피해의 원유를 유럽 지역으로 수송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그루지야는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유럽 수출을 위한 핵심 운송로가 되었다. 2005년에 완공되어 '평화의 송유관'으로 불리워지는 바쿠-트빌리시-세이한(BTC) 석유 파이프라인과 South Caucasus 가스 파이프라인, 그루지야 철도 등 그루지야를 통해 운송되는 원유가 이미 하루 120만 배럴(세계 원유 공급량의 1.4%)에 이르고 있다.<sup>29)</sup> 그루지야가 미국과 서구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인 것이다.

그루지야 전쟁은 5일 만에 종결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루지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일까? 이 질문은 러시아가 그루지야 전쟁에 개입하게 된 근본원인을 살펴보는 데서 답찾기를 시작해야 한다. 러시아는 탈소비에트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가진로와 목표를 경제적 근대화, 정치적 안정,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 확립으로 상징하였다. 따라서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발생하는 영토·국경분쟁에서 기본적으로는 중립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정책을 고수해왔다.<sup>30)</sup>

그런데 9·11 테러 이후 과거 소연방 구성공화국들에서 색깔혁명이라고 불리는 급격한 정권 교체현상이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배후를 의심하면서 러시아의 '강대국 실용주의' 정책을 주창하였다.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적 세계질서와 일방적인 민주주의의 이식전략을 거부하고 다자주의적 질서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푸틴의 대외정책 방향은 과거 러시아 외교정책논쟁의 골자를 형성하던 서구주의와 유라시아주의를 뛰어 넘는 것으로 '유럽적 동부(Euro-east)문명' 개념으로 진화했다. 유럽적 동부 문명의 개념을 소개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탈소비에트 체제전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중산층의 성장이 라는 유럽적 가치를 공유한다. 그러나 경제와 사회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인데 유럽적인 민주주의 기제들이 문명사적으로 볼 때 탈소비에트 국가에 항상 부합하는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푸틴의 정책보좌역이자 이론가들인 수르코프(Vladislav Surkov)나 트레차코프(V. Trechakov) 같은 이론가들은 '주권민주주의' 개념을 만들어 푸틴의 대내외정책이념을 뒷받침했다.<sup>31)</sup>

그루지야 전쟁을 통하여 러시아는 카프카즈 지역 전체의 안보와 남오세티야 상황의 상호관계를 인지하면서 확실하게 남오세티야 편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러시아는 그루지야 전쟁을 통하여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대외정책 양상을 드러낸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친미반러 노선을 지향하는 그루지야를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지렛대로 남오세티야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루지야는 2004년 사카슈빌리의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남부 카프카즈 지역 전체에 미국과 서구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 따라서 러시아의 그루지야 전쟁 개입은 단순히 남오세티야를 그루지야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만 보기 어렵다. 이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과 마

28) 엄구호, "그루지야의 대외정책: 전략적 입지와 딜레마", 한양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유라시아정보센터 <유라시아 자료> <http://www.eurasiahub.org/> (검색일: 2013.01.23).

29) 이민식, *op. cit.*, pp. 106-107.

30) 우준모,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 유라시아주의의 확립과 실현",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2005), pp. 255-280.

31) Andrei P. Tsygankov, "Finding a Civilizational Idea: 'West', 'Eurasia' and 'Euro-East' in Russia's Foreign Policy," *Geopolitics*, Vol. 12, No. 3, 2007; Андрей П. Цыганков,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и от Горбачева до Путина*, М.: Научная книга 2008.

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공동체의 동의 없이도 독립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sup>32)</sup>

그러나 러시아가 전쟁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카슈빌리는 전쟁을 도발하고도 여전히 그루지야의 대통령으로 건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사카슈빌리의 전쟁도발 책임을 물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전범으로 기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리고 그루지야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건재를 과시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사카슈빌리는 종전 후 미국을 방문하고 서구 언론과 접촉하면서 러시아를 비난하고 더욱 강경한 반 러시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연구자 쿨리크(Vitali Kulik)에 따르면 소연방 해체 직후 형성되었던 지역안보체제(독립국가연합)는 새로운 요구에 더 이상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카프카스 지역을 포함하여 독립국가연합 전 지역은 소연방 해체 직후 기능하던 과거의 게임법칙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를 세르게이 마르케도노프는 컴퓨터 용어에 빗대어 2008년 8월 유라시아 지역 내 갈등이 최종적으로 ‘재부팅(перезагрузка)’<sup>33)</sup>되었다고 표현했다. 현상유지와 갈등해소 노력과정을 보장하던 법적, 정치적 협정들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비상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쟁을 통해 그루지야는 이미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에 대한 소치평화협정 준수를 거부하였으며 러시아 정부도 평화유지군 작전개념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8년 독립국가연합의 모순은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그루지야 전쟁을 통해 독립국가연합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루지야의 탈퇴와 우크라이나의 탈퇴의사 표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독립국가연합 회원국가들의 원심력이 극대화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 주요 파트너인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까지도 그루지야 전쟁에 대한 지지 혹은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2005년 안디잔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위기국면에 처했을 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던 우즈베키스탄이나 1992-1997년 사이의 내전에서 러시아에 의해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받았던 투르크메니스탄도 마찬가지였다. 종전 직후인 8월 21일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 개최된 탈소비에트 공간 내의 집단안보조약기구(ОДКБ)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에서조차 그루지야 전쟁에 대한 합의된 입장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독립국가연합 회원국들은 모두 각기 분리주의 문제를 안고 있기에 자신들의 국가적 통합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필요 이상의 조건을 러시아에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08년 8월 26일 탈소비에트 공간의 지형도가 달라졌다. 국제사회의 미승인 공화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독립승인으로 국경의 재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 소연방 지역의 새로운 지도에는 두 개의 새로운 국가가 등장했다. 이 두 국가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불인정은 코소보의 독립승인 사례와 충돌하면서 남부 카프카스의 지정학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몰아갈 개연성이 크다.<sup>34)</sup>

32) Михаил Зыгарь, Владимир Соловьев, “Пятидневная война”, *Власть* No. 32(785) от 18. 08. 2008, <http://www.kommersant.ru/doc.aspx? DocsID=1011909&print=true> (검색일: 2013.02.24).

33) Сергей Маркедонов,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 перезагрузка - Пятидневная война сквозь призму постсоветск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Том 6 No. 5, (сентябрь-октябрь 2008), сс. 113-126. 참조

34) 진태유(2008), 앞의 글.

## V. 전망 (미완성 상태)

그루지야의 남오세티야 침공으로 시작된 그루지야 전쟁은 기존의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미국과 서구는 전쟁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고 전후처리 과정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유럽연합을 대표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재노력은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을 앞섰다.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번 전쟁의 본질은 탈냉전의 세계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미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를 거부하고 지역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를 포함하는 다자적 국제질서를 요구하는 러시아의 의지가 충돌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그루지야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호견제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러시아에 적대적인 우크라이나는 그루지야 전쟁이 지속될 경우 참전한 러시아 흑해함대의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귀항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귀속된 크림반도는 인구의 절대 다수가 러시아계이다.<sup>35)</sup> 현재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공화국 내에서 유일하게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그루지야와 유사한 친서구주의 정책을 추구하면 분리독립 움직임을 보이곤 한다. 우크라이나가 반 러시아적인 성향을 노골화하고 그루지야와 같은 빌미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는 지체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공격 할 것으로 보인다.<sup>36)</sup>

향후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러시아의 외교정책 전문가인 아르바토프(Alexei Arbatov)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sup>37)</sup> 첫째, 미국은 코소보에서와 마찬가지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 코소보에서 만든 선례를 다른 경우에는 예외로 할 경우 그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러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은 모든 국가가 자신이 원하는 진영에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는 식의 선동을 자제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이 그들만의 자결권을 갖는다는 선동을 자제해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규칙들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지 않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미국과 러시아는 반테러전쟁, 군축, 핵무기 확산방지 등과 같은 전세계적 정책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루지야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 양국관계는 진일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루지야 전쟁은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안보와 카프카즈 지역에 대한 패권을 놓고 충돌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아르메니아의 예레반 그리고 이란의 테헤란을 연결하는 카프카즈의 거대한 종축을 공고하게 다지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은 워싱턴과 터키의 앙카라, 그루지야의 트빌리시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를 연결하는 새로운 횡축을 건설하려고 노력해왔다. 이 두 축이 남오세티야 갈등 지점에서 만나 폭발을 일으킨 상황이 그루지야 전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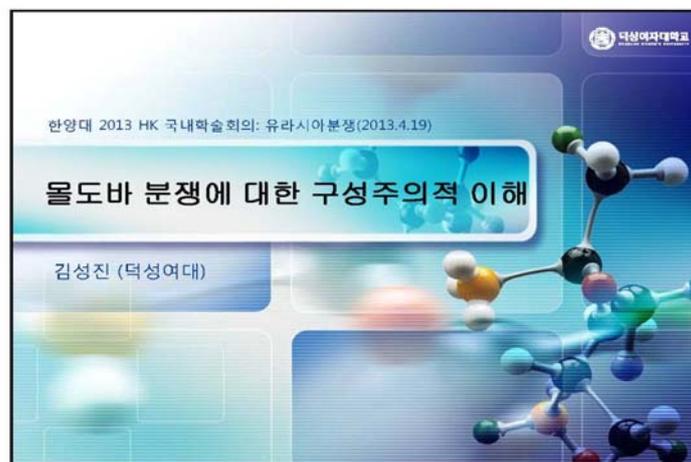
3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우준모, “크림반도 갈등의 해결과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연구”, 『세계지역 연구논총』, 제22집 1호 (2004), pp. 191-222.

36) 안석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제2 남오세티야 되나: 러시아계 많아 분리독립 정서...美, 경비함 흑해로 파견 ‘견제’”, 『세계일보』, 2008년 8월 29일 국제면 기사.

37) Дмитрий Тренин, Алексей Арватов, “Россия - Америка : Куда дальше?” <http://www.carnegie.ru/ru/pubs/media/79346.htm> (검색일 2008년 10월 20일).

# 몰도바 분쟁에 대한 구성주의적 이해

김성진(덕성여대)



**Contents**

- ◆ ..... I. 연구목적
- ◆ ..... II. 정체성과 분쟁의 배경
- ◆ ..... III. 내전과 냉각된 갈등
- ◆ ..... IV. 갈등요인의 변화와 평화안
- ◆ ..... V. 결론

## I. 연구목적

- 목적
  -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한 탈소비에트공간내 분쟁에 대한 이해 제고
    - 민족-지역분쟁과 '사회안보'
    - 유형화
  - 내전 이후 분쟁요인의 변화와 평화안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전망에 대한 시사점 도출

## II. 정체성과 분쟁의 배경

- 정체성
  - 탈지역적 기반 공동체
  - 지역기반 공동체
- 사회
  - 웨버(Ole Waever 1993, 21)의 사회: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타성과 가치, 그리고 제도가 다른 사회집단과 다른 집단”

## II.1. 지역 개념

- 지역의 개념
  - 지역은 영토를 매개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사회적 타성과 가치, 그리고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
  - 이러한 지역은 지리적인 개념은 물론 지리적 범위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을 총괄하는 개념
  - 타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과 일체감이 있을 경우 지역주의(regionalism)의 형태로 발전(정치적 의미)

## II.2. 지역/사회 갈등의 역동성

- 지역기반 사회적 갈등 (사회안보 위기)
  - 위협의 대상: 사회/지역 '정체성'
  - 위 기: 침투 / 정통성 / 분배 / 정체성 / 참여
  - 정치화: 정치엘리트에 의한 현상의 해석(인식)
  - 대중의 공유 (사회안보 딜레마-일방의 적대적 인식이 상대방의 적대적 인식을 촉발)
  - 대 응:
    - 국가지향적 대응(국경통제, 입법)
    - 비국가적 대응: 정부압도(남아공 아파트이아), **분리/독립**, 독자적 발전 (중국인, 유대인 등)

- 인식은 '이해' 판단의 기반
- 갈등의 역사적 경험
- 정치엘리트의 역할 중요(특히 몰도바의 경우 시민사회 한계)
- 정권교체 = '의제'와 '인식'의 전환 가능성
- 환경 및 주요 행위자들의 능력과 인식 변화와 맞물려 간주간적으로 사회적 구성을 재생산하게 됨.

- ### II.3. 분쟁의 배경
- 영토변경의 역사
  - 역사적 갈등경험
  - 정치엘리트의 구성
  - 약한 시민사회
  - 인구구성

- 영토변경
  -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민족/언어 동질성
  - 트랜스니스트리아의 경우 역사적으로 루마니아 영토였던 적이 없음.
    - 루마니아 정체성의 경우 1994년 국민투표 결과 몰도바 독립에 97.9%가 찬성함으로써 루마니아와 통합을 원하는 직접적 국민투표는 아니지만 루마니아 정체성을 부인
- 역사적 갈등 경험
  - 2차대전 (1941-1942) 루마니아 / 나찌 침공시 유태인 학살
    - 트랜스니스트리아의 반루마니아 정서의 한 요인

루마니아 & 몰도바 자치공(1920-1942)  
[http://en.wikipedia.org/wiki/File:Romania\\_MASSR\\_1920.png](http://en.wikipedia.org/wiki/File:Romania_MASSR_1920.png)

The map shows the geographical context of Romania and Moldavia in 1920. Romania is highlighted in yellow, and the Moldavian ASSR is highlighted in orange. Neighboring countries include Hungary to the west, Poland to the north, U.S.S.R. to the east, and Bulgaria to the south. Major cities like Bucharest, Cluj, and Sibiu are marked. The Black Sea is visible to the east.



- 1993년 Mircha Snegur 대통령

  - 베사라비아는 역사적으로 루마니아 영토였지만 18세기말 트란스드니에스터 지역은 러시아제국의 영토
- 베사라비아지역

  - 1912년 터키와의 조약을 통해 러시아에 편입
  - 1918년 베사라비아 정부는 루마니아에 편입되기로 결정
  - 1924년 소비에트 정부는 동지역의 상실을 우려해 몰도바 공화국 건설(우크라이나공화국 영토내)
  - 1940년 독일에 대한 최후통첩의 결과 베사라비아지역은 소련방에 편입
  - 몰도바 사회주의 공화국 건설과정에서 남부지역들—북부 코비나(Northern Bukovina), 이스마일 시(City of Ismail), 볼고로드-드네스트롭스키시(City of Bolgorod-Dnetrovsky) 등—이 우크라이나에 할양됨.



- 정치엘리트의 구성
  - 몰도바 인민전선: 루마니아 정체성
  - 몰도바 공산당: 몰도바 정체성
    -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
  - 트랜스니스트리아: 스미르노프 (1987년 몰도바 민족운동의 견제를 위해 파견한 인사)(Spanu 2009, p. 14)



- 약한 시민사회
  - USAid: 몰도바 경우 2000년 5 (중간단계의 끝)
  - 1997-2000년 평균 4.38
  - 2001-2004년 평균 4.50
  - 2005-2008년 평균 4.70
  - 큰 변화는 없으나 오히려 NGO 활동이 둔화되는 추세
  - 정치엘리트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여건

**인구구성**

- 몰도바
- 트랜스니스트리아
  - 1989년 트랜스니스트리아 인구 구성
    - 몰도바인/루마니아 40%, 우크라이나인 28%, 러시아인 25%, 불가리아인 2%, 가가우즈인 1%, 기타 4%
  - 2004년 트랜스니스트리아 인구 구성(약 55만 명)
    - 몰도바인 32.1%, 우크라이나인 28.8%, 러시아인 30.4%, 불가리아인 2.5% 등으로 구성
- 지역요구의 '초민족적' 속성
  - 도시내 러시아인은 50% 근접 → 지역격차 보임
  - '초민족적 속성' 혹은 여론주도층의 인식 확산

**몰도바공화국 인구구성(2004)**

	몰도바		트랜스니스트리아 +벤다		합계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몰도바인	2,564,849	75.81	177,382	31.94	2,742,231	69.62
우크라이나인	262,406	8.35	180,068	28.82	442,475	11.23
러시아인	201,218	5.95	188,678	30.37	389,896	9.99
가가우즈	147,500	4.36	4,098	0.74	151,598	3.85
루마니아인	73,276	2.17	253	0.05	73,529	1.87
불가리아인	65,662	1.94	13,858	2.50	79,520	2.02
로마니	12,271	0.36	507	0.09	12,778	0.32
벨라루스인	2,383	0.01	1,791	0.32	4,174	0.11
기타	30,159	0.89	27,454	4.94	57,613	1.46
합계	3,383,332	99.84	555,347	99.77	3,938,679	99.87

### III. 내전과 '냉각된 분쟁'

- 무력갈등단계(1989-1994)
- 초기 관계정상화 협상단계(1995-2003)
- 협상정체기(2003-2010)
- 갈등전환기(2011-현재)
  - 2010.6 Meseberg Momoremundum
  - 2011.11 스미르노프 퇴임
  - 2012.4 기본원칙과 절차에 합의

### 무력갈등단계(1989-1994)

- 무력갈등단계(1989-1994)
  - 1990년 2월 25일 선거, 몰도바 인민전선 승리
  - 1990.8.19. Pridnestrovian-Moldovan SSR, Gagauzia 분리 선언; the Pridnestrovia-Moldova Republic (PMR)로 개칭
  - 1991.8.27. 러시아 구테타 실패 이후 분리·독립선언
    - » 트랜스드니에스터지역: 새로운 국가상징과 라틴식 표기에 반대; 러시아어 공식언어 유지; 1990년 가을 키쉬네프(Kishinev)의 법적 권위 부인→무력충돌로 발전
    - » 1990.11.2. 두보사리(Dubossary)시에서 몰도바 경찰이 시민들에 의해 장악된 구의회, 법원 등을 탈환하는 과정에서 총격해 3명 사망
  - 1991.12.1. PMR 국민투표 실시; 투표중 98%(전체인구의 약 78%)가 PMR의 독립에 찬성
  - 1992년 초에 이르러 키쉬네프 정부는 Pridnestrovia-Moldova Republic (PMR)에 대한 통제력 상실

**초기 관계정상화 협상단계(1995-2003)**

- 제안
  - 1992.7 휴전
  - 1994.10 몰도바-러시아조약(러시아 14군 주둔 허용)
  - 세 가지 접근
    - 1) TMR과 직접협상하고 러시아와 관계개선
    - 2) TMR과 협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러시아와 직접협상
    - 3) 러시아 영향력 견제를 위해 외국을 통해 TMR에 압력
  - 트랜스니스트리아 변화
    - 1995.3.26 러시아 제14 근위군의 지속주둔에 대한 국민투표 90% 이상 지지
    - 1995.12.24 1995년 헌법 채택과 CIS 가입
      - » 새헌법 81.8% 찬성 (투표율: 62.70%)
      - » CIS 가입에 대해서는 90.6% 찬성 (투표율: 62.70%)

- 1997 Primakov Memorendum ‘몰도바 공화국과 트랜스니스트리아간 관계정상화 원칙에 대한 각서’

### 협상정체기(협상정체기(2003-2010))

- 2003 Voronin은 러시아와 직접협상 시도..
  - Tiraspol과 헌법 초안 공동작성 제인 실패후 러시아와 직접협상);
  - Dmitry Kozak의 중재로 스미르노프로 하여금 몰도바와의 통일안에 합의하도록 함..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러시아는 러시아군을 향후 20년간 주둔하도록 함 (Rodkiewicz 2011, p. 10).

- 2003.11. 보로닌은 Kozak Plan.을 거부하고 세 번째 접근방법을 시도함.
  - 우크라이나와 EU
  - 2005년 Viktor Yushchenko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안 (TMR을 국제감독하에 두자는 안) --> 이를 위해서는 TMR의 스미르노프 레짐 변화가 전제조건

■ 2005년에 미국과 EU가 OSCE 자문메카니즘에 포함됨 ('5+2'과정)

- 2005년 EU는 몰도바 분쟁에 대한 특별위원회 설치 + EU 국경지원임무(European Union BOrder Assistance Mission: EUBAM) 시작
- 2006년 봄 보로닌 대통령은 Yulia Timoshenko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하여 TMR에 의해 관리되는 몰도바-우크라이나 국경에 몰도바 세관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TMR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철도를 봉쇄함. 이러한 조치에 러시아는 반발해 몰도바 와인 및 다른 농산물 수입금지와 러시아가 몰도바에 제공하는 천연가스 가격을 두 배 인상함.
- 2006 여름 몰도바는 Yulia Timshenko 수상 경질 -> 우크라이나는 전과 같이 몰도바와 TMR 사이의 중립으로 회귀

■ 2006 여름 Voronin 대통령은 모스크바와의 쌍무협상전략으로 전환

- 2008년 러시아는 몰도바-TMR의 직접협상을
- 보로닌 대통령은 2009년 총선에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함.
- 러시아에 현재의 평화유지군 형태와 분쟁의 최종해결과 TMR내 러시아군 철수의 연계를 양보하게 됨.

**갈등전환기(2011-현재)**

- 2010.6 Meseberg Momoremum
  - 2012.4 기본원칙과 절차에 합의

**IV. 갈등요인의 변화와 평화안**

- 배경
  - 트랜스니스트리아 선거
    - 2011.11 스미르노프 퇴임
    - 2010.12 대통령선거에서 Obnovlenie 는 대통령 지지 정당을 극복
  - 몰도바 선거
    - 2010년 10월 28일 총선 이후 공산당을 제외한 정당이 2010.12.30. '유럽통합을 위한 동맹'(Alliance for European Integration)을 형성
    - Vladimir Filă 수상은 EU접근

- **몰도바**
  - 새로운 정부는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자제 (5+2 형태 강조)
  - 새정부는 신뢰구축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2010. 10 Chisnau와 오데사의 철도와 전화연결
  - 2010.9 AIE정부는 TMR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직접 수출하는 것을 허용
- **트랜스니스트리아**
  - Obnovlenie 는 진기엄
  - 경제변수의 중요성 증대

#### IV. 평화안과 관련국 입장

- **러시아**
  - EU 확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의 전략적 가치 제고
- **EU**
  - Neighbourhood Policy, the Eastern partnership, ENP Action Plan 등 지원
- **우크라이나**
  - 이주문제 등
  - 현상유지나 완만한 변화 선호
- **미국:**
  - 외교정책상 낮은 우선순위
- **OSCE:**
  - 5+2 기초 신뢰구축

### V. 결론

- 지역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
- 국가능력의 저하에 따른 분쟁의 지속
  - 몰도바의 경제력이나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민주주의 문제 등 상호 유인책 부족
- 냉각된 분쟁의 새로운 이해관계
  - 정체성의 문제가 경제와 전략적 이해관계로 변화되는 양상
- 정치적 발전과 정치엘리트의 교체가 변화 초래

www.duksung.ac.kr

*fin...*





##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 연구\*

박정호(한국외대)

### I. 서론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의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은 범지구적 차원에서 세계화 작업의 본격화를 알려주는 신호탄이었다. 주지하듯이, 세계화 과정은 탈냉전 시기 국제환경 변화의 중대한 산물로서 민족과 영토,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Nation State) 체제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주었다.<sup>1)</sup> 그 결과 현대세계에서 국민국가의 존재가치와 영향력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국경 없는 지구촌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대변혁의 파고 속에서도 국제관계의 행위주체로서 ‘국민국가’와 이념적 토대인 ‘민족주의’는 여전히 그 본원적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세계화 시기 지구촌 곳곳에서 민족주의 운동들, 지역 및 인종 분쟁들이 끊임 없이 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입증된다. 게다가, 분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민족적 변수’<sup>2)</sup>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기 논거는 보다 큰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소비에트 연방(Soviet Union)의 해체와 동서 대결구도의 붕괴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정치 경제적 및 사회적 변혁을 촉발시켰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념(자본주의 vs 사회주의)을 바탕으로 한 냉전적 억압체제아래 매몰되어 있었던 다양한 사회·문화적 갈등들이 분출됨에 따라, 인종, 언어, 종교, 지역 등을 매개로 하는 민족과 지역 분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게다가, 21세기에 들어서도 지역적 차원의 민족 분쟁들은 여전히 소멸되지 않은 채, 해당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은 탈냉전 시기 발생한 많은 지역 분쟁들이 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y) 확립의 핵심 토대가 되는 종교적 요인, ‘이슬람 요인’(Islam factor)와 직접 혹은 간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sup>3)</sup> 이처럼 탈냉전 시기 국제환경의 변동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된 ‘이슬람 문제’는 민족과 지역들 간의 갈등 상황을 한층 첨예화시키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본고는 2006년 슬라브학보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1) 성경용, 『국민국가 개혁론』(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6), pp. 226-228.
- 2) ‘민족적 변수’란 영토 및 자원을 둘러싼 각 민족들의 세력투쟁,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민족이주의 문제로 야기된 민족들 사이의 정치·사회적 갈등, 특정 민족의 문화적·종교적 정체성 부정, 인종적 편견과 다른 민족에 대한 무시,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권한 부여에 있어서 상대적 차별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슬람학회, 『끝나지 않은 전쟁』(서울: 청아출판사, 2002), pp. 21-23.
- 3) ‘이슬람 요인’이 작용하였던 대표적인 분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동의 화약고로서 세계평화의 위협요소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중국의 신장 위구르 분리주의 운동,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태국남부의 파타니족 박해사태, 필리핀 남부의 모로 분쟁, 아프가니스탄 내전, 아프리카의 르완다 사태, 소말리아 분쟁, 에디오피아 내전, 발칸 반도의 보스니아 사태와 코소보 내전, 러시아의 체첸 분쟁,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나고르노-카라바흐 갈등,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및 이라크 전쟁 등을 들 수 있겠다. Ibid., p. 24.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포스트소비에트(post-soviet) 공간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분쟁들 및 민족 갈등들 역시 중요한 국제적 사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러시아연방의 구성주체인 북 코카서스(North Caucasus)와 더불어, 신생 독립국가들인 조지아(Georgia), 아르메니아(Armen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로 구성된 ‘자카프카지예’ 지역은 국가 또는 민족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표출된 대표적 분쟁 공간이었다.<sup>1)</sup> 이곳에서는 개방과 체제이행의 변혁과정 아래 심각한 사회·경제적 혼란상황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지역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이 폭발하여 내전으로까지 비화되었기에 그렇다. 더욱이, 자카프카지예가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시아, 북반부와 남반부,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교차로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자카프카지예 지역 분쟁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 것이다.

특히 자카프카지예에서 발생하였던 민족 분쟁들 가운데 1990년대 초반 조지아에서 발생한 아브하지아 사태는 분규의 성격과 규모, 국제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형태의 민족 갈등이었다. 비록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UN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내전은 종식될 수 있었지만, 오랜 역사적 기간 동안 응축되었던 양측의 불신과 반목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수년 동안 잠복되어 있었던 양 민족의 갈등은 21세기에 들어서 다시금 비화되고 말았다. 이는 2003년 11월 ‘장미 혁명’(Rose Revolution)을 통해 집권한 친 서방주의자 사카쉬빌리(Saakashvili) 대통령이 ‘조지아의 완전한 통합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갔다는데 핵심 원인이 있었다.<sup>2)</sup> 자국내 3개 자치조직(아자리아, 남 오세티아, 아브하지아)에 대한 조지아 정부의 공세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의 정책 추진은 아브하지아 측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다. 아브하지아 자치정부는 ‘탈 조지아 독립선언’ 및 ‘러시아로의 병합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갔다. 조지아 내부의 지역갈등은 본질적으로 해당 민족들 사이의 불신과 투쟁을 초래함으로써 국제적 성격의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조지아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동서의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지아는 신 냉전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러시아와 미국의 ‘지정학적 게임의 공간’이자, 카스피해 유전개발과 송유관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큰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겠다.<sup>3)</sup> 따라서 조지아에서 민족분쟁의 발화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의 증대는 러시아와 서방국가들의 국익침해로 직결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 덕분에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은 국제적 공동 관심 사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아브하지아 분쟁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전형적인 민족분규였다. 따라서 상기분쟁의 본질규명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갈등요인에 대한 통시적이고 다층적 차원의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종합적 연구 작업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아브하지아 분쟁의 갈등요인을 정치적 및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아브하지아 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그와 연관된 정치·경제적 변인들의 유기적 분석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민족 국가인 조지아의 지역적·사회적 갈등 발생원인, 중앙-지방관계의

1) 코카서스 지역은 본래 러시아연방의 구성 주체로서 북 코카서스(체첸, 잉구세티아, 다게스탄, 아드이게아, 북 오세티아-알라니아, 카바르디노-발카리아, 카라차예보-체르케시 공화국, 로스토프 주, 크라스노다르와 스타브로폴 변경)와 소비에트 붕괴 이후 독립국가로서 등장한 남 코카서스 지역, 즉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자카프카지예(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로 구분된다. 특히 코카서스는 60여 소수민족들의 ‘인종 전시장’으로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러시아-체첸 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태, 조지아-남 오세티아 갈등,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 등과 같은 피지배 민족들의 분리 독립운동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민족 분규의 발화 현상이었다. K. G. Гаджиев, *Геополитика Кавказа* (Москв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2001), с. 43-57.

2) 『연합통신』, 2004년 8월 13일.

3) 브레진스키 저, 김명섭 옮김, 『거대한 체스판』 (서울: 삼인, 2000), pp. 70-71.

모순과 국가적 통합성의 문제, 푸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과의 정치적 상관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적 관점으로, 본 논문은 조지아와 아브하지아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세계화 시기 러시아연방의 국가발전전략과 자카프카지에 지역분쟁의 경제적 함수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II. 분쟁의 역사적 배경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의 원인 규명은 우선적으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즉 압하스 민족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조지아와의 관계사에 대한 고찰을 기본전제로 한다. 이는 역사적 응축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던 상호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목의 대결구도가 결국 아브하지아 사태를 발생 및 심화시킨 근본 동인이기에 그러하다.

압하스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코카서스 토착민족들 가운데 하나이다. 아브하지아 지역이 지리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한 관계로 압하스 민족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민족들(몽골, 오스만 투르크, 러시아 등)로부터 침략과 지배를 당하였다.<sup>4)</sup> 또한 종교적으로도 압하스 민족은 기독교 및 이슬람 세력의 영향을 차례로 받게 될 만큼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민족 집단이었다. 압하스 민족은 본원적으로 자신들의 삶과 정치의식의 저변에 지배 민족들에 대한 혐오감과 저항정신을 배태하게 되었다.

조지아와 아브하지아의 역사발전과정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몇 개의 공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조지아가 19세기 러시아 제국에 병합된 이후 러시아의 일개 지방조직으로 전락했던 반면, 아브하지아 공국은 차츠바 공후의 통치아래서 1864년까지 실제적으로 정치적 주권을 보존하고 있었다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sup>5)</sup> 특히 1864년 제정 러시아 당국에 의해 주권을 상실한 이후 아브하지아는 자치권 확보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코카서스 전쟁과 두 차례(1866년과 1877년)에 걸친 반 식민주의 봉기에 참여함과 동시에, 1877년-1878년 러시아와 터키 사이의 전쟁에서 터키의 편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선택 덕분에 압하스 민족은 제정 러시아 정부로부터 가혹한 탄압, 즉 강제이주정책에 따른 인종적 대 참사를 경험하게 되었다.<sup>6)</sup> 이러한 맥락 속에서 1870-1880년대 진행된 조지아인들의 아브하지아 지역으로의

4) 압하스 민족은 러시아연방에 거주하고 있는 북 코카서스 민족들(아드이게야, 카바르디노, 체르케시, 우브이흐 민족)과 가장 큰 유사성을 갖고 있는 친족 집단인데, 이들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기원전부터 코카서스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압하스 민족은 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브하지아 공국이라는 고대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미 6세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아브하지아 공국은 아랍 세력의 침입에 대한 방어자로서 서부 코카서스 지역의 통합과정과 알라니아(오세티야)의 기독교화를 주도하였다. 10세기 후반 아브하지아 공국은 조지아 계열의 공국들과 함께 압하스-카르트벨(조지아) 공국으로 통합되었으나, 13세기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휩쓸었던 몽골족에 의해 압하스-카르트벨 공국은 붕괴되고 말았다. 그 이후 아브하지아 공국은 16세기부터 2세기에 걸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와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이슬람화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1810년 러시아 제국의 행정구역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국가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Л. Станислав, *Абхазия после двух империй XX-XXI* (Москва : Материк, 2004), с. 9-12.

5) В. Чирикба, “Грузино-абхазский конфликт: в поисках путей выхода,” Б. Кош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 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 Весь Мир, 1998), с. 73-74.

6) 이 당시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압하스 민족의 절반 이상이 조국을 떠나 터키에서 난민이 되었다. 1864년 까지 단일한 인종집단이었던 압하스 민족은 19세기 후반기 다른 인종집단들(조지아, 그리스, 불가리아, 독일, 에스

광범위한 이주정책이 양측 간 심각한 사회·경제적 갈등을 촉발시켰던 역사적 시발점인 것이다.

게다가, 1917년 10월부터 1921년 3월까지 아브하지아는 제정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조지아 공화국과 심각한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1917년 11월 8일 아브하지아의 민족의회인 인민 소비에트가 결성되어 헌법을 승인하였고, 1918년 5월 11일 바투미 평화회의에서 북 코카서스와 아브하지아를 통합하는 산악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이러한 아브하지아의 독자적인 정치적 행보에 맞서서 조지아 정부는 아브하지아를 무력으로 점령함과 동시에, '자치의 기반위에 토대를 두고 있는 아브하지아는 조지아 공화국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주창하였다.<sup>7)</sup> 이와는 달리, 아브하지아는 조지아의 무력에 의한 강제복속 사실을 강조하면서, 조지아로부터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 받는 대신에 오히려 탄압을 당했다고 반박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1919년 3월 20일 조지아 정부가 조지아의 일부분으로서 아브하지아 자치에 관한 법령을 일방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sup>8)</sup>

1921년 조지아와 아브하지아가 소비에트화 됨에 따라, 1921년 3월 31일 아브하지아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원이 되었다. 결국 조지아의 볼셰비키 정부도 1921년 5월 21일 아브하지아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소연방 형성기인 1922년부터 1931년까지 아브하지아는 연방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자치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지아 출신 스탈린의 집권과 철권통치는 상황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켰다. 1931년 스탈린은 연방공화국에서 자치공화국으로 아브하지아의 정치·행정적 지위를 격하시킴과 동시에, 아브하지아를 조지아에 일방적으로 합병시켜버렸다.<sup>9)</sup> 또한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강제적인 조지아화 정책을 통하여 아브하지아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가했다.<sup>10)</sup> 이것은 조지아인들에 대한 압하스 민족들의 극심한 반감과 불신을 응축시켰던 가장 대표적 사건이었다.

스탈린 시기 수면아래 잠복되어 있었던 아브하지아 측의 불만은 1957년, 1964년, 1967년 각각 부분적으로 제기되어 오다가, 1978년 '조지아 공화국으로부터 이탈하여 러시아 공화국으로 편입하겠다'라는 '아브하지아 분리주의 운동'이 최초로 표면화되었다.<sup>11)</sup> 크레믈린 정부는 아브하지아의 '탈 조지아 정책'에 대한 승인을 원칙적으로 거부했으며, 이에 대한 회유책으로 대규모 경제 지원과 문화 분야에서의 자율권 확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임시방편적인 유화정책은 아브하지아 측의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도리어 조지아 측의 불만을 한층 가중시켰다.

1989년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개방적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아브하지아도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 격상을 재차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조지아에 소속된 자치공화국이 아닌, 1920년대처럼 조지아와 동등한 지위를 보유하는 아브하지아 연방 공화국으로의 복권을 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토니아 등)의 광범위한 이주에 의하여 급격한 인구변동을 겪게 되었다. 그로 인해 1886년 85.7%였던 압하스 민족의 인구비율은 1897년 55.3%까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Станислав, Указ. соч., с. 12-13.

7) Чирикба, Указ. соч., с. 75.

8) Там же.

9) 흑해로의 안정적인 출구확보와 북 코카서스를 포괄하는 소련의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탈린은 우선적으로 조지아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조지아의 입장에서 아브하지아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В. Ф. Пряхин,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Москва : ГН ОМ и Д, 2001), с. 173-175.

10) 스탈린의 강제적인 조지아화 정책은 압하스 민족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 및 탄압, 아브하지아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민족적 특성 무시, 조지아인들의 아브하지아로의 대량이주정책 등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이는 사실상 아브하지아의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었던 탄압정책이었다. Г. П. Лежава, *Абхазия: анатом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Москва : ИЭА РАН, 1998), с. 71-75.

11) Пряхин, Указ. соч., с. 176.

아브하지아의 분리주의 요구는 조지아인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조지아인들은 아브하지아 지역에서 자신들이 인구 구성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압하스인들보다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sup>12)</sup> 그런 연유로 1989년 7월 조지아인들의 격렬한 반대시위가 진행되었고, 이것은 결국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초래한 조지아와 아브하지아의 유혈충돌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측의 첨예한 갈등상황 속에서 1990년 초 조지아 의회가 일방적으로 소비에트 시기의 모든 국가구조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아브하지아의 국가적 지위를 전면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1990년 8월 25일 아브하지아 최고회의가 국가주권 선언을 승인함으로써 양 민족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었다.

### III. 분쟁의 전개과정

1991년 4월 말 조지아 최고 소비에트가 새로운 헌법을 승인함에 따라, 5월 26일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민족주의자인 감사후르디아(Gamsakhurdia)를 신생독립국 조지아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조지아인들을 위한 조지아’를 건설하겠다는 확고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탈 조지아’ 노선을 견지해 오고 있었던 아브하지아 측의 불만을 증폭시켜주었다. 더욱이, 감사후르디아 정권은 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문제, 야당세력들과의 끊임 없는 정쟁, 자치 지역들의 반 조지아 경향 강화 등이 발생하여 조지아 전체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sup>13)</sup> 결과적으로 1991년 12월 대통령과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 무장투쟁이 발발하였고, 1992년 1월 트빌리시 중심가에서 몇 주간의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었다. 그 이후 감사후르디아는 외국으로 도주하였다. 키토바니(Kitovani) 군 사령관이 주도하는 군사위원회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의회해산과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버렸다. 1992년 3월 군사위원회는 자진 해체를 선언함과 동시에, 국가평의회 창설을 공표하였다. 이는 36개 야당세력들을 대표하는 70명의 핵심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의 통치조직인데, 이 조직의 초대의장으로 선출된 쉘바르드나제(Shevardnadze)가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sup>14)</sup>

쉘바르드나제 정부는 정국의 혼란상황 타개와 국가적 대통합을 달성할 목적으로 소련 시기 승인된 모든 법률들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1992년 7월 23일 아브하지아 최고회의는 ‘아브하지아가 조지아 연방공화국에 소속된 자치공화국’이라고 규정한 1978년 헌법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자치권 사수를 목표로 연방국가 창설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조지아 정부는 ‘단일한 주권국가인 조지아에서는 그 어떠한 자치조직도 허용될 수 없다’라는 국가의 통치원칙을 천명하면서 아브하지아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감행함에 따라, 사태는 결국 내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sup>15)</sup>

1992년 8월 14일 발생한 조지아-아브하지아 내전은 몇 차례의 정전과 전투를 반복하면서 1993년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1992년 9월 러시아의 중재아래 양측은 일단 정전에 합의했으나 1993년 봄 양측의 전투는 재개되었고, 러시아와 UN의 중재로 199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12) 1886년 아브하지아 전체인구의 6%였던 조지아인의 인구비율은 대략 1세기만인 1989년 45.7%로 급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공산당의 고위직책, 행정관청 및 경찰조직, 교육 및 문화영역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압하스인들이 조지아인들보다 수적으로든, 아니면 직급에 있어서든 훨씬 더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재남, 『구소련 민족분쟁의 해부』.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pp. 289-290.

13) <http://www.temadnya.ru>(검색일: 2005년 5월 28일).

14) Там же,

15) Чирикба, Указ. соч., с. 76-77.

체결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아브하지아 반군들의 정전협정에 대한 위반 행위들이 발생함에 따라, 내전의 성격이 점차 국제적인 차원으로 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도 자국 남부벨트의 안보적 혼란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양측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설득작업과 중재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결국 1994년 4월 14일 양측 대표들이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sup>16)</sup>

장기화 태세로 돌입할 것 같았던 내전은 조지아 측의 군사적 준비부족과 군사력의 취약성, 서부 조지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감사후르디아 추종자들의 반 정부투쟁, 아디게아(Adygea) 공화국을 필두로 한 러시아 북 코카서스 동맹군의 아브하지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임시적으로나마 봉합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적 중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내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 논란 및 내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양측의 인식상의 차이와 상호간의 불신감은 오히려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1995년 이후 불안정한 상태이긴 하지만, 안정을 유지해 오던 조지아와 아브하지아의 관계는 2001년 초반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조지아 정부가 아브하지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아브하지아 자치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동원령을 선포하면서까지 전쟁재개를 위한 대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물론 실제적인 전투가 발발하지는 않았지만, 양측의 전쟁준비 태세와 사회 전반에 만연된 전시 분위기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요인이라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장미혁명’을 통하여 2004년 1월 조지아 대통령에 당선된 사카쉬빌리 등장 이후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에 처해 있다. 그는 국정의 최우선적인 현안으로 ‘조지아의 완전한 국가통합의 실현’을 공식 천명하였고, ‘탈 조지아’ 및 ‘친 러시아 노선’을 추구해왔던 자치 공화국들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특히 사카쉬빌리 대통령이 아브하지아 해안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조치와 해안진입 선박에 대해 발포명령을 내림에 따라, 양측은 새로운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 IV. 분쟁의 갈등 요인 분석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은 코카서스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가장 큰 유혈참사 중 하나였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체첸 갈등과 더불어, 탈냉전 이후 가장 급격한 정치변동을 치르고 있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대표적인 민족분쟁인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탈냉전 시기 왜 아브하지아는 이처럼 강력하게 조지아로부터 분리 독립 및 러시아로의 귀속을 주장하고 있는가? 또한 아브하지아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무장투쟁과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있는가? 이와는 달리, 조지아는 어떠한 이유에서 아브하지아와의 평화적인 분쟁의 해결방안을 배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쟁 및 경제봉쇄 등과 같은 강경한 대응책만을 강구하고 있는가?

결국 상기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해답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의 갈등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여기에서는 상기 분쟁의 갈등요인을 정치 및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6) Там же, с. 79.

## 1. 정치적 요인

본 절에서는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의 정치적 핵심 요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은 본질적으로 양 민족 간의 정치·사회적 갈등과 극명한 역사인식의 차이에 의해 파생된 상호 불신감 및 적대적인 정치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수차례 외세의 지배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하스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 문화, 전통, 국가제도, 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유지해왔던 독립성이 매우 강한 민족 집단이었다. 따라서 제정 러시아 시기 압하스 민족에 대한 강제이주정책과 아브하지아 지역으로 조지아인들의 광범위한 유입, 소연방 형성기 민족구성과 역사적 현실을 무시한 자의적인 경계설정, 스탈린의 아브하지아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연방공화국에서 자치공화국으로 아브하지아의 정치·행정적 지위격하와 조지아 공화국으로의 일방적 합병, 폭압적인 조지아화 정책 추진, 압하스 민족의 강제이주와 조지아인들의 대대적 유입 등)은 조지아인들에 대한 압하스 민족의 극심한 반감과 불신을 배태 시켰던 치욕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소비에트 및 탈냉전 시기 분출된 압하스 민족의 강력한 반 조지아 성향의 정치의식과 투철한 결사항전의지는 압하스 민족의 역사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정치적 결과물로서 압하스 민족주의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다민족 사회에서 정치 세력화의 핵심 기반인 인구 구성비의 인위적인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압하스 민족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더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제정 러시아 및 소비에트 시기 아브하지아 지역의 인구분포와 그에 따른 종교구성 비율 등을 포함하는 사회구조상의 급격한 변화는 자신들의 고유한 터전에서 압하스 민족들을 소수 민족으로 전락시킨 주요한 동인이었다.<sup>17)</sup> 아래의 도표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듯이, 아브하지아 지역에서 절대적 다수였던 압하스 민족의 인구수는 강제이주정책의 여파로 인해 약 1세기 동안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대량유입을 통해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게 된 조지아인들은 아브하지아 공화국에서 다수 민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표1) 아브하지아 공화국의 인구구성분포 변동 추이<sup>18)</sup>

민족명/ 기준연도	1886년	1897년	1926년	1939년	1959년	1970년	1989년
압하스	58,963	58,697	55,918	56,197	61,193	83,097	93,267
조지아	4,166	25,875	67,494	91,967	158,221	213,322	239,872
러시아	971	5,135	20,456	60,201	86,715	79,730	74,913
아르메니아	1,049	6,552	30,048	49,705	64,400	73,000	75,541
그리스	2,149	5,393	27,085	34,621	9,111	13,600	14,664

이와 더불어, 상호간 역사해석과 아브하지아의 정치적 지위 부여 문제에 대한 견해의 차이 역시 중요한 갈등요인이었다. 소연방 붕괴 이후 조지아가 자연발생적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처럼, 1990년대 초반 아브하지아 자치정부도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하거나, 최소한 정치적 주권과 사회

17) Ю. Анчанбадзе, “Грузия-Абхазия трудный путь к согласию,” Б. Копштерс, ред., *Грузия 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 Весь Мир, 1998), с. 109.

18) Y. N. Voronov, *Abkhazians: Who are they?* (Sukhum: Abkhazian State University, 1999), pp. 19-20.

문화적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방국가의 창설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지아 측은 아브하지아가 역사적으로나, 법통적으로나 조지아에 속하는 하위 구성단위이므로 아브하지아의 분리 및 자치권 요구는 무책임한 주장이자, 조지아의 국가주권에 대한 명백한 찬탈행위로서 간주해버렸다. 게다가, 아브하지아 자치공화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지아인들이 아브하지아 사회의 주요부문(정부관직 및 의회 등)에서 압하스 민족들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지아 정부의 공식입장은 원칙적으로 ‘조지아 국가의 통합성 유지’라는 최우선적 국정목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만일 조지아가 아브하지아 자치 공화국의 분리를 용인하게 된다면, 이는 친 러시아 성향의 아자리아(Ajaria)와 남 오세티아(South Ossetia)를 정치적으로 자극하게 될 것이고, 조지아에서는 사실상 분리주의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여 국가붕괴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아브하지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의 북 코카서스(North Caucasus) 지역에도 압하스 민족의 정치적 및 군사적 후견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민족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대외적 협력세력들은 조지아와 아브하지아 분쟁과정에서 아브하지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지아 세력의 침공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 이유로 아브하지아는 러시아와의 병합을 주창하면서, 조지아의 친 서방정책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반기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국제정치적 동학에서 볼 때,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은 탈냉전시기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발생한 일련의 중대한 지각변동, 즉 새로운 국제환경 변인들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sup>19)</sup> 특히 탈냉전 시기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사실상 ‘소비에트 중력’이 와해되고 ‘힘의 진공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재편과 패권 장악을 목표로 하는 강대국들 사이에 ‘신 거대게임’(New Great Game)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신생독립국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하게 된 조지아의 경우도 새로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조지아 정부는 1990년대 자국의 경제발전을 통한 국정안정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탈러시아’ 및 ‘친 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sup>20)</sup> 이는 경제개혁정책과 체첸전쟁의 실패에 따른 러시아의 국내적 혼돈과 그에 따른 국제정치적 영향력 약화, 카스피해 유전의 경제적 가치와 코카서스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인식전환과 국제관계의 우선순위 변화, NATO의 동진정책을 통한 대 러시아 견제의 필요성, 미국 및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적 자원 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조지아 정부는 국가발전의 필수조건인 국가적 통일성 달성을 위해 ‘아브하지아 문제’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와는 달리, ‘러시아로의 귀속’을 일관되게 주창하고 있는 아브하지아의 입장에서는 조지아의 일방적인 ‘탈러시아’ 및 ‘친 서방노선’은 결단코 용인될 수 없는 문제였다. 아브하지아 자치정부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방안으로 연방국가 건설을 제안하면서, 조지아로부터 정치적 자치권 확보를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삼고 있었기에 그렇다. 그런 이유로 ‘그 어떠한 자치조직도 존재하지

19) 예를 들자면, 소연방의 붕괴와 그에 따른 소비에트 구성공화국들의 분리 독립,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신흥 주권국가들의 개혁과 체제이행과정에 있어서의 혼선과 경제적 어려움, 러시아 국가형성 시기 민족주의의 발흥과 ‘주권 행렬’로 통칭되는 개별 민족 집단들의 정치적 지위 상승 및 자치권 요구, 1990년대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혼란과 국제 정치적 영향력 축소 현상,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들(NATO와 EU)의 적극적인 동진정책 추진에 따른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류 및 협력관계의 확대, 민주화 물결의 광범위한 확산과 시장경제체제의 보편화 등과 같은 새로운 대내외적 상황변수들이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의 발생 및 첨예화에 있어서 일종의 대외적인 환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이다.

20) Г. Т. Моурави, “Грузино-абхазский конфликт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контексте.” Б. Кош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 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 Весь Мир, 1998), с. 130-131.

않는 단일한 조지아 건설'이라는 조지아 정부의 국가통합정책에 대한 아브하지아 측의 불신과 적대감은 당연히 증폭되었다.

더욱이, 상기 갈등의 평화적인 조정과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중재자로서 일익을 담당했던 러시아의 불분명한 정치적 입장과 태도 역시 조지아-아브하지아 문제의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였다. 모스크바 당국은 수차례에 걸쳐 '아브하지아는 조지아로부터 분리 될 수 없으며, 조지아의 영토적 통일성은 보존되어야한다'<sup>21)</sup>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식입장은 상기분쟁에 있어서 원천적인 '러시아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다. 조지아에서 아브하지아 민족갈등이 발생했던 것처럼, 러시아도 체첸이라는 유사한 성격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만일 러시아가 아브하지아의 분리 독립을 지원 혹은 묵인하는 경우, 체첸 문제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러시아는 결코 간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지아 정부가 아브하지아의 분리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러시아가 아브하지아의 정치적 요구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조지아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원하거나 혹은 방관 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다. 조지아의 친 서방정책에 대한 묵인은 21세기 러시아 남부벨트 및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러시아에게 있어서 조지아-아브하지아 갈등은 상당히 치밀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표2) 체첸과 아브하지아 분쟁의 특성 비교

비교항목	러시아의 체첸	조지아의 아브하지아
성격	탈러성향 (러시아에 대한 반감)	친러성향 (조지아에 대한 반감)
요구사항	주권 및 분리 독립 요구	정치 및 경제적 자치권 요구 연방국가 창설 요구
주체세력	체첸민족: 다수파	아브하지아 민족: 소수파
종교적 요인	종교적 일체성: 이슬람	종교적 대립: 이슬람 vs 기독교
주요 행위자	러시아 vs 체첸	조지아 vs 아브하지아 서방세계 vs 러시아
갈등배경	강제적 복속의 문제 (러시아화 정책에 따른 민족강압정책의 피해자)	강제적 복속의 문제 (조지아화 정책에 따른 민족강압정책의 피해자)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의 국가적 통일성 국가 안보적 차원의 중요성 지경학적 중요성: 송유관 보호	CIS 배타적 세력권 형성 필요성 조지아의 탈러 경향 견제 카스피해 송유관 주도권 장악
서방의 입장	체첸인권 문제 제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강조	조지아의 친 서방 노선지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강조

엘친 시기와는 달리, 푸틴 행정부는 아브하지아 문제를 조지아 견제정책의 유용한 정치적 옵션이자, 흑해 지역으로의 지정학적 출구확보 및 자국 내 북 코카서스 민족들에 대한 갈등 관리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다목적 포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2003년 11월 장미혁명의 결과로 권

21) <http://www.temadnya.ru>(검색일: 2005년 5월 28일)

좌에 오른 친 서방주의자 사카쉬빌리 등장이후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조지아에는 '미국과 트빌리시 vs 러시아와 아브하지아'라는 사실상 이중적인 대립구조가 작동하게 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국제관계의 동학이 조지아와 아브하지아 분쟁의 성격을 보다 다층적이고 국제적으로 확대시킨 핵심원인이라고 규정 할 수 있겠다.

## 2. 경제적 요인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의 경제적 요인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브하지아와 러시아는 상호간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하지아는 소연방 붕괴 이후 조지아의 독자노선(탈러시아 및 친 서방전략) 추진을 경제적 측면에서도 결코 용인할 수 없었다. 이는 아브하지아 분쟁과 그에 따른 경제봉쇄조치의 제반 결과들을 통해서도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러시아와 남부 카프카스 지역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운송수단인 철도 노선이 아브하지아 지역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브하지아 분쟁 이후 러시아는 코카서스 지역의 전략적 동반자인 아르메니아 뿐 아니라, 자카프카지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러시아 군사 기지와와 교통로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상당히 큰 안보 전략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sup>22)</sup>

게다가, 아브하지아의 지역경제는 이보다 한층 더 심각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아브하지아 공화국 경제전반에 있어서 핵심적인 소득원 역할을 담당해 왔던 관광산업과 무역업의 근본토대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아브하지아 지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인들이고, 아브하지아 무역활동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경제봉쇄조치는 아브하지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아브하지아의 경제상황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

둘째, 아브하지아 북동부에 위치한 수력발전소가 분쟁으로 인하여 전력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었다. 그 때문에 아브하지아 자치공화국에서 에너지 자원의 수급문제(전력대란의 방지 및 지속적인 전력 공급선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 자체적인 자원 조달이 불가능한 아브하지아 정부는 인접한 에너지 자원 대국인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셋째, 아브하지아 농업 특산물의 판로개척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였다. 소비에트 시기 아브하지아 공화국은 독특한 기후 덕분에 꿀, 차, 담배와 같은 농업 특산물의 재배지로 명성이 높았고, 상기 생산물들은 전량 소비에트 시장에 공급되었다.<sup>23)</sup> 그러나 경제봉쇄 조치로 인해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해 있는 아브하지아의 경우, 자신들의 농업 특산물 수출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된 상태였다. 이는 분쟁으로 이미 피해를 입은 아브하지아 주민들의 실제적인 삶을 더욱 더 비참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아브하지아 공화국의 경제회복과 안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 및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다. 따라서 아브하지아가 조지아 정부의 본격적인 '탈러시아 및 친 서방정책' 추진에 반발하면서, 러시아로의 병합을 원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하겠다.

22) P. Гачечиладзе,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фон решения конфликта в Абхазии," Б. Кош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 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 Весь Мир, 1998), с. 88-89.

23) Там же, с. 89-90.

(그림1) 조지아 지도



지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 시기 경제적 차원의 국익 확보, 즉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리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흑해 및 카스피해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코카서스 지역은 최근 에너지 자원의 보고 및 송유관의 운송 통로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sup>24)</sup> 이는 소수민족의 인종 전시장이자, 대표적인 지역분쟁 및 민족갈등의 진원지였던 자카프카지에 지역을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전략적 요충지로 변모시키고 있는 핵심동인이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 및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지전략적 관심이 코카서스 지역에 집중되고 있었다. 상기 지역에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이 카스피해 지역 에너지 자원의 선점과 서방으로의 안정적인 수송로를 확보하는데 지경학적 과제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도 자국의 남부벨트(자국 영토인 북 코카서스 지역과 접경지역인 자카프카지에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과거와 같은 배타적 영향력을 복원하여 안보 및 지경학적 이익을 사수하는데 핵심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었다.<sup>25)</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지아 역시 중요한 지경학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자카프카지에 지역의 전략적 공간이었다. 조지아는 흑해지역으로의 출구임과 동시에, 러시아에서 코카서스 서부 지역 및 중앙아시아로까지 연결되는 유일한 철도선이 지나는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이며, 카스피해 송유관의 연결통로였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와 서방세계는 코카서스 지역의 안정화를 침해할 수 있는 조지아와 아브하지아 갈등문제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였고, 상기갈등에 직간접적인 개입을 했던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 된 조지아의 '친 서방정책'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독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조지아 정부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자국의 지경학적 가치(카스피해 에너지 자원의 수송로 및 코카서스 지

24) A. Tower, "The Russians, Chechens and the Black Gold: a Geo-economic Explanation for the chechen War," in Gokay B. (ed.), *The Politics of Caspian Oil*, (New York: Palgrave Publisher, 2001), p. 199-200.

25) Станислав, Указ. соч., с. 127.

역의 거점지대)를 활용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서방세계의 전략적 이익(안정적인 에너지 수송로 확보, 러시아 세력권 견제 및 약화)에도 부합할 수 있기에, 조지아는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세계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송유관 통과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는 다른 아브하지아의 '친 러시아 노선' 역시 경제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인 셈이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브하지아는 근본적으로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 및 교류협력 없이는 경제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아브하지아 공화국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주력산업(관광산업, 무역업, 농업 특산물 수출 등)들이 러시아와 지경학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에도, 사카쉬빌리 등장 이후 본격화 되고 있는 조지아의 '친 서방 전략'을 견제하고, 자카프카지에 공간에서 자국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와 지경학적 국익의 수호차원에서 조지아-아브하지아 사태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지아-아브하지아 갈등은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으로 발전할 충분한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제적 성격의 분쟁이었다. 분규의 격화는 코카서스 역내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 및 경제적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특히 이것은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송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관련 국가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파급시킬 수 있는 지경학적 현안이라고 하겠다.

결국 조지아-아브하지아 지역의 정상화 문제는 카스피해 유전개발 프로젝트의 당사자인 러시아와 서방세계, 그리고 관련 국가들의 경제발전 및 국익수호 차원에서도 중차대한 지경학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소연방 해체 이후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은 이전 시기 보다 더욱 격렬한 양상아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것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발생하였던 가장 큰 유혈참사 중 하나였으며, 분쟁의 성격상 러시아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유발시켰던 중대한 사건이었다.<sup>26)</sup>

소비에트 및 탈냉전 시기 압하스 민족의 정치적 자치권 요구와 강력한 반 조지아 성향의 정치의식은 압하스 민족의 역사발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정치적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연방 형성 시기 민족구성과 역사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경계설정, 스탈린 시기 아브하지아에 대한 전 방위적 탄압 등은 조지아인들에 대한 압하스 민족들의 극심한 반감과 불신을 영속화 시킨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이었다. 특히 다민족 사회에서 정치세력화의 핵심기반인 인구구성비의 인위적인 변동은 자신들의 고유한 영토에서 조차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였던 압하스 민족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소연방 해체이후 독립한 조지아의 경우처럼, 아브하지아도 조지아로

26) 물론 상기의 정치경제적 갈등요인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갈등요인(압하스 민족문화 보존문제, 정교도와 이슬람교도간 종교적 갈등문제, 비 압하스 민족들의 문제, 조지아 난민문제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은 본질적으로 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분쟁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한 문제들(아브하지아의 정치적 자치권 승인문제, 조지아 난민들의 귀환문제, 아브하지아에 의해 점령된 지역의 상환문제, 러시아연방 북코카서스 민족들과의 관계설정 문제, 러시아연방과 아브하지아와의 안보 및 국경문제) 역시 해당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주고 있는 요인들이다. Гачечиладзе, Указ. соч., с. 93-105.

부터 완전한 분리 독립 혹은 최소한 연방국가 건설을 통해 정치적 자치권을 확보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아브하지아 자치정부의 제반노력이 ‘단일한 조지아 건설’이라는 조지아 정부의 국가통합정책과 정면 충돌 함에 따라, 양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쉘바르드나제의 강압적인 ‘조지아 통합정책’에 대한 아브하지아 측의 정치적 불신과 반감이 분출된 것이었다.

특히 탈냉전시기 국제환경의 변인들(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위상약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민족주의의 파고, 코카서스 지역의 지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인식변화와 과감한 접근 등)도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의 주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상기분쟁의 국제적 중재자인 러시아의 이중적 입장 역시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핵심 변수였다. 암묵적으로는 아브하지아를 지원해서 조지아를 견제해야 하지만, 체첸 문제로 인하여 공식적으로는 조지아의 영토적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러시아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에 대해 불가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아브하지아의 경우, 소연방 붕괴 이후 조지아의 탈러시아 독립노선은 자신들의 경제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였다. 특히 아브하지아는 분쟁과 경제붕쇄조치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해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 및 교류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었다.

이와는 달리, 조지아는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원조와 송유관 통과수입을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추진해 나갔다. 결국 조지아와 아브하지아의 경제발전방향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차이, 즉 아브하지아의 ‘탈 조지아’ 및 ‘친 러시아정책’과 조지아의 ‘탈 러시아’ 및 ‘친 서방정책’은 상호간 공통분모를 도출해 내기 어려운 모순에 직면해 있었다.

조지아-아브하지아 문제는 주요한 국제적 현안으로 인식되었다.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과 송유관의 안정적인 확보가 러시아 및 서방세계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조지아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은 향후 코카서스 지역의 안보적 불안정성 증대, 정치-사회적 혼란, 경제발전의 저해 등을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연유로 현재 조지아-아브하지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반논의들이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것이다.

상기분쟁의 평화적 해법은 우선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에 진지한 협상과 양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해당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국제적 중재자의 공정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관련 국가들의 여론 주도 층 인사들 및 국제적 중재자들 사이에서 ‘연방국가’ 혹은 ‘국가연합’ 건설을 통한 분쟁 해결방안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조지아와 아브하지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전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의 충족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아자리아 자치공화국의 사례와는 달리, 조지아가 아브하지아의 정치적 자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체첸과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카라바흐와는 달리, 아브하지아가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로소 양측이 갈등조정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재남. 『구소련 민족분쟁의 해부』.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 젤러, 어네스트. 『민족주의』. 차기벽 역. 서울: 문명사, 1979.
-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김명섭 역. 서울: 삼인, 2000.
- 성경용. 『국민국가 개혁론』.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6.
- 앤더슨, 베네딕트.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윤희숙 역. 서울: 나남, 1991.
- 한국이슬람학회. 『끝나지 않은 전쟁』. 서울: 청아출판사, 2002.
- 홉스봄, E.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강명세 역.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 『연합통신』. 2004년 8월 13일.
- Arutiunov, Sergei A. "Ethnicity and Conflict in the Caucasus. in Ethnic Conflict and Russian intervention in the Caucasus", *Policy Paper*, No. 16, Irvine: University of California, 1995.
- Beningsen, Broxup Marie, ed. *The North Caucasus Barrier: the Russian Advance Towards the Muslim World*, London: 1992.
- Coppieters, B. *Conclusions: The Caucasus as a Security Complex*. Brussels: VUBP Press, 1996.
- Tower, A. "The Russians, Chechens and the Black Gold: a Geo-economic Explanation for the chechen War." in Gokay B. (ed.), *The Politics of Caspian Oil*, New York: Palgrave Publisher, 2001.
- Voronov, Y. N. *Abkhazians: Who are they?* Sukhum: Abkhazian State University, 1999.
- Абдулатипов, Р. Г. *Россия: национальное возрождение и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осква: РАГС, 1994.
- Алаев, Э. "Региональные этнические конфликты," *Федерализм*, (№ 3. 1996).
- Анчанбадзе, Ю. "Грузия- Абхазия трудный путь к согласию." Б. Коп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ВЕСЬ МИР, 1998.
- Гаджиев, К. С. *Геополитика Кавказа*. Москва: МО, 2003.
- Гачечиладзе, Р.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фон решения конфликта в Абхазии." Б. Коп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ВЕСЬ МИР, 1998.
- Лежава, Г. П. *Абхазия: анатом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Москва: ЦИМО, 1998.
- Моурави, Г. Т. "Грузино-абхазский конфликт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контексте." Б. Коп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ВЕСЬ МИР, 1998.
- Пряхин, В. Ф. *Региональные конфликты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Москва: ГНОМ и Д, 2002.
- Станислав, Л. *Абхазия после двух империй XX-XXI*. Москва: материк, 2004.
- Тоценко, Ж. Т. *Постсовет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суверенизация и интеграция*. Москва.: РГГУ, 1997.
- Чирикба, В. "Грузино-абхазский конфликт: в поисках путей выхода." Б. Коппитерс, ред., *Грузияи Абхазия: путь к примирению*. Москва: ВЕСЬ МИР, 1998.
- <http://www.temadnya.ru>(검색일: 2005년 5월 28일).

## 제 2세션(16:00 - 17:40) : 유라시아 공간의 민족 갈등과 테러리즘

- 사회자: 정세진(한양대학교)
- 발표자:
  1. 강봉구(한양대학교) : 키르기스령 페르가나 지역 키르기스-우즈베크 민족간 유혈 충돌
  2. 우평균(한양대학교) :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갈등 양상과 국제 개입
  3. 현승수(한양대학교) : 러시아연방 북카프카스 지역의 테러와 분쟁 확대
- 토론자: 김선래(한국외국어대학교), 김상철(한국외국어대학교)



## 키르기스령 페르가나 지역 키르기스-우즈벡 민족간 유혈 충돌\*

강봉구(한양대)

- I. 서론
- II. 종족 갈등의 지리적·역사적 배경
- III. 유혈 충돌의 원인
  - 1. '종족간 갈등'인가?
  - 2. 2010년 6월 종족 충돌의 원인
  - 3. 대규모 사상 원인
- IV. 재발 방지 방안의 모색
  - 1. 사법적 정의 구현
  - 2. 난민의 재정착 및 공동체 재건 방향에 대한 합의
  - 3. 키르기스어 교육의 확대
  - 4. 이종족간 혼인 장려와 합작 사업 권장
  - 5. 종족적 정체성을 대신하여 공민적 정체성 형성
- V. 결론

### I. 서론

2010년 6월 10일 키르기스스탄 남부 페르가나 계곡 지역 오쉬(Osh)와 잘랄-아바드(Jalal-Abad) 주에서 키르기스인과 우즈벡인 사이에 대규모 종족 충돌(ethnic clashes)이 발생하여 엄청난 사상자를 낳았다. 47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500명 이상이 부상하였는데 이중 1,615명이 총상을 입었다. 그리고 사고 현장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피난처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 약 4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하였다.

남부의 종족 충돌 사건 이후, 헌법개정 국민투표(2010년 6월 27일), 의회 선거(2010년 10월 10일), 연립정부 수립(2010년 12월) 등 로자 오투바예바(R. Otunbayeva) 과도정부의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 Atambaev)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2011년 10월 30일). 충돌의 진원지였던 오쉬와 잘랄-아바드 지방에서는 소수 종족인 우즈벡인들의 보호를 비롯한 남부 지역의 치안 확보 문제, 파괴된 건물과 주택의 복구 문제, 난민들의 정착과 공동체의 복원 방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제들이 사건 후의 처리에서 중요한 요인들임에 틀림없지만, 상호 불신과 적대감으로 팽배한 무너진 공동체의 재구성과 통합, 그리고 종족 충돌의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다방면의 노력과 성과가 모두 모래 위의 성이 되기가 십상일 것이다. 현지인들이 말하는 대로 '누구라도 먼저 후우 하고 불기만 하면' 분쟁의 불씨는 언제라도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공동체 속에서 혹은 이웃으로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혹한 적대자로 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 그것도

1990년 6월<sup>1)</sup>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인 2010년 6월 동일한 지역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발생하였다. 2010년 6월의 유혈 참사는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하였으며,<sup>2)</sup>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시민사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2010년 여름 오쉬 지방의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간의 종족 충돌을 초래한 직접적 요인을 분석하고 둘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상, 무너진 공동체의 재구성 등 유혈 충돌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을 논구하는 데 있다. 이 글은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간에 지속되어 온 장기간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요인들을<sup>3)</sup>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저강도로 잠복하고 있던 갈등을 유혈 충돌로 고조시킨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이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사소한 계기를 만나 폭력 투쟁으로 비화되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2010년의 참사가 왜 일어났으며, 어떤 계기로 그렇게 순식간에 폭력화 되었고, 또 대규모 사상자를 낳게 되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오쉬와 잘랄-아바드 지방은 키르기스 페르가나의 중심 지역이다. 중앙아시아의 곡물과 자원 창고인 페르가나 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우즈베크스탄, 타지키스탄 등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종족적 혼합성으로 인해 오쉬의 종족간 유혈 충돌 사건에 대한 분석은 키르기스스탄의 사회 통합과 국가성 안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자궁이라 할 수 있는 페르가나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의 문제이다. 문제의 발생 지역과 사안의 중요성은 큰 데 비해 한국의 지역학계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그 연구 공백을 메우고, 앞으로 페르가나 지역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심층 연구를 자극하는 데 의의가 있다.

## II. 종족 갈등의 지리적·역사적 배경

오쉬와 잘랄-아바드가 위치한 ‘페르가나 계곡(Ferghana valley)’은 중앙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약 22,000km<sup>2</sup> 달하는 분지로서 그 크기에 있어 인도의 카슈미르 지방이나 나일 델타 지역과 맞먹을 정도이다. 주변의 전형적인 메마른 산맥과 황무지들과는 대조적으로 강물을 끌어오는 관개수로를 통해 사시사철 물을 공급받는 풍요한 들판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분지는 예로부터 중앙아시아의 곡창지대이자 다양한 과일과 야채의 주산지 역할을 해왔다. 페르가나 계곡의 넓이는 중앙아시아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인구밀도는 가장 높다. 우즈베크 인구의 약 3/1, 타지키 인구의 약 3/1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인구의 약 절반 등 동 지역 5개국 인구 총합의 약 20%에 해당하는 1천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키르기스령 페르가나 지역은 키르기스스탄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인구의 51%가 거주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서 페르가나

\*이 글은 다음 논문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종족간 충돌에 관한 연구: 2010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3호 (2011년)]을 새롭게 전개된 상황이 반영된 자료들로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 1) 1990년 6월 4일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간의 종족간 유혈 충돌의 결과 20명 이상의 신원미상자를 포함하여 약 300명 이상의 사람이 살해당했으며, 30명 이상이 행방불명되었다. 충돌은 오쉬, 우즈겐, 잘랄-아바드, 카라-수우 등 남부 페르가나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였다.
- 2) 갈등이 증폭되어 폭발하도록 만든 동인으로,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이라는 종족적·문화적 이질성, 중앙과 지방 권력의 통제 약화, 정치권력 배분의 불균형과 이에 대한 불만, 경제사회적 이권 다툼,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이로 인한 생존 압력, 권력 약화기 혼란을 부추겨 이익을 챙기려는 범죄 집단의 의도된 개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언급되고, 동시에 이러한 요인들이 착종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태의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 3) 유혈 충돌 발생의 구조적 요인 혹은 간접적 배경 요인에 대해서는, 안보/정치/경제/사회적 요인들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다음 글 참조, Bisim 2002: 9-18.

지역이 갖는 위상처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페르가나 지역은 경제·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악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의 경작면적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주요 산물인 면화와 석탄의 주산지이다. 오쉬주와 잘랄-아바드주는 키르기스스탄 전체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 공업 생산의 약 40%를 차지한다(Lubin 1999: 33-34). 오쉬와 잘랄-아바드 역시 농업과 상업이 중심인 페르가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북부에 비해 우즈벡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곳이며, 특히 우즈벡인들은 도시에 많이 몰려 있는 편이다.<sup>4)</sup>

페르가나 지역은 고대로부터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과 중동, 유럽의 지중해 지역을 연결해 주는 실크로드의 한 지선이 거쳐가는 곳이었다. 처음에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했던 티무르 제국에 속했던 적도 있었지만, 페르가나 지역이 독자적인 정치적 단위체로 장기간 존속된 것은 코칸드 칸국(Kokand khanate)에서였다. 코칸드 칸국은 페르가나 계곡을 영토로 하여 16세기 말부터 제정러시아가 침탈해 들어왔던 19세기 중반까지 약 250년 동안 통합된 정치적 실체로 지속하였다. 그 결과 페르가나 계곡 지역은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의 다른 지역들과 구분되는 단일한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 단위로 기능해 왔다(Lubin 1999: 39). 다수 우즈벡인들과 키르기스인, 타지인 등으로 구성된 주민들은 오랫동안 종족적 정체성과는 거의 아무런 연관없이 상호 교류하고 혼인하며 친족과 이웃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1924년 소련 중앙이 변경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고 낙후된 지역을 근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민족·국가 경계를 획정하면서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당시 스탈린은 중앙아시아의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이 지역이 투르크스탄 단일 정체성으로 통합되는 것을 방지하면서(Haugen 2003: 22) 다종족 주민들을 분리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 코칸드칸국에 속했던 하나의 지역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세 나라 국경이 서로 엇물리도록 획정하였다.

구획 당시 우즈벡인들은 페르가나 지역의 모든 도시들은 우즈벡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기에 우즈벡 영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키르기스인들은 몇몇 도시들은 비도시 거주 키르기스인들을 위한 상업중심지 역할과 장차 키르기스 정치단위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키르기스인들은 주요 도시들 가운데 페르가나 지역의 경제 중심지인 안디잔이 키르기스 영토에 포함되기를 원했다. 경계 획정의 결과, 안디잔과 코칸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페르가나 주요 도시들은 우즈벡 영토가 되었지만, 오쉬와 잘랄-아바드는 키르기스 영토로 정해졌다(Haugen 2003: 188-92). 오쉬와 잘랄-아바드에 거주하던 우즈벡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도시의 다수 종족이었지만, 경계획정의 결과 키르기스 영내의 소수 종족의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러한 우즈벡인들의 사회적 위상 변화와 박탈감은 먼 훗날 갈등의 원천으로 자리하게 된다.

다종족의 주민들이 모자이크처럼 섞이고 얽혀서 거주하는 페르가나 지역을 인위적 국경으로 분리한 결과, 경제·사회·정치적으로 통합된 단위로 살아가던 주민들의 삶의 양상이 복잡해졌지만, 소련이라는 한 국가체제 속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개별 민족공화국들이 독립하고 소련이 해체되자 형식적인 경계선이 실제 국경선이 되어 주민들의 이동과 경제 사회적 교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크게는 소련이라는 국가적 경제공간, 적게는 페르가나 계곡이라는 지역 경제공간의 통합성이 무너짐으로서 경제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국가형성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이 민족 정체성에 의존하는 추세가 강화됨으로써 이 지역은 갈등과 분쟁의 휘발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변해버렸다(Lubin 1999: 33-39).

4) 우즈벡인의 비율은 오쉬주(28.0%), 오쉬시(40.9%), 잘랄-아바드주(24.5%) 등이다(Lubin 1999: 37, Table 3.2).

소련 말기이던 1990년 6월 4일 오쉬 지방에서 우즈베크인과 키르기스인들 사이에 유혈 종족 충돌이 발생하여 일주일 사이에 우즈베크인 120명, 키르기스인 50명, 러시아인 1명이 사망하였다. 1999년에는 ‘우즈베크이슬람운동(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소속 게릴라들이 키르기스스탄의 한 마을을 장악하였다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지원을 받은 키르기스스탄 군의 반격으로 격퇴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에서 일어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들에게 발포하여 수백 명에서 천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페르가나 지역의 이 같은 불안정한 모습은 과거 다종족이 혼합되어 살았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모습과는 판이한 것이다. 타지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투르크계 종족들로 구성된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민들은 언어는 다르지만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일체감을 공유하면서 오랫동안 공존해 왔다. 제정러시아가 180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이 지역을 복속해 나가기 시작한 이래 1920년대 중반에 스탈린이 이 지역을 오늘날의 영토·행정 구역으로 재편하여 개별 민족공화국으로 분리했을 때까지만 해도 중앙아시아 주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카자흐인, 우즈베크인, 키르기스인, 타지인 등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 이후 소련 시기에는 연방 구성 민족국가의 경계라는 것이 일국 속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기에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오늘날 카자흐, 우즈베크, 키르기스, 타지 등으로 불리우며 서로를 경계지우는 여러 종족들은 오랫동안 종족간 갈등이나 소수 종족에 대한 차별 없이 함께 생활해 왔다. 도시들에서 뿐만 아니라 시골의 촌락 등에서도 이웃으로서 공생해 왔던 것이다. 자주 특정 공동체 성원들은 타 공동체의 다른 종족 구성원과 성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러한 이종족간 결혼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는 원인이 되지도 않았다. 동일 지역에서 여러 종족 공동체들의 공존, 타 종족 공동체와의 교류와 혼인 등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종족들이 서로 이웃으로서 살아가는 통상의 모습, 사회적 실존의 자연스런 형태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주로 상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정착민으로 살아왔던 우즈베크인들과 유목이 주업이었던 키르기스인들 사이에는 전통적으로 생활양식과 관습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였으며, 이같은 특정 사회경제구성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은 언어 외에 이들이 서로를 구분하는 정체성의 한 부분 역할을 해왔다(Haugen 2003: 193). 또 우즈베크인들이나 키르기스인들이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 부족·씨족 중심의 생활 관습은 이들의 공동체를 개방적인 시민사회의 구성 부분으로 만들기보다는 개별적이며 폐쇄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이처럼 페르가나 계곡의 주 거주민들인 우즈베크인, 키르기스인 및 타지인 역시 살아 온 지리적·역사적·문화적 배경에는 갈등의 소지가 될 부분도 있었지만, 이들이 모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통합된 소련이라는 한 나라에 살고 있을 때는 상호 차이점에 대한 관용과 수용이 지배적이었으며 그것은 다종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 시기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형성 과정에서 개별적인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정체성의 정치’(Roy 2000; Suny 1999-2000)가 부각되고 이것이 주택 건설과 경작을 위한 토지 분쟁, 시르다리야강을 둘러싼 수자원 분쟁, 그리고 여타 경제적 어려움과 결합됨으로써 사소한 차이와 구별은 심각한 갈등과 분규를 낳을 씨앗으로 발아하게 된다.

### III. 유혈 충돌의 원인

#### 1. '종족간 갈등'인가?

2010년 6월, 서로 이웃하여 살면서, 정을 주고 받던 키르기스인들과 우즈벡인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서로에 대해 광폭한 적대자로 변신하여 조금 전까지의 이웃 사람에 대해 폭행, 강간, 살인을 자행하는 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과 이웃이 적대자가 된 기준은 무엇이며, 끔찍한 공격을 자행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만 상대방이 자기와는 다른 종족에 속한다는 사실이었다.

'종족의 차이'라는 기준은 조금 전까지의 평상적인 이웃관계를 공존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을만큼 사회적 차별화의 강한 기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가. '종족적' 혹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타자에 대해 공격성을 유발하는 본질적인 속성은 아닐 것이다. 크게는 그 정체성을 기준선으로 하여 상호 경쟁과 갈등, 그리고 적대감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정치적 구조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종족간 충돌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타종족에 대해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부추기는 도발적 폭력이 종족간 유혈 폭력 사태로 점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족 분류를 부추기는 잠재적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경제적·사회적 갈등 구조를 들 수 있다. 부족한 물, 토지, 에너지 등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경쟁과 도농갈등, 실업, 주택 부족 등 사회 문제들이 갈등 구조의 구성부분들이다. 다음으로 정치권력과 요직의 배분에 있어서의 불균등 즉,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 그리고 종족 분류를 부추켜 그 혼란 상황을 이용하여 권력 배분을 변경하기 위한 투쟁 등이 정치적 갈등 구조를 이룬다.

먼저,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6월 참사를 '종족 갈등(ethnic conflict)' 혹은 '종족 충돌'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원인 분석으로 넘어가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종족 갈등'이라는 표현이 이 경우에는 맞지 않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민족정책 전문가 멜빈(Neil Melvin)은<sup>5)</sup> '종족 갈등'은 폭력 사용의 원천이 키르기스인들과 우즈벡 공동체 간의 갈등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 견해는 6월 참사의 경우, 갈등의 원천이 키르기스스탄 사회의 키르기스인과 우즈벡인 사이의 종족 갈등이 아니라,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 세력들 사이의 치열한 권력 투쟁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그 투쟁은 종족간 갈등이 아니라 바키에프와 그의 추종 세력들을 권좌에서 축출하고 권력을 배분하는데 초점을 둔 키르기스인들 사이의 정치투쟁 즉, 키르기스 종족 내부의 투쟁이라는 관점이다(Mukhametrakhimova 2011: 2).

바키에프의 퇴진 후 권력 공백 상태에서 시작된 권력투쟁의 성격을 띤 폭력적 대결은 곧 종족적 성격을 가진 투쟁으로 비화되었다. 그런데 그 시점은, 바키에프 전대통령 시절의 야당 세력들이 잘랄-아바드 등 남부를 거점으로 하고 있던 바키에프 추종·잔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남부 지역의 우즈벡 공동체에 공동전선을 형성하자고 도움을 요청한 이후부터라는 것이다. 즉, 키르기스인 정치세력들 간의 종족 내부적 권력투쟁에 우즈벡인들이 개입하는 순간, 이 투쟁은 종족적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종족간 유혈 충돌의 외양을 갖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남부에는

5) 멜빈은 OSCE 고등판무관의 중앙아시아 지역 소수민족 문제에 관한 수석자문을 역임하였고, 현재 '스톡홀름국 제평화연구원(SIPRI)'의 '무장갈등 및 갈등관리 프로그램'의 소장을 맡고 있다. 소로스(Soros)가 재정지원한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의 연구비로 유혈 충돌 이후 키르기스스탄 안정화 방안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오래전부터 종족간 갈등과 긴장의 원천이 존재하였지만, 그것이 6월 참사와 같은 대량 살상을 초래할 폭력의 원인은 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Mukhametrakhimova 2011: 2).

이 견해는 2010년 4월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축출 이후 키르기스스탄 남부에서 벌어진 키르기스인 정치세력들 간의 다툼에서 드러나듯이 당시의 권력 투쟁의 전선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한 대립이 공개적으로 발화한 것이 Jalal-Abad에서의 5월 무장 충돌 사건이다. 이 대립에 집단으로서 우즈벡 공동체가 개입함으로써 투쟁의 전선에 선 당사자가 바뀌고 충돌은 확대되었으며, 남부 지역의 키르기스인들에게 반우즈벡 정서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여기까지의 논리 전개에 대한 동의가 위의 용어 문제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월 참사의 전조가 된 남부 지역의 정치세력간 투쟁의 주전선이 처음에는 키르기스인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즈베크인들이 5월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부터 대립은 종족간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치달았다. 키르기스인들간의 권력투쟁으로 시발된 사태가 일시적으로 미봉되었다가 한달도 지나기 전인 6월에 훨씬 더 큰 규모로 터지고야 말았던 것은 그것이 우즈벡 공동체의 개입과 함께 종족간 대립의 성격을 띤 이후, 높은 인화성과 고도의 증폭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갈등과 충돌의 종족적 대립 성격, 혹은 종족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6월 참사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고 적절히 명명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6월 참사의 배경과 직접적인 시발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들 사이의 유혈 충돌 사건은 그 대립의 전선이 두 종족이었기 때문에 ‘종족 갈등’ 혹은 ‘종족 충돌’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는 데 적합하다. 멜빈의 해석대로 만약, 키르기스인들간의 권력 투쟁에 우즈베크인들이 공공연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키르기스인 정치세력들간의 종족 내부 투쟁이 이렇게 큰 참사로 귀결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2010년 6월 종족 충돌의 원인

2010년 유혈 충돌을 초래한 핵심 요인은, 키르기스스탄 남부 우즈베크인 공동체들의 정치적 대표성 증진에 대한 욕구<sup>6)</sup> 그리고 남부의 바키예프 잔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억압 받아 왔던 우즈벡 공동체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과도정부와 남부 키르기스인 정치세력의 의도가 합치된 것이다. 바키예프 정권의 전복 이후 벌어진 권력 공백 상태에서 벌어진 키르기스인 정치 세력들간의 권력 투쟁과 이 투쟁에 우즈벡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동원한 일이 가장 직접적인 충돌 원인이었으며, 종족간 충돌을 방관하고 그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려는 정상 배들의 역할이 부수적으로 작용하였다.

바키예프 대통령이 도피하면서, 키르기스스탄의 권력 위계는 하루 밤 사이에 붕괴되고 말았다. 특히 바키예프 전 대통령 지지 기반이었던 남부에서 오톨바예바의 과도정부는 인기도 없었을뿐더러 정부 권위를 세우기도 힘들었으며, 주민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정부를 구성한 것도 아닌만큼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는 더욱 난망이었다(Green 2010: 1). 권력 진공 상태에서 남부의 키르기스인 정치 파벌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치인들은 그들이 지지하는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을 임명하였지만, 이전 시장과 도지사들은 여전히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지지자들도 건재하였다. 그 결과 지방 수준에서 친구 권력 간의 무장 대치

6) 키르기스스탄의 남부 지역에서 우즈베크인들은 인구의 36.5%를 점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나 법집행기관에 거의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인들이 독점적으로 오랫동안 지방정부를 지배해 오고 있다(EurasiaNet.org, March 6, 2013).

와 갈등 상황이 전형적으로 드러난 것이 5월 중순 잘랄-아바드에서 키르기스인과 우즈벡인 무장 집단들이 충돌한 사태였다(Rickleton 2011: 2).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즈벡인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노린 우즈벡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사태를 종족간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몰아가는 데 일조하였다. 바키예프 정권 전복 이후의 사태 전개에서 우즈벡 공동체의 일부 지도자들이 앞장섬으로써 양 종족간 충돌의 시발에 상당한 빌미를 주었다. 우즈벡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키르기스인들 사이의 권력투쟁에 언제나 중립을 유지해 왔는데(Sharipov 2007: 3), 이번에 우즈벡인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잘랄-아바드시 행정권력이 바키예프 추종자들에 의해 장악되자, 과도정부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우즈벡인 공동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남부의 과도정부 지지자들과 바티로프(Kadyrjan Batyrov)가 주도하는 정치운동 조직 '조국(Rodina)'은 5월 14일 주정부 청사를 장악하고 있던 바키예프 지지자들을 무력으로 청사 바깥으로 몰아냈다. 그리고 주로 우즈벡 인들로 구성된 일단의 사람들이 잘랄-아바드의 테이이트(Teyit) 마을에 있는 바키예프 일가의 집으로 행진하여 방화하였다(Melvin 2011: 17).

남부 우즈벡 공동체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행보는 바키예프 집권기에 축적되었던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북부의 '사리바기쉬(the Sarybagysh)' 씨족에 속한 아카예프 전 대통령은 남부의 키르기스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남부 우즈벡인들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삼았으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이에 반해 남부 잘랄-아바드 지역이 고향인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우즈벡인들을 우대하거나 배려할 필요가 없었다. 남부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그로서는 우즈벡인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리어 자신의 지지 기반인 남부의 키르기스인들과 우즈벡인들이 경제적 이권과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즈벡인들을 배려할 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남부의 우즈벡인들은 아카예프 시절과 비교하여 바키예프 집권기에 훨씬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Kumkova 2011).

바키예프 전 정권에 대한 남부 우즈벡인들의 불만과 원망이 표출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4월 사건으로 바키예프가 쫓겨나고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우즈벡인 지도자들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의 우즈벡인 대표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바티로프는 "우즈벡인들이 집에 앉아 국가건설 과정에 방관자로 있던 시기는 지나갔다. 우리 우즈벡인들은 적극적으로 과도정부를 지지했으며, 반드시 모든 공민적 활동에 참여해야만 한다. 만약 우즈벡인들이 없다면, 키르기스 민족과 과도정부는 잘랄-아바드의 바키예프 세력이 펼칠 반 과도정부 활동에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쉬TV'와 '메존TV(MezonTV)'를 통해 우즈벡어로 방영된 상기한 바티로프의 인터뷰 내용은 5월 19일 잘랄-아바드 소재 '인민우호대학'에 대한 키르기스인들의 파괴행위와 연이은 종족간 충돌의 촉매제가 되었다(Arynov 2010).

더 나아가 바키예프 일가의 집들에 대한 우즈벡인들의 방화는 불에 기름을 부은 듯 양 종족간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바키예프 지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부 지방의 많은 키르기스인들은 우즈벡인들이 저지른 바키예프 일가 소유 집들에 대한 방화 행위를 키르기스 민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바키예프의 고향인 잘랄-아바드뿐만 아니라 오쉬 지역에도 바키예프의 친척들과 지지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쉽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즈벡 공동체의 정치적 동원과 폭력 사태 개입은 남부 키르기스인들에게 우즈벡 종족의 집단적 의지의 분출로 여겨졌다. 더구나 바티로프가 자신의 TV 인터뷰에서 남부 지역의 자치를 요구했다는 미확인 소문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많은 남부 키르기스인들은 우즈벡인들이 1990년 6월의 종족간 유혈 충돌에 대한 피의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어떤 사소한 계기로도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던 것이다(Melvin 2011: 17-18).

그리고 키르기스 정부내 인사들을 비롯하여 여러 분석가들은 6월 참사의 정치적 추동 요인들 가운데 바키에프 일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종족간 갈등은 무엇보다도 바키에프 일가의 이해관계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축출된 바키에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종족간 갈등 혹은 내전 발발을 통해 권력을 되찾을 목적으로 혼란을 조장하고, 또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복수를 하려고 했을 개연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키르기스 과도정부는 6월 참사 발생 이전부터 축출된 바키에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종족간 긴장과 충돌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UPI May 18, 2010). 자니쉬 바키에프와 막심 바키에프의 인터뷰가 이러한 가정에 대한 하나의 간접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데, 인터뷰에서 막심 바키에프는 지속적으로 키르기스 정정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잘 갖춘 5백명의 무장 집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Arynov 2010). 그리고 바키에프 전 대통령의 동생인 아흐마트 바키에프가 잘랄-아바드 외곽에서 벌어진 특수작전에서 체포된 후, 경찰은 그가 종족간 유혈 충돌 과정에 개입하였음을 자백하였다고 발표하였다(Atlantic Council July 22, 2010).

이처럼 키르기스 정부와 주요 인사들은 바키에프 일가의 공모·개입 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언급들은 모두 간접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신뢰할 만한 직접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KIC 보고서는 바키에프 일가가 6월 사건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는 어떠한 결론적 증거도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개입하였다는 주장도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EurasiaNet.org. May 3, 2011).

사건의 성격상, 어떤 정치 세력이나 범죄 조직 혹은 외부세력의 계획과 개입을 명백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6월 참사는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이 잘 계획하고 치밀하게 조직하였으며 어느 정도 통제 가능했던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키르기스 정치 분석가의 견해에 따르면, 제3의 독자적인 도발자 집단이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들을 갈등 상태로 몰아넣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들 모두에게 충격을 가했다고 본다. 그리고 UN인권 고등판무관 필레이(Navi Pillay)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한다. UN인권 고등판무관실은 오쉬와 잘랄-아바드의 UN 관리들을 포함한 증인들로부터 6월 참사가 자연적인 종족간 충돌이 아니라 의도적이며 잘 조직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다고 말했다(Arynov 2010).

오쉬 지방의 두 차례 유혈 종족 충돌 사건이 모두 키르기스스탄 중앙의 권력구조 변동 시기 혹은 권력 상황이 유동적이며 불안정한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앙권력의 통제력이 약화된 이러한 시기에 분출된 종족 분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주 행정당국이 무능했다는 마비된 거버넌스의 문제 역시 핵심적이다.

바키에프 정권의 전복 후 추종 세력의 반격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한 로자 오톤바예바 대통령을 포함한 과도정부 지도부의 책임도 크다. 그들은 종족간 관계의 악화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집권 후 과도정부는 국가 안보와 치안·질서의 유지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몰두하였으며, 바키에프 정권의 권력과 자산을 재분배 하는 데 관심과 자원을 집중하였다. 그들은 쫓겨난 바키에프 세력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과도정부가 바키에프 측근들을 제 때에 체포하고 주요 추종세력들을 억제·통제할 수 있었다면, 충돌을 예방할 가능성이 더 컸을 것이다. 과도정부의 이 같은 부적절한 사후 조치는 과도정부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KIC보고서는 특히 과도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이사코프(Ismail Isakov) 장군과 남부 키르기

스스탄에 대한 그의 특별대표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가 보안군에게 확실한 명령과 교전 수칙을 주어서 배치하지 않은 것이 심각한 오류이며, 이사코프 장군은 폭력 사태를 더 일찍 중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키르기스인들로 구성된 군은 남부 키르기스스탄에서 우즈벡 소수 종족에 대해 명백한 편견을 갖고 있었으며, 자주 이들을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군인들은 총기와 장갑차를 너무 쉽게 키르기스 군중들에게 양도해 버렸으며, 어떤 경우에는 살해 행위에 가담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EurasiaNet.org May 3, 2011).

게다가 과도정부는 오쉬시의 충돌에 대해 여러 사실들을 은폐함으로써 갈등을 부채질하였다. 그들은 폭력 사태가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 유혈 충돌에 대해 어떠한 보도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더 큰 폭력 사태를 예방하느라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통제 조치는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키르기스 남부의 멀고 궁벽한 지역의 키르기스인들은 과장된 소문에 근거한 정보를 믿고서 우즈벡인들과 싸우기 위해 공격심에 충만하여 오쉬와 잘랄-아바드 등 도시 지역으로 향했던 것이다(Arynov 2010).

상기한 바대로 양 종족간 충돌의 원인을 설명한다고 해서 '정치적 요인들'에 편향된 시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직접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부각하기 위한 이러한 설명 방식 역시 남부지방에서의 키르기스인과 우즈벡인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고 지속시키는 대표적인 요인들 중의 하나가 주택과 경작을 위한 토지 부족 문제이다.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문제는 1990년 6월 오쉬와<sup>8)</sup> 우즈겐에서의 종족 충돌 사건의 주된 발화 원인이었다(Asankanov: 4-5). 이번 6월 참사의 발화 원인은 키르기스인들의 정치 권력투쟁에 우즈벡 공동체가 개입한 것이기에 표면적인 이유는 달라 보인다. 그러나 사소한 계기로 양 종족간의 갈등과 마찰을 언제라도 고조할 수 있는 대립의 구조적 요인들은 20년 전처럼 그대로 남아 증오심과 적개감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역에서 키르기스인과 우즈벡인 사이의 해묵은 종족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 분쟁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지만, 당국은 오랫동안 그 근본 원인을 방관하거나 무시해 왔다. 이 문제는 산악 고지대에 살던 목축민들이 서서히 페르가나계곡의 마을들과 도시로 이주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토지와 생활 여건, 기후 등에서 페르가나계곡 지역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주를 강제로 막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2010년 6월 참사 이후에도 토지 문제는 다시 종족 분규와 갈등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잠재적인 발화 지점의 하나는 오쉬 인근의 약 70헥타에 달하는 농장부지이다. 우즈벡 농민들은 그들이 1991년 소련 붕괴 이래로 그 땅을 임차해서 농업을 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년 11월 약 1천명의 키르기스인들이 그 부지를 강제 점령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국은 이 문제를 2011년 봄에 다루겠다는 약속을 하여 가까스로 키르기스인 무단점거자들을 농장에서 몰아냈다. 이 사건은 종족간 유혈충돌 사건의 직접적인 부수물이라 할 수 있다. 사건 후에 키르기스어 간행물들은 암묵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땅은 키르기스인들에게 속하며, 우즈벡인들은 단지 임차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고무하였다. 심지어 우즈벡인들의 키르기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묘사하기조차 하였다. 처지가 어려운 키르기스인들이 이런 선동에 자극받아 국가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7) 이사코프 장군은 현재 집권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8) 1989년도의 소련방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오쉬 지역의 인구 구성은 키르기스인 54.6%, 우즈벡인 27.1%, 러시아인 약 10%, 타지인 1.5%, 우크라이나인 1.3% 등으로 나타났다. *Results of All-Union Census on the Population, 1989.*

차지하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당시 우즈벡 농민들은 다시 6월의 폭력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심에 우즈벡 국경으로 도망하였다고 한다(*EurasiaNet.org* April 13, 2011). 이 같은 사태는 20년 전과 유사한 형태의 토지 문제가 여전히 평야로 이주해 온 키르기스인과 이 지역에 오랫동안 정주해 온 우즈베크인 농민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의 거버넌스는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토지 문제에서 잘 드러나듯이, 1990년 6월 종족 갈등의 원천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소련 정부에 의해 그저 동결되었던 것이다. 종족간 갈등과 마찰이 분출된 폭력 현상만이 미봉되었을 뿐, 갈등의 원천은 여전히 내연(內燃)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독립 후 아카예프 정부와 바키에프 정부 동안에도 종족간 갈등과 대립 요인을 완화하고 국민적 통합을 강화하려는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두 정부는 종족간 갈등의 실재를 사실상 은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큰 충돌만 없었을 뿐 갈등과 마찰의 재료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1990년 6월의 유혈 충돌 이후, 양 종족간 관용의 폭은 점점 더 협소해져 갔다. 시장이나 다른 모임의 장소들에서 키르기스인들은 우즈베크인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 왔고, 이에 대해 우즈베크인들은 키르기스인들에게 산속의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응수했다. 상대방에 대한 불관용의 분위기 속에서 키르기스인들과 우즈베크인들 사이에는 끊임없이 사소한 시비와 충돌들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불관용과 배제적 태도는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독립 후 키르기스스탄의 두 정부는 우즈베크인들을 정부에 충원하지 않았다. 법집행기관과 법원 역시 우즈베크인들을 매우 드물게 채용하였다. 이처럼 낮은 우즈베크인들의 키르기스스탄 공직(국가기관) 재직율은, 키르기스 관리들이 우즈베크인들을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 시민이라기보다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sup>9)</sup>

### 3. 대규모 사상 원인

이번 참사에서 짧은 기간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폭력적 대립이 고조되어 많은 희생자가 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종족간 갈등과 긴장의 폭력화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 대규모 살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혈 충돌 과정에서 총기가 대량으로 사용되었다는 데 있다. 2010년 6월 10-14일 유혈 충돌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가담자들이 비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총상을 입었다. ‘키르기스스탄 조사위원회(the Kyrgyzstan Inquiry Commission: KIC)’는 사망자 470명 중의 약 2/3가 총을 맞았으며, 1,930명의 부상자 가운데 약 절반이 총상을 입었다고 추산하였다(Rickleton 2011).

사망자와 부상자들 중 상당수가 총상을 입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발포를 했다는 뜻인데, 그들이 가진 무기의 출처는 어디일까. 민간인들이 가진 무기의 대부분은 군과 경찰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바키에프 대통령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 동안에 시위대들은 몇몇 도시들에서 보안군, 특수부대, 경찰 등을 무장해제시키고 수백 개의 무기를 탈취하였다. 그리고 6월의 종족 분규 당시에도 보안군은 남부 지역에서 더 많은 화기를 다중들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심지어 오쉬의 종족

9) ‘인권과 기억에 관한 국제헬싱키연맹’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오쉬 지역 내무부의 지역실에는 우즈베크인의 비율이 1% 미만이었다. 1명의 우즈베크인이 재정경찰로, 두명의 우즈베크인이 오쉬 시 행정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법집행 기관에는 우즈베크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Arynov 2010).

간 유혈 충돌 사태시 한 대대 전체가 그들의 무기를 민간인들에게 넘겨 준 일도 있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마약 밀매 루트를 따라 운송된 소화기들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의 허술한 국경 지대를 통해 다량으로 흘러 들어왔다(Rickleton 2011).

양 종족간의 폭력행위에는 수류탄, 칼, 도끼, 몽둥이, 채찍 등 온갖 도구들이 사용되었지만, 흥분 상태의 다중들에게 주어진 총기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군이 키르기스인 다중들에게 대량으로 총기를 내어준 일은 군이 폭력 사태를 방조하고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 IV. 재발 방지 방안의 모색

헌법개정 국민투표에서 연립정부 수립, 대통령 선거까지 모든 정치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사건 후 3주년이 다가오는 현재, 표면상 오쉬와 잘랄-아바드 지역은 평화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지만, 우즈벡인들의 보호를 비롯한 남부 지역의 치안 확보 문제, 주택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재정착 문제, 공동체의 재건 방향 등을 둘러싸고 당국과 우즈벡인들의 입장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종족 충돌의 사후 처리와 북부와의 지역 갈등이 중심인 키르기스스탄의 남부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동일한 지역에서 두 차례나 대규모 종족간 유혈충돌의 발생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며 그 비극성의 정도 역시 가중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양 종족 공동체와 지도자들, 정치권, 중앙 및 지역 행정기관 등 여러 주체들이 다각적 모색과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법적 정의 구현, 난민의 재정착과 공동체 재건의 방향, 키르기스어 사용 확대, 이종족간 혼인 장려, 국가형성의 총체적·원론적 과제로서 종족적 정체성 대신 공민적 정체성 형성 문제 등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사법적 정의 구현

공정한 사후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사법적 정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대규모 종족간 유혈 충돌 이후의 사후처리에서 우선적인 과제는 공정한 수사과 재판을 통해 범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도덕적·법적 균형감을 공유하면서 키르기스인과 우즈벡인들 간의 관용과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다.<sup>10)</sup> 그러나 참사 이후 남부 지역의 사후 처리 현황은 공동체의 최소한의 정의 구현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KIC 보고서에 따르면, 470명의 사망자 가운데 74%가 우즈벡인들이며, 24%는 키르기스인들이었다. 그런데 우즈벡인들은 키르기스인들보다 30배나 더 자주 살인혐의로 기소되고 있다(EurasiaNet.org May 3, 2011). 우즈벡인들은 자신들이 법집행 기관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우즈벡인들을 사법적 처벌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제인권위원회의 보고서(2011년 6월 8일 발간)<sup>11)</sup> 우즈벡인 피의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고

10) 키르기스 남부의 한 이맘의 말대로, 수사와 재판에서 “오직 정의와 정직만이 화해를 가져올 수 있다.”(Pannier 2010).

11) 보고서는, 수사기관에서 우즈벡인들의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구타, 플라스틱 가방으로 질식시키기, 목조르기, 담배나 달걀 껍질로 찌르기, 성기에 전기 쇼크 가하기 등 고문을 가했다고 기술하고 있다(Human Rights Watch, June, 2011).

문과 불공정한 재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Human Rights Watch, June 8, 2011). 키르기스스탄은 ‘고문 및 여타 비인도적 가혹행위에 반대하는 UN협정’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헌장’의 서명국으로서 자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고문의 방지와 근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책임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오툰바예바 전 대통령은 우즈베크인들이 경찰의 가혹행위와 불공정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중앙과 지방의 행정당국과 법시행기관들은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EurasiaNet.org June 8, 2011).

다른 한편으로, 대량 살상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는 일과도 관련된 것인데, KIC의 최종 보고서는 유혈 충돌의 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 군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KIC Final Report 2011). 만약 이러한 지적이 법정에서 사실로 증명된다면, 군인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재판 관할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의 이러한 측면이 유혈 충돌 과정에서 군인의 개입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이다.

6월 참사와 관련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법집행기관들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도리어 사법적 과정을 우즈베크인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충돌 당사자간의 화해와 화합은 요원한 일이다.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은 우즈베크인들의 불만과 좌절을 키워 또 다른 충돌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1990년 6월의 동일한 유혈 충돌에서는 사후 재판과 처벌이 이번과 비교하여 훨씬 더 공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의 키르기스인들과 우즈베크인들 사이의 관계 안정과 공동체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 난민의 재정착 및 공동체 재건 방향에 대한 합의

보상, 난민의 재정착 및 공동체 재건의 방향에 대한 합의 문제도 시급한 과제이다. 당시 아탐 바예프 총리가 서명한 명령(2011년 5월 10일 공표)에 따라 유혈 충돌에서 살해당한 희생자 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1백만 쉼(약 \$21,500), 중상자에게는 1십만 쉼, 경상자에게는 5만 쉼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24.kg. May 10, 2011). ‘오쉬와 잘랄-아바드 재건부(The State Directorate for Reconstructing Osh and Jalal-Abad)’는 유혈 충돌 희생자 가족들에게 주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활동은 희생자 가족에 대한 복지 제공과 위로라는 의도와는 별개로, 문제의 성격상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희생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양 종족의 주민들 간에 상호 불만을 키우고 간극을 깊게 하고 있다(Khamidov 2011).

현재 오쉬시에서의 난민들의 정착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난민들이 아파트로 옮겨 가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이웃들 속에 위치한 개별 주택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미르자크마토프(Myrzakmatov) 오쉬 시장은 모든 대안들이 주민들의 참여하에 결정될 것이고 난민들은 선택권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즈베크인들은 강제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라고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대체로 우즈베크인들은 자신이 살던 곳에 다시 주택을 재건하고 싶어한다(EurasiaNet.org. August 15, 2010). 전통적인 우즈베크식 마할라의 가옥 구조를 떠나 아파트로 이주한다는 것은 수세기 동안 고수해온 습속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난민들의 이주와 정착 문제는 종족 분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체의 재건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현재 피해 복구 매스터 플랜의 제안자들은 우즈베크 마할라들은 주로 종족적으로 혼합 공동체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방안이 긴장을 완화하고 종족간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EurasiaNet.org July 26, 2011). 많은 전문가들 역시 키르기스인과 우즈

백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혼합 공동체 혹은 주거 구역들이 유혈 폭력의 피해를 덜 보았다고 진단한다. 오쉬 시장도 양 민족이 따로 분리된 공동체 혹은 구역에서 살아가는 것은 상호 불신과 의심을 강화할 뿐이기에 양 공동체가 통합될 수 있도록 혼합 공동체를 더 많이 창출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2)</sup> 양 종족이 혼합 공동체 속에서 통합되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종족 분규의 재발을 방지할 어떤 근본적인 방안도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 혼합 공동체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즈벡인의 키르기스화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말인지 우즈벡인들은 염려하고 있다.

### 3. 키르기스어 교육의 확대

이것은 소수 종족인 우즈벡인들에 대해 국가언어인 키르기스어 교육의 확대가 종족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유혈 충돌 후, 양 종족간 통합의 한 방안으로서 우즈벡인 취학 아동들에 대해 키르기스어 수업반을 편성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즈벡어 사용 학교의 언어 전환율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즈벡어를 주된 학습어로 사용하는 우즈벡어 사용 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는 약 60% 이상 감소하였다<sup>13)</sup> 특이한 점은 키르기스인들이 아니라 오쉬주의 우즈벡 공동체가 주도하여 초등학교의 입학생들에게 수업 언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우즈벡인 학부모들은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어인 키르기스어로 교육받음으로써,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더 넓은 선택권을 갖게 되며 졸업 후 취업도 더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자녀들을 키르기스어 수업반에 보내고 있다. 우즈벡 공동체의 지도자들 역시 우즈벡인 미래 세대들의 키르기스어 사용이 남부 지역에서 종족간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키르기스어 수업반 선택을 권장하고 있다.<sup>14)</sup>

이에 대한 비판자들은 우즈벡인들에 대한 키르기스어 교육 강화안이 종족간 조화보다는 우즈벡인들 내부에 더 큰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즈벡 아동들의 주된 교육언어를 우즈벡어에서 키르기스어로 바꾸는 것은 우즈벡인들에게는 일종의 차별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어로서 키르기스어 사용의 실용적 이점과 우즈벡 공동체 내부의 일부 비판적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중립적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학교에서 우즈벡언어와 우즈벡 문학 수업만 우즈벡어로 수업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국가어인 키르기스어로 수업을 하자는 것이다(Najibullah September 3, 2011).

일부 키르기스 관리들은 우즈벡인 자신들이 우즈벡어 사용 학교를 키르기스어 사용 학교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우즈벡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한다. 그들은 키르기스어 사용학교보다는 러시아어 사용학교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즈벡어

12) 이런 재건 방침을 반영하여 국가의 등록 관청은 마할라의 무너진 자리에 집을 새로 짓고자 하는 우즈벡인들에게 서류 등록 업무를 해 주기를 꺼려하고 있다. 특히 원래부터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 문서를 갖고 있지 않았거나, 6월 사건 당시 화재로 문서를 분실한 이들의 처지는 더욱 어렵다(EurasiaNet.org July 26, 2011).

13) 키르기스스탄 국가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에 106,577 명의 아동들이 141개의 우즈벡어 사용학교에 재학하였다. 2012년에는 40,833명의 아동들이 91개의 우즈벡어 사용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다중 언어 사용 학교의 숫자는 2002년 96개교에서 2012년 135개교로 증가하였으며, 러시아어 사용학교의 숫자 역시 143개교에서 203개교로 대폭 증가하였다. 러시아어는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어인 키르기스어와 맞먹는 공식어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우즈벡어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위상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떤 고등교육 프로그램도 더 이상 우즈벡어로 제공되지 않는다(EurasiaNet.org, March 6, 2013).

14) 일례로, 오쉬주의 카라-수우(Kara-Suu) 구의 27개 우즈벡 학교들 가운데 약 20개 학교가 키르기스어 수업반을 편성하고 있다. 오쉬시 시평의회 의원인 이미노프(A. Iminov)는 우즈벡인인데, 키르기스어 수업반이 모든 우즈벡 학교에 도입되어야 하며, 고등학교에서도 키르기스어 수업 시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Najibullah September 3, 2011).

사용 학교에 보낸다 하더라도 그 학교는 곧 키르기스어로 언어전환을 하여 아동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공산이 크며, 또 키르기스어 사용 학교보다는 러시아어 사용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장차 자녀들에게 더 폭넓은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즈베크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키르기스인 부모들조차 자녀들을 러시아어 사용 학교에 보내어 미래에 그들이 언어 장애 없이 러시아어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EurasiaNet.org, March 6, 2013).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관계자들은 학교들의 언어 전환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다만, 우즈베크어 사용 학교의 키르기스어 사용 학교로의 전환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약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키르기스어나 러시아어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우즈베크인 세대는 문제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쉬 지역의 우즈베크인들은 자신들에게 키르기스어로의 언어 전환은 참으로 인기 없는 조치라고 반박한다. 많은 우즈베크인들에게 정부기관에 취업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등의 주장은 허사에 불과한데, 국가 공무원직은 우즈베크인들이 아무리 키르기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EurasiaNet.org, March 6, 2013).

어떤 경우이든 양 종족간 통합의 중요한 고리로서 언어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 사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2010년 6월의 종족간 유혈충돌을 초래한 여러 원인들 중의 하나라고 간주한다. 우즈베크인 취학 아동들이 키르기스어를 사용하게 되면, 두 공동체간의 언어 장벽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서로 더 잘 소통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초등학교에서부터 키르기스어 학습이 일반화되면, 미래세대들은 향후 10년, 15년 내에 종족적 정체성의 기준선을 넘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더 나아가 기성세대인 우즈베크인 선생님들을 위한 키르기스어 학습반이 편성되어서 성인들의 국가언어 능력 향상도 도모하고 있다(Najibullah, September 3, 2011).

우즈베크인들 사이에 키르기스어 사용의 확대와 언어 능력 증진은 우즈베크인들의 공직 진출 기회 및 정치적 대표성 확대, 취업의 용이성, 궁극적으로 두 문화간 의사소통 확대의 결과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그 동안 차별받고 불이익을 당해 왔다고 생각하는 남부 우즈베크인들의 불만을 완화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유념할 부분은 우즈베크인들에게 국가언어로서 키르기스어 교육과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소수민족어로서 우즈베크어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시민사회가 우즈베크어와 우즈베크 전통의 보존·보호에 정책적 관심을 지속한다면, 상기한 키르기스 국가어 사용 확대가 소수 종족과 그 문화 및 사회적 권리에 대한 억압이나 박해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 4. 이종족간 혼인 장려와 합작 사업 권장

종족간의 이해와 신뢰 증진, 화합을 위한 방안으로 이종족간 혼인 장려와 종족간 합작 사업 권장을 들 수 있다. 오쉬주의 몇몇 지방 관리들이 종족간 관용의 증진과 화합 방안으로 이종족간 혼인, 혼합 결혼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제안은 박봉에 시달리는 직종인 교사들 가운데 타종족과 결혼한 새 부부에게는 2만 솜(약 \$420)을 제공하고, 우즈베크인 교사와 키르기스인 교사가 결혼하여 부부교사가 되는 경우에는 1십만 솜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혼합결혼을 통해 태어난 새로운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타종족에 대해 더 관용적일 것이라는 가정 혹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다(Trilling, March 2, 2011).

그런데 키르기스 남부에서는 혼합 결혼이 무슨 새로운 현상은 아니며, 오쉬 같은 도시 지역에서는 수 세대를 걸쳐 혼합결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왔다. 현재 유혈 사태의 후폭풍으로 인해 이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되거나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유혈 충돌 이전에도 친인척들 가운데 혼합결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아내의 종족 정체성을 끝까지 숨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어떤 경우이든 결혼 문제에서 종족간의 거리 두기는 지금만큼 강하지 않았다. 타종족에 대해 적개심을 가진 친인척들은 이종족간에 약혼한 커플들에게 결혼 계획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10대 연인들에게는 교제를 금지하고, 자녀가 딸린 기혼자들과는 교류를 단절하거나 심지어 부부에게 이혼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처럼 유혈 충돌의 여진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현재와 같은 긴장된 상황에서 혼합결혼이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은 일이며, 성사된다 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트라우마의 치유가 진행된 후, 혼합결혼은 작은 규모의 공동체보다 큰 공동체에서 화해와 관용의 분위기를 고무하게 될 것이다. 혼합 결혼에서 부부 각자는 자신의 종족이 관련되어 일어난 갈등과 충돌 등을 대면하면서 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합결혼 부부는 이들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긍정적인 모범이 될 수 있다(Kumkova, August 13, 2010).

일각에서는 혼합결혼이 평화시에만 이종족에 대한 관용을 표현할 뿐이기에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타 종족의 문화와 전통에 접할 기회가 많고 상호 교류의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상호 이해는 그것 자체로서 종족간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의 여지를 줄여주며, 신뢰 증진의 기회와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종족간 결합과 협력은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혈 충돌 이전에 우즈베크인과 키르기스인 사업가들은 협력을 하기는 해도 합작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한다. 최근에는 양 종족이 함께하는 공동투자나 합작기업의 운영이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즈베크인 입장에서는 키르기스인 파트너 때문에 키르기스 당국이나 과격 민족주의자들로부터의 괴롭힘을 피할 수 있고, 우즈베크인 파트너를 가진 키르기스인 입장에서는 우즈베크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Khamidov 2011).

## 5. 종족적 정체성을 대신하여 공민적 정체성 형성

키르기스스탄 국가형성 과정에서의 총체적·원론적 고민을 반영하는 과제인데, 종족적 정체성 대신 공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한 국가들의 국가·국민 형성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추세가 두드러졌으며, 키르기스스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민족주의가 배타적·배제적 성격이 아니라 포괄적·수용적 성격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포괄적·수용적 민족주의’란 키르기스 민족이 키르기스 공화국의 주된 민족이지만, 우즈베크인과 러시아인을 포함한 여타 소수 종족들의 권익과 문화적·전통적 특성들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독립 후 약 20년의 국가형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키르기스 민족주의는 그러한 성격을 강화해 나오지 못했으며, 특히 남부 출신인 바키예프 집권기에 키르기스 민족주의가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더구나 유혈충돌 사태 이후 우즈베크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키르기스 민족주의의 배타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종족간 화해와 공동체 재건, 안정된 다민족 사회 건설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다.

6월 참사 이후, 다민족 사회로서 키르기스스탄이 처한 갈등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고사하고, 도리어 키르기스 민족주의가 공공연히 득세하면서 어떤 정치 지도자도 그러한 추세를 비판하거나 대항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즈베크 공동체는 6월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위해 요인으로 치부되고 있다. 일부 극우민족주의적 성향의 의회 의원은 우즈베크 분리주의자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으며,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여 마녀 사냥의 앞장을 서는 형국이다(Trilling, June 4, 2010).

최근 몇 년 동안 키르기스 유력 정치세력들간의 권력 투쟁은 점점 더 민족주의적 담론에 치중하고 있다. 정치적 도전자들은 현 집권세력을 키르기스인들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비애국적' 무리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매도를 통해 비판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사회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시골 지역 주민들에게서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민족주의 담론의 득세는 6월 참사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번 대통령 선거(2011년 10월 30일)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민족주의적 열정과 신념을 증명하고 싶은 것만큼이나 상대 세력을 비애국적이라고 매도하기 위해 민족주의 분위기를 이용하였다(Mukhametrakhimova 2011: 2-3). 특히 남부 지역에서 반우즈베크 정서가 강한 키르기스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 남부 지역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진 '아타-주르트당'의 지도자이며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캄치벡 타쉬예프(K. Tashiev) 같은 이들이 키르기스인 중심적인 목소리를 드높이면서 민족주의를 득표를 위한 정치적 수사로 이용하고 있는 조건에서 유력 후보였던 집권 사회민주당의 아탐바예프 역시 남부 키르기스인들의 정서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Yefimov, May 14, 2011).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 선거국면의 특수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미 유혈 사태 이후 오투바예바 전 대통령의 과도정부 시절뿐만 아니라 총선 이후 구성된 아탐바예프 전 총리의 연정에서도 유사한 민족주의 감정의 과잉 분출에 대응할 의지와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민족주의 추세와 운동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며, 키르기스 사회의 주도적인 이념과 정치적 분위기에 대한 역행은 위험부담을 지는 것이었다. 총선이던 대선이던 어떤 선거에서건, 소수 종족의 권익을 옹호함으로써 표를 잃고 싶은 정치가는 없다. 키르기스 의회가 KIC 위원장인 킬쥬넨을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하는 결정을 채택한 것 역시 정치세력들의 유사한 계산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Mukhametrakhimova 2011: 3).

우즈베크 남부 지역에서의 배타적 민족주의의 강화 추세로 인해 우즈베크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으며, 관직과 법집행기관 등에서 우즈베크인들을 찾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우즈베크인들이 점점 더 정치과정 전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사회적 가치와 부의 배분이 시민적·공민적 기준이 아니라 종족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와 국가성에 균열과 해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해 요인이다. 정리하면, 지금처럼 정체성의 기준선으로 키르기스인, 우즈베크인 등 종족적 특성이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키르기스계 키르기스스탄 국민, 우즈베크계 키르기스스탄 국민 등으로 '공민적 정체성(civic identity)'이 사고와 행동의 우선적인 기준선으로 작용되어야 양 종족간의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고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6월의 유혈 종족 충돌 이후 키르기스스탄 사회는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 사이에 상호이해, 신

되, 조화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종족 갈등과 대립이 유혈 충돌로 비화한 과정을 보면, 바키예프 치하에서 억눌려 왔던 남부 우즈벡인들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요구와 운동이 지역 키르기스인들의 배타적 민족주의 감정과 대립의 전선을 형성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종족간에 갈등과 증오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우즈벡인들이 잘랄-아바드 소재 바키예프 일가의 집에 방화한 것이 첫 유혈 참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충돌 배경을 잘 고려하여, 의원내각제 정부 하에서의 첫 대통령 선거(2011년 10월 30일) 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중앙정부 내에서 우즈벡인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현저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Melvin 2011). 이것은 우즈벡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남부의 오쉬와 잘랄-아바드 등의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특히 경찰, 검찰, 사법부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우즈벡인들의 공직 참여를 인구구성비 이상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키르기스인들이 법집행기관의 요직과 중하위직 거의 전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즈벡인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박해받고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우즈벡인들의 공직 참여 기회 확대라는 차원과 동시에 공정한 수사와 형평에 맞는 판결이라는 법치의 기본 원리를 보장하고 구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다.

우즈벡 공동체는 이 시점에서 우즈벡인들의 자치공화국이나 자치주의 요구 등 정치적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충돌 당사자간의 화해와 화합 노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재 상황에서 남부 우즈벡인들이 제기하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자치에 대한 요구도 키르기스인들에게는 분리주의 운동으로 비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즈벡인들의 분리주의는 키르기스인들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정당화하고 이를 더 경직되게 만드는 요인이 될 뿐이다. 남부 우즈벡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분리주의나 급진주의 세력과 분명하게 선을 긋고, 현행 키르기스공화국 헌법과 주요 제도 내에서 우즈벡인의 권리 증진과 사회통합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키르기스스탄 정부, 키르기스 및 우즈벡 시민사회 모두 종족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 제도화 방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수 종족으로서 우즈벡인들의 권리 보장과 권익의 보호가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저야할 의무이자 책임임을 법적·제도적으로 명시하고,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의 구제와 보상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일방의 권리와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도, 그로 인한 갈등과 마찰이 폭력 사태로 비화·고조되지 않도록 종족간 갈등의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이 세부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잘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혈 종족 충돌의 사후 처리와 재발 방지의 과제는 키르기스스탄 사회통합의 문제에 포함되는 것이며, 넓게 보아 키르기스스탄 국가 건설과 국민 형성의 한 부분이다. 현재까지의 사후 처리 과정은, 독립 후 키르기스스탄의 국민 형성이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민적·시민적 정체성보다는 키르기스인들의 종족적 정체성을 기초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소수 종족들의 불만과 좌절감을 키우고, 정치적 대표성을 추구하는 대신에 무력항쟁이라는 수단을 택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키르기스 민족중심주의는, 겉보기와는 달리,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더 취약하게 만들며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의 진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참고문헌

- Harmon, Daniel E.(2005). *Kyrgyzstan*. Philadelphia: Mason Crest.
- Haugen, Arne.(2003).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Republics in Soviet Central A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ubin, Nancy(1999). *Calming the Ferghana Valley: Development and Dialogue in the Heart of Central Asia*(1999). New York: The Century Foundation Press.
- Recknagel, Charles(2010). "Can Kyrgyzstan Become A Democracy in Russia's Backyard?" *Foreign Policy*. July 23.
- Results of All-Union Census on the Population 1989*(1990). Moscow.
- Roy, Oliver(2000).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uny, Ronald Grigor(1999-2000). "Provisional Stabilities: The Politics of Identities in Post-Soviet Eurasia." *International Security*. 24-3(Winter).
- Tishkov, Valery(1995). "Don't Kill Me, I'm a Kyrgyz!: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Violence in the Osh Ethnic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32-2 (May).
- "Сообщение от 10.05.2011 г. о выплате по 1 миллиону сомов семьям погибших и пропавших в результате июньских событий 2010 года," *24.kg*. 10/05/11, <http://24kg.org/oficial/99674-okmotpress-soobshhenie-ot-10052011-g-o-vyplate-po.html> (검색일: 2011.10.18).
- "Brother of deposed Kyrgyz President Confesses to Role in Ethnic Conflict." July 22, 2010. *Atlantic Council*, <http://www.acus.org/print/13527> (검색일: 2011.10.18).
- "Ferghana Valley: A Tinderbox for Violence." *RFERL*. June 17, 2010.
- "Fugitive Uzbek Community Leader Tells His Story of the Unrest." *RFERL*. October 05, 2010.
- "In Kyrgyzstan, Uzbeks Criticize Osh Reconstruction Plan." *EurasiaNet.org*. August 15, 2010. <http://www.eurasianet.org/node/61744> (검색일: 2010.9.25).
- "Kyrgyz Leaders Brace for Ethnic Conflict." May 18, 2010. *UPI*, <http://www.upi.com>.
- "Kyrgyzstan: Authorities Subjecting Uzbeks to Widespread Abuse — Watchdogs." *EurasiaNet.org*, June 8, 2011, <http://www.eurasianet.org/print/63644> (검색일: 2011.10.18).
- "Kyrgyzstan: Land in Short Supply around Osh." *EurasiaNet.org*. April 13, 2011, <http://www.eurasianet.org/print/63289> (검색일: 2011.9.25).
- "Kyrgyzstan: Officials Still Targeting Uzbeks with Violence — Independent Inquiry." *EurasiaNet.org*. May 3, 2011. <http://enews.ferghananews.com>
- "Kyrgyzstan: Post-Violence Justice Deeply Flawed." Human Rights Watch, June 8, 2011, <http://www.hrw.org/news/2011/06/08/kyrgyzstan-post-violence-justice-deeply-flawed> (검색일: 2011.10.18).
- "U.N.: Kyrgyz Refugee Count at 400,000." *UPI*. 17 June, 2010. <http://www.cacianalyst.org/?q=node/5359> (검색일: 2010.6.30).
- Arynov, Mirajidin. "Some Factors That Caused Inter-Ethnic Conflict in Southern

- Kyrgyzstan." June 18, 2010. <http://www.neweurasia.net> (검색일: 2011.9.25).
- Asankanov, Abilabek. "Ethnic conflict in the Osh in Summer 1990: Reasons and Lessons." <http://archive.unu.edu/unupress/unupbooks/uu12ee/uu12ee0d.html> (검색일: 2011.9.25).
- Bisig, Nicole. "Working with Conflicts in Kyrgyzstan." PCIA Based on an Analysis of the Conflict Situation in Southern Kyrgyzstan (March 2002). <http://www.oecd.org/dataoecd/49/20/35114534.pdf> (검색일: 2011.10.18).
- Distorted Justice: Kyrgyzstan's Flawed Investigations and Trials on the 2010 Violence*. Human Rights Watch. June, 2011, <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s/kyrgyzstan0611webwcover.pdf> (검색일: 2011.10.18).
- Green, Niall. "Great Power Rivalries Intensify Ethnic Conflicts in Kyrgyzstan." September 16, 2010. *World Socialist Web Site*. <http://www.wsws.org> (검색일: 2011.9.25).
- Khamidov, A. "Kyrgyzstan: Remembering Osh violence without Reconciling." *EurasiaNet.org*. June 10, 2011. <http://www.eurasianet.org/print/63661> (검색일: 2010.10.25).
- KIC Final Report*. 2011. <http://www.k-ic.org/en/news/364-kic-final-report-published.html> (검색일: 2011.9.25).
- Kumkova, K. "Kyrgyzstan: Rising Nationalism Risks Renewed Violence -- Report." *EurasiaNet.org*, March 10, 2011, <http://www.eurasianet.org/print/62116> (검색일: 2011.10.18).
- Kumkova, K. "Mixed Marriages in Kyrgyzstan Strained by Ethnic Violence." *EurasiaNet.org*, August 13, 2010, <http://www.eurasianet.org/print/61735> (검색일: 2011.10.18).
- Kyrgyzstan Troops Side in Ethnic Conflict, <http://vodpod.com/watch/3828600-kyrgyzstan-troops-side-in-ethnic-conflict> (검색일: 2011.10.18).
- "Kyrgyzstan: Uzbek-Language Schools Disappearing." *EurasiaNet.org*. March 6, 2013. <http://www.eurasianet.org/node/66647> (검색일: 2011.10.18).
- Melvin, Neil. *Promoting a Stable and Multiethnic Kyrgyzstan: Overcoming the Causes and Legacies of Violence*. Central Eurasia Project, Open Society Foundations, *Occasional Paper Series*, No. 3(March 2011), [http://www.soros.org/initiatives/cep/articles\\_publications/publications/occasional-paper-3-20110307](http://www.soros.org/initiatives/cep/articles_publications/publications/occasional-paper-3-20110307) (검색일: 2011.10.15).
- Mukhametrakhimova, Saule. 2011. "Kyrgyzstan: Little Progress on Rebuilding Stable Society." Interview. *Institute for War & Peace Reporting*. June 9, 2011. <http://iwpr.net/report-news/kyrgyzstan-little-progress-rebuilding-stable-society> (검색일: 2011.10.5).
- Najibullah, Farangis. "Kyrgyzstan's Uzbek Schools Set A New Course." *EurasiaNet.org*. September 3, 2011. <http://www.eurasianet.org/print/64122> (검색일: 2011.10.5).
- Pannier, Bruce. "Wary Locals Question Allegation of Islamist Role in Kyrgyzstan's Ethnic

- Violence." *EurasiaNet.org*, July 24, 2010, <http://www.eurasianet.org/print/61598> (검색일: 2011.10.18).
- Rickleton, Chris. 2011, June 9. "Kyrgyzstan: Are Guns the Political Weapon of Choice?" *EurasiaNet.org*. Available: <http://www.eurasianet.org/print/63655> (검색일: 2011.10.18).
- Sharipov, Abumalik. "Kyrgyzstan: Role and Place of Ethnic Minorities in Conflicts between the Opposition and the Regime." *Ferghana.news*. May 2, 2007 (검색일: 2011.10.18).
- Trilling, David. "Kyrgyzstan: Breeding for Ethnic Peace," *EurasiaNet.org*. March 2, 2011, <http://www.eurasianet.org/print/62988> (검색일: 2011.10.5).
- Trilling, David. "Kyrgyzstan: Parliament Deputy Stoking Ethnic Tensions." *EurasiaNet.org*, June 4, 2010, <http://www.eurasianet.org/print/63616> (검색일: 2011.10.18).
- Trilling, David. "Kyrgyzstan: Reconstruction Competes against Redevelopment in Osh." *EurasiaNet.org*. July 26, 2011, <http://www.eurasianet.org/print/63951> (검색일: 2011.9.16).
- Walker, Maxton. *The Guardian*. June 10, 2011. <http://www.guardian.co.uk> (검색일: 2011.9.25)
- Yefimov, Natasha. "Kyrgyzstan to Pay Osh Victims' Families: Can It Be Done Fairly?" *EurasiaNet.org*. May 14, 2011, <http://www.eurasianet.org/print/63487> (검색일: 2011.10.5).

#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갈등 양상과 국제 개입

우평균(한양대)

## 목차

- I. 서론
- II.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배경과 원인
- III.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경과: 1985~2013
- VI. 국제적 중재노력 및 대안 모색
- V. 결론

## I. 서론

1985년 소련에서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고 나서 소련은 그가 행한 일련의 개혁 조치들과 더불어 일대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결국 그 결말은 70여 년을 지속해 온 소연방이 붕괴로써 마감했다. 고르바초프가 행한 개혁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들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어느 정도 혼란의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민족문제와 연계된 사안들은 사안의 심각성 및 그 폭발성을 사실상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던 소련의 은밀한 내부 문제였다. 민족문제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일순간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의 성격도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오랜 세월 민족 간의 반목과 상호배타적인 인식이 축적되어 오다가 '민족자결주의'와 같은 외부적 자극을 받거나 혹은 민족 간의 갈등을 강제로 억누르고 있던 외부의 통제 기제가 약화되거나 해체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빠르게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고르바초프의 서기장 등장 이후 소련에서 전개된 민족분규는 상기한 민족문제의 성격에 부합되는 전형적인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120여개의 민족이 공존했던 소련의 민족구성 질서가 전환기에 접어들었던 1980년대 중반 이후 구소련의 공간 속에서 변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특히 나고르노 카라바흐(Nagorno Karabach) 분쟁은 여러모로 민족 분쟁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은 소련 말기에 본격화되어 분쟁이 격화되었다가 협상을 통해 조정기를 거치는 등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민족분쟁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둘째,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분쟁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분쟁의 당사자인 아르메니아인(Armenians)과 아제르바이잔인들(Azerbaijans) 간에 종교와 민족적 차이 및 경제적 이익 등으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사례로 다루기에 적합하다. 셋째,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그 원인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해묵은 민족 감정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비에트 시기, 구체적으로 스탈린(Iosef Stalin) 통치 시기 실시했던 '사회주의 민족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소비에트 민족정책의 문제점 및 모순을 살펴보는 데도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상기한 이유에 의해 구소련 공간에서 진행되었고, 현재도 끝나지

않은 분쟁으로서 분석에 있어 유의미성을 갖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배경과 경과 및 분쟁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그 해결노력과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서술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제3절에서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경과(1985~2013)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제4절에서 2013년 현재까지 나타난 국제적 중재노력 및 대안에 대한 모색을 할 것이다.

## II.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배경과 원인

### 1.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관할권 결정 과정

수 세기 동안 코카서스(Caucasian) 지역에서는 페르시아인들(Persians), 아랍인들(Arabs), 몽골인들(Mongols), 튀르크인들(Turks)과 러시아인들(Russians)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 코카서스 지역의 역사에 대해 견해 차가 큰 두 가지 상반되는 시각이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바이잔인들 간에 오늘날 존재하는데, 이를 근거로 나고르노-카라바흐 갈등에 대해 각자 유리한 입장에서 제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아르메니아인들의 시각은 아트사크(Artsakh)가 아르메니아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본다. 5세기로 거슬러 가면, 최초의 아르메니아 학교가 오늘날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마르투니(Martuni) 구역 내에 있는 아마라스(Amaras) 교회에 개설되었고, 301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기독교를 수용했으며, 405명의 학자, 성직자와 군사 지도자인 “메스로프 마쉬토츠”(Mesrop Mashtots)가 배출되었다. 또한 다른 출처에 따르면, 잊혀진 아르메니아 알파벳이 소생되었다고 한다. 아르메니아의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긴 기간을 본질적으로 기독교적 혹은 주로 무슬림이 차지했던 외부 세력에 대항했던 아르메니아의 저항의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에 아제르바이잔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아제르바이잔의 시각은 B. C 4세기에서 A. D. 8세기까지 현재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은 “코카시안 알바니아”(Caucasian Albania)에 속해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고대 국가는 북부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국가로서 313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52개 글자로 이루어진 독창적인 알파벳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이 지역에서 코카서스 알바니아인들과 튀르크 종족이 인구의 대부분을 구성했으며, 알바니아의 미크라니드(Mikhranid) 왕자가 지배했는데 나중에 하산-자할-잘라리드(Hassan-Jahal-Jalalids)가 후손이 되었다고 한다.<sup>1)</sup> 중세를 거치면서 카라바흐는 항상 왕조 수립의 일부가 되었고, 현재에는 튀르크 이슬람교 왕조가 이끈 아제르바이잔의 일부이기도 하며, 튀르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sup>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통제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짧은 시기 동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독립적인 공화국들간에 경쟁 관계에 놓였다. 1924년에 소비에트 정부는 이 지역을 러시아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TSFSR)의 관할 내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사법적 권한이 부

1) “Nagorno-Karabach - Background,”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war/nagorno-karabach-1.htm> (검색일: 2013.4.10).

2)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분쟁 역사적 사실과 전개 내용,” [http://www.azembassy.co.kr/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5&1..](http://www.azembassy.co.kr/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5&1..) (검색일: 2013.4.12.).

여된 자치 지역으로 규정했다.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아제르바이잔공화국으로의 귀속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sup>

1920년 4월 아제르바이잔에서의 소비에트 정권의 수립 후에 아제르바이잔 인민위원회 의장 나리마노프(N. Narimanov)는 장에주르(Zangezur)와 나키예반(Nakhijevan)과 더불어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 소속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자결권 문제가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바이잔인들 간에 최초로 제기된 시기는 1920년 여름부터였다. 이후에 전개된 소비에트 지도자들의 입장표명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인민외교부장 치체린(G. Chicherin), 키로프(Kirov), 레그란트(Legrand) 및 오르죠키드제(G. Orjonikidze) 같은 지도자들은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표명한 나고르노 카라바흐, 장에주르, 나키예반의 아제르바이잔으로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했으며, 스탈린 등 일부만이 나리마노프의 견해에 동조했다.

1921년 오르드죠키드제, 마크라드제(Makhradze), 나리마노프, 미사스니키안(Misasnikian)과 더불어 다른 당 간부들이 참석한 러시아공산당 코카서스 지국의 전체회의에서는 소비에트 아르메니아 정부가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아르메니아의 주권선언을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비롯한 영토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에 광범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인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이같은 안은 당시 레닌(V. Lenin), 오르죠키드제, 키로프, 스탈린과 프라우다 및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등에 의해 환영받았고, 나리마노프와 아제르바이잔 혁명위원회의 구성원과 샤타크틴스키(Shatakhtinski) 같은 일부 인민위원들의 반대가 있을 뿐이었다.<sup>4)</sup>

결국 1921년 7월 4일 나고르노 카라바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공산당 코카서스 지국의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어 아르메니아의 사법 관할하에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남겨두기로 다수결 투표에 의해 결정되었다. 나리마노프가 이에 대항하면서 이 문제는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로 넘겨져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코카서스 지국도 동의하였다. 다음날 스탈린이 참석한 가운데 트빌리시(Tbilisi)에서 코카서스 지국의 회의가 다시 열렸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 전날의 결정을 검토하고 나서 일체의 심의나 투표없이 나리마노프에 유리한 결정을 채택해 버렸다. 즉 1921년 7월 5일 결정된 해결책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역에서의 모슬렘과 아르메니아인들 간의 경제적 유대의 필수불가결함과 아제르바이잔과의 영구적인 유대로 인해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경계 내에 남겨지며, 행정중심지를 수쉬(Shushi)시로 정하는 자치지역이 포함되며, 광범한 지역적 자율을 부여한다는 것으로,<sup>5)</sup> 그 표현은 다음과 같다.

“이슬람교도와 아르메니아인들간의 평화를 위하고, 카라바흐 고지대와 저지대 간의 경제적 연계와 카라바흐와 아제르바이잔인들 간의 지속적인 연계를 유지하며, 산악지대인 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 연방에 귀속시키고 보다 폭넓은 지방 자치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sup>6)</sup>

3) 귀속 과정에 대해서는 우평균, 『페레스트로이카와 민족문제: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학위 논문(1992), pp. 38-48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4) Vardges Mikaelian & Lendrush Khurshidia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History of Mountainous karabagh,” *Armenian Review*, vol. 43, no. 2-3 (Summer/Autumn, 1990), pp. 60-61.

5) 이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측은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귀속 결정 내용보다 인근의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동결정에 의해 아르메니아 측에 주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다. 즉, 산악지대인 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자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주로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장에주르(Zangezur) 지역과 카자흐 지구의 일부(총 9,000킬로미터)를 아르메니아에게 주었다. 총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구소련 당시 아르메니아에 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분쟁 역사적 사실과 전개 내용(2013).”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소비에트 중앙의 관할 결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시 회의와 관련된 원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관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당국이 자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학자들은 비공식적인 추측이나 구전자료에만 의존해왔다. 1968년 예레반에서 간행된 ‘카라바흐 파일(Karabagh file)’이라는 자료가 1921년 7월 4~5일 회의에 대해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이 자료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아르메니아로 귀속키로 한 결정이 어떻게 하루 만에 번복되었는지에 대한 2차 인용에 머물렀다.

진실규명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접근의 제한 속에서도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귀속 결정이 번복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이루어진 분석의 골자는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는 스탈린이 터키의 케말 아타투르크(Kemal Ataturk) 정권과 모슬렘 세계를 회유하기 위해 결정을 번복했다는 추정이다. 이 주장과 더불어 레닌과 케말 아타투르크 간의 비밀협정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논리도 많은 소비에트의 이론가들이 제기해 왔다. 레닌과 터키 정권과의 밀약설은 당시 레닌이 터키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이었으며, 또한 케말 아타투르크를 칭찬했고,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비롯한 3~4 개 지역에 대한 아타투르크의 요청에 대해 레닌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었다는 당시의 상황이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는 일부 볼셰비키들, 특히 스탈린이 당시 반 볼셰비키 봉기를 주도했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특별한(ad hoc) 차별 조치를 취했다는 설이다.’<sup>7)</sup>

당시에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귀속 결정을 주도했던 스탈린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처음부터 이 귀속결정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아르메니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도 1921년 7월 16일의 회의에서 귀속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아르메니아인들이 표명해 온 반대의 시초였다. 문제는 당시에도 압도적 다수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 있던 나고르노-카라바흐라는 하나의 ‘섬’이 동부 아르메니아의 나머지와 분리된 채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바다’에 떠있게 된 형국이 된 데 있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으로의 귀속 결정 당시에 동 지역 내 약 131,500명의 인구 가운데 94.4 퍼센트가 아르메니아인이었다. 1923년과 1979년 사이에 아르메니아 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1979년 무렵에는 75 퍼센트를 차지했다. 동 시기에 아제르바이잔 인구는 약 37,200명으로 나고르노 카라바흐 인구의 약 23 퍼센트 정도로써 3배가량 증가했다(표1).

<표1>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인구 통계

	1914	1959	1979
아르메니아인	170,000(95%)	110,100	123,100(75%)
아제르바이잔인	9,000(5%)	18,100	37,200(22.9%)
합계	180,000(100%)	130,400	162,100(100%)

출처: Claire Mouradian, “The Mountainous Karabagh Question: Inter-Ethnic Conflict or Decolonization Crisis? *Armenian Review*, vol. 43, no. 2-3 (Summer/Autumn, 1990), p. 7.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1923년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지구(혹은 관구, 오블라스치)

6)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분쟁 역사적 사실과 전개 내용(2013).”

7) Tamara Dragadzem “The Armenian-Azerbaijani Conflict: Structure and Sentiment,” *Third World Quarterly*, vol. 11, no. 1 (January 1989), pp. 60-62.

(Nagorno Karabagh Autonomous Oblast or Region)이 되었으며, 1924년에는 나키예반(Nakhichevan)이 아제르바이잔의 나키예반 자치공화국이 되었다. 어쨌든 스탈린이 주도한 갑작스런 결정의 반복은 아르메니아인들이 갖게 된 민족적 불만의 근거가 되었다. 아르메니아의 한 학자는 1921년 7월 5일 코카서스 뷰로의 결정이 논리적으로 공허한 몇 가지 근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인구의 94%를 점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됐고, 둘째, 모슬렘과 아르메니아인들 간의 평화와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적 유대의 필수불가결함은 한 지역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불확실한 명분이고 전적으로 불완전한 이유일 뿐이다. 셋째,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귀속 결정과정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sup>8)</sup> 즉 표결 과정없이 스탈린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당시 레닌의 결정과정에서의 불참과 연결된다. 당시 와병 중이었던 레닌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완전히 스탈린에게 넘어 갔다는 것이다. 즉 레닌이 참여했다면 스탈린이 내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과 더불어 스탈린의 태도가 레닌의 민족정책과 모순된다고 보고 있다.

## 2) 아르메니아인들의 관할권 변경 요구와 민족 감정의 생성

1921년 7월 5일의 결정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은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관할변경 요구를 주로 청원과 시위를 통해 제기해왔다.

1930년대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지구의 지도부는 전연방 중앙집행위원회(나중에 소련 최고 소비에트가 됨)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아르메니아의 일부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담긴 청원을 했다.

이와 유사한 청원이 대조국전쟁이 종결되자마자 아르메니아 교회의 최고관구에 의해 제기되었고, 1964년에도 마찬가지로 모스크바에 전달되었지만 모스크바로부터의 긍정적인 대답은 없었다.

1970년대 초 이래로 아르메니아 공화국 외무장관의 소련 외무장관과의 연례회담에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다.<sup>9)</sup> 1977년 브레즈네프 헌법이 준비되는 동안에는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소련 최고소비에트에 편지를 집중적으로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관할 변경을 위해 노력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7년 소비에트 헌법은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지위 뿐 아니라 나키예반에 대해서도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1981년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지역의 헌법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을 때, 해당 지역의 권한은 상위에서 연방 혹은 공화국 당국으로부터의 명령 집행과 비준으로만 엄격하게 제한되었을 뿐이었다.<sup>10)</sup>

온건한 청원운동에 비해 대중들의 공공연한 시위는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기 전에는 드물게 일어났었다. 가장 대표적인 시위는 1965년 7월의 시위로써, 원래 집회 목적은 터키인에게 당한 학살을 추모하기 위해 10만에 달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모인 것이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의 마음속에 깃든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귀속 요구는 변함없는 것이었다.<sup>11)</sup> 이 시위로 인해 아

8) Vardges Mikaelian & Lendrush Khurshidian (1990), p. 62.

9) Niall M. Fraser, Keith W. Hipel, John Jaworsky, Ralph Zulian, "A Conflict Analysis of the Armenian-Azerbaijani Disput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4, no. 4 (December 1990), p. 657.

10) Claire Mouradian, "The Mountainous Karabagh Question: Inter-Ethnic Conflict or Decolonization Crisis?" *Armenian Review*, vol. 43, no. 2-3 (Summer/Autumn, 1990), p. 12.

11) 이 시위가 있던 해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지역에 있던 4만 5천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나고르노 카라바

르메니아 ‘민족통일당’(National Unity Party)<sup>12)</sup>이 러시아인들의 지배에 반대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를 천명했다고 소비에트 당국이 그들을 지목하여 색출했으며, 러시아의 저명한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Andrei D. Saharov)도 가담하였다고 발표하였다.<sup>13)</sup>

1963년에는 “아르메니아 청년동맹”(The Union of Armenian Youth)이 결성되어 1966년까지 활동했다. 아르메니아 청년동맹은 1965년 7월 시위에 적극 가담했다. 작가 카차트루안(Aykanuz Khachatryan)과 대학생 자티우칸(Stepan Zatikuan)과 아루투우누안(Hagen Arutyutyan) 등이 조직한 아르메니아 청년동맹은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자결과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비롯한 아제르바이잔공화국 내의 몇몇 지역을 아르메니아 공화국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강령을 가지고 활동하였는데, 1968년과 1969년에 주요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sup>14)</sup>

1977년 4월에는 인권조직인 “아르메니아 헬싱키 감시그룹”(Armenian Helsinki Watch Group, AHWG)이 결성되었는데, 이 조직은 공개선언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의 공통적인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지금은 아제르바이잔의 자치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와 나키예반의 양도를 요구하면서 아르메니아에서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아르메니아어의 사용 “을 주장했다.<sup>15)</sup> 당시 아르메니아의 전체 학교들 중 절반 이상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상당수의 아르메니아 청년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은 특히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아제르바이잔인들에 유리한 문화적 차별정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의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언어를 포함한 교육과 문화면에서 자신들의 2세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기 어려워 어쩔수 없이 아제르바이잔인 학교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민족의 언어와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갖기 어려운 현실에 강한 저항감을 드러냈다.<sup>16)</sup>

언어 및 문화정책 외에도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관할 기관인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제반 정책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시했다. 그들은 우선 경제적으로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질 뿐 아니라, 도로, 상수도 시설 등도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차별적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제르바이잔인들은 나고르노 카라바흐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보다 더 발전했다고 반박해왔다.<sup>17)</sup>

1962년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지구의 수도 슈테파나케르트(Stepanakert)에서 발행된 최초의 아르메니아인 사미즈다트들(Samizdat, 지하간행물) 중의 하나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에 위치한 다른 기업들과 나고르노 카라바흐 밖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호의 아르메니아와의 통합을 요구하고 소비에트 내각회의에 보내는 청원에 서명을 했다. 당시 전체인구의 절반에 달하는-성인의 대다수가-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청원의 효과는 없었다. Hedrick Smith, *The New Russians* (New York: Randon House, 1990), p. 335.

12) 민족통일당은 소련 헌법에 표명된 ‘권리’인 소련으로부터의 탈퇴 권한을 아르메니아인들이 민족자결에 의해 실현해야 하며, 전 세계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소련의 아르메니아인들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령에 명시했다. Yves Ternon, *The Armenian Cause* (Delmar, N.Y.: Caravan Books, 1985), p. 187.

13) Horace B. Davis,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p. 113.

14) Ludmilla Alexeyeva, *Soviet Dissent: Contemporary Movements for National Religious and Human Rights*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5), p. 123.

15) Ludmilla Alexeyeva (1985), p. 127; Joshua Rubenstein, *Soviet Dissidents: Their Struggle for Human Rights* (Boston: Beacon Press, 1980), pp. 213-250.

16) Ludmilla Alexeyeva (1985), p. 128.

17) R. Ginat & vaserman, “National Territorial or Religious Conflict? The case of Nagorno-Karabakh,”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vol. 17, no. 2 (1994), P. 347.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기업들이 예속되어 있는 수많은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이를 비판했다.<sup>18)</sup>

아르메니아인들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 지구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 귀속된 후 소비에트 시대에 누적시켜 온 불만 중에는 앞서 제시한 언어·문화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조건 외에 근본적인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종교문제의 상위에 따른 아제르바이잔인들과의 반목이다, 즉 기독교(아르메니아)와 이슬람(아제르바이잔)간의 적대감은 양 민족 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깊은 골을 만들어 주었다. 한 마디로 ‘민족종교’라고 볼 수 있는 양 민족의 종교는 민족문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또한 소련체제 하에서 소비에트 당국의 반종교운동이 민족의식을 억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종교정책 자체가 민족정책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반체제적인 저항도 상당 정도 종교문제와 관련되어 민족문제화 된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아르메니아의 기독교와 아제르바이잔의 이슬람은 민족의 역사와 정신적 자산을 상징하는 가치체계로써 상대방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해왔다.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자의 행동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특기할만한 사건은 1979년 1월 3명의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자들이 2년 전에 모스크바의 지하철 폭파를 기도했다는 혐의로 사형에 처해지면서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일이다.<sup>20)</sup>

민족의식이 강한 아르메니아인들이 국내에서는 민족운동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해외에서도 테러조직을 조직하여 터키에 대해 보복을 가하는 등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아르메니아로 귀속시키려는 움직임이 소비에트 시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표출되었으며, 1985년 소련에서 고르바초프(M. Gorbachev)가 서기장에 취임하고 나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된다.

### Ⅲ.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경과: 1985~2013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는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분쟁은 소비에트 말기에 분출했던 소련의 수많은 민족분규 중에서 분쟁의 성격 면에서 가장 처절하고, 분쟁의 규모와 지속성 측면에서도 단연 대표적인 분쟁으로 손꼽혔다. 소련 통치기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지역에서 형성되었던 아르메니아인들의 불만은 그 지역에서의 비참한 상태에 책임을 져야하는 아제르바이잔 당국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켰고,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내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겪었던 민족적·사회적 모순이 혼합하여 강력한 정치적 폭발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 폭발성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생생하게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고르바초프가 도입한 개혁·개방의 여파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불만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이른바 ‘카라바흐 캠페인’(Karabagh

18) Mark Saroyan, “The ‘Karagagh Syndrome’ and Azerbaijani Politics,” *Problems of Communism*, vol. 36, no. 5 (1990), p. 17.

19) 우평균(1992), pp. 59-60; Barbara Wolfe Jancer, “Religious Dissent in the Soviet Union,” in Rudolph I. Tokes (eds), *Dissent in the USSR*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p. 229.

20) “아르메니아 신저항”(The New Armenian Resistance)이라는 조직에 의한 공격으로 추정되는데, 모스크바 지하철 폭파 혐의는 이들에 의한 테러 공격의 시초로 여겨진다. 이 조직은 1982년까지 이후일어난 14건의 일련의 테러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았는데, 아르메니아인 디아스포라(Armenian diaspora)가 세계 각지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자행한 테러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특징을 지녔다. Frans P. Hyland, *Armenian Terrorism: The Past, The Present, The Prospect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1), pp. 77-79.

campaign)을 전개하게 만들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지역과 관련된 저항은 1985년과 1987년 사이에 극적으로 증가했다. 당시에 이미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 내각회의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문제에 대해 수 천명의 사람들이 보내는 집단적인 청원 편지들을 받았고, 이 편지들에는 예레반으로부터 나고르노 카라바흐로의 T.V. 방송 허용과 두 지역 간의 도로연결 개선,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박해 중단 같은 요구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sup>21)</sup>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있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압도적 다수는 아르메니아 공화국과의 통합을 지지했고,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한 해결을 모스크바에 요구했다. 1988년 2월 22일에 아제르바이잔에서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분리시키는 행위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인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알려지자 아르메니아인들은 이에 반발하는 시위를 조직화하기 시작했다.<sup>22)</sup>

나고르노 카라바흐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와 스트라이크가 예레반에서 개최되어 2월 26일까지 약 일백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가두로 나섰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아르메니아 활동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속하여 아르메니아인들을 진정시키는데는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소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월 27일에 바쿠 라디오는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의 불안과 관련되어 2명의 아제르바이잔 청년들이 죽었다고 보도했고, 27일과 28일에는 이에 맞서 아제르바이잔의 숨가이트(Sumgait) 시에서 아제르바이잔인들의 보복적인 폭력이 발생했다. 아제르바이잔 군중들이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저지른 약탈과 살인의 지옥과도 같은 3일이 지난 후 32명이 죽었고, 수 백 명이 다쳤음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수 만 명이 생존을 위해 대피했다.<sup>23)</sup>

숨가이트에서의 비극은 양 공화국의 국경을 넘어 생존을 위한 탈출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1989년 여름부터 약 20만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탈출했고, 약 16만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아르메니아에서 탈출했다. 숨가이트에서의 피의 살육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성격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숨가이트 사태는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양 쪽에 적대감을 심화시켰고, 양 쪽 모두에게 폭력행사를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sup>24)</sup>

연방 중앙의 소비에트 언론은 처음에는 숨가이트의 비극을 ‘깡패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으나, 아르메니아 소식통들은 그것이 숨가이트 시민들과 아제르바이잔 당관리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만행으로써, 아르메니아인들을 목표로 해서 잘 조직된 ‘소수민족 학살’이었다고 주장했다.<sup>25)</sup> 숨가이트에서 발생한 비극에 대한 아르메니아인들의 분노와 절망은 1988년 3월 말 모스크바 당국이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대한 기존의 영토적 지위 고수 입장 표명이 있게되자 더욱 가중되었다. 연방정부가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있어서의 사회문화적 발전도모를 내용으로 하는 8개년 발전 프로그램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했고 아제르바이잔인들과의 상호 폭력은 증대되기만 했다.

1988년 여름동안 나고르노 카라바흐와 아르메니아에서의 시위가 지속되었고 9월에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8월에는 2월 당시보다 더 큰 분쟁이 발행하였는데, 바쿠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대량 학살되었고 이에 양 민족 간의 폭력행사가 확산되었다. 결국 사태가 견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자 소련군이 파견되어 치안을 통제하고 통금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9월 21일 나고르노 카라

21) Niall M. Fraser, Keith W. Hipel, John Jaworsky, Ralph Zulian (1990), p. 657.

22) Niall M. Fraser, Keith W. Hipel, John Jaworsky, Ralph Zulian (1990), p. 658.

23) 당시의 주요한 사건 일지는 Teresa Dragadze (1989), pp. 55-57. 참조

24) 우평균(1992), p. 78.

25) Borris Kargarlitsky, *Farewell Perestroika* (London: Verso, 1990), p. 69.

바흐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모스크바는 아르메니아의 활동가들을 탄압하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1990년 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반아르메니아 대중시위가 발생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소련군을 파견하여 전투를 하기에 이르렀다.

1991년 9월 2일에 아르메니아인들은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Nagorno Karabagh Republic, NKR)의 수립을 선포하고, NKR을 자위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조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 있어 하나의 전기가 마련된 것은 1991년 8월 미수에 그친 쿠데타 이후의 정세를 통해서였다. 당시까지 사태를 전혀 수습하지 못했던 고르바초프가 겪은 정치적 시련 이후에 상대적으로 부각된 옐친(Boris Yeltsin) 러시아공화국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N. Nazarbayev) 카자흐공화국 대통령의 왕복 외교 결과 1991년 9월 23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한 가운데 평화회담이 열렸다.<sup>26)</sup> 이같은 화해의 분위기가 발전하여 1991년 11월에는 양 공화국간 접경지대에 10km에 달하는 완충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는 등 작게나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11월 20일 아르메니아인들이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가라켄드(Garakend) 마을 근처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고위 관료와 아제르바이잔의 고위 지도자를 신고 가던 헬리콥터에 사격을 가해 22명이 사망함으로써 양 국 대통령이 분쟁해결을 위해 시도했던 첫 번째 노력이 무산되고, 이후 폭력사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도



출처: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war/nagorno-karabakh-maps.htm>  
(검색일: 2013.4.12).

1992년부터는 양 국이 ‘유럽안보협력기구’(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에서 OSCE로 전환)에 가입하면서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의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중재노력이 시작되었다. 반면에 아르메니아 측의 공세가 두드러졌던 한 해이기도 했다. 2월 25일 아르메니아 무장 세력과 러시아의 366연대가 연합하여 나고르노 카라바

26)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September 24, 1991.

호 지역 내 아제르바이잔인 거주지인 호잘리(Khojali) 시를 공격하여 613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467명이 부상당했다. 아제르바이잔 측에서는 1275명이 인질로 잡혀가고, 150명이 실종되었다고 한다.<sup>27)</sup> 당시에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지지하게 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엘치베이(Elchibe)가 이끄는 아제르바이잔 민족전선이 집권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바쿠가 러시아에서 친터키로 정치 노선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sup>28)</sup> 어쨌든 1992년 말이 되면 아르메니아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 동년 5월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미국, 러시아 및 터키가 주도하여 완성한 평화안을 채택하였지만, 아르메니아 측의 공세적 행위는 1993년까지 계속되었다. 1993년에는 UN 안보리에서 공격 중지와 아르메니아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세 차례 채택되었다.<sup>29)</sup> 국제사회가 시도했던 수차례의 평화중재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1993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UN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한 끝에 1994년 5월 초 휴전에 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1994년 후반에 모스크바에서 휴전 중재안이 타결되었다. 러시아는 동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지역안정 및 휴전 상태를 감시하는 등 분쟁 재발을 위해 노력했다. 1994년 12월에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로베르트 코차리안(Robert Kocharyan)이 선출되었다.

휴전협정에는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파견이 제시되었는데, 다국적군 중에 러시아군의 병력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었다.<sup>30)</sup> 1997년 8월에는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정상 간에 정치·경제·군사협력 증진 및 상대국 피침 시 군사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둘러싼 분쟁 당사국들의 이해관계 충돌은 지속되었고 이를 해결할 가능성이 그다지 없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더구나 분쟁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재에 나선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들(UN, EU, NATO, CSCE 등)이 증가하면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이 더욱 조정하기 힘든 국면으로 사태가 진전된 측면이 있다.<sup>31)</sup>

## IV. 국제적 중재노력 및 대안 모색

### 1. OSCE의 중재노력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이 격화되고, 국제사회가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고 점차 국제적 개입이 확대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국제기구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였다. 또한 범유럽 차원에서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도 개입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UN도 계속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자적 중재의 본질적 한계에 봉착하는 등, OSCE가

27)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분쟁 역사적 사실과 전개 내용(2013).”

28)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에 군사적, 물량적 지원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엘치베이 정권을 압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친러적 성격을 가진 아제르바이잔 세력을 통해서 엘치베이를 축출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Revaz Gachechiladze, "Geopolitics in the South Caucasus: Local and External Players," *Geopolitics*, vol. 7, no. 1 (2002), pp. 130-133.

29) 모든 결의안에서 아르메니아는 침략국으로 명확히 명시되지는 않고, ‘점령군’으로 표현되었다. Elizabeth Fuller, “The Karabakh Mediation Process: Grachev versus the CSCE?” *RFE/RL Research Report* (10 June 1994), pp. 15.

30) Elizabeth Fuller (1994), p. 16.

31) Jim Nichol, “Armenia, Azerbaijan, and Georgia: Political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for Congress 7-5700, April 9, 2009, pp. 22-23.

민스크 그룹(Minsk Group)을 조직하여 다년간에 걸쳐 분쟁을 중재하고 평화안을 도출하려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sup>32)</sup>

1992년 1월30~31일 CSCE 위원회의 두 번째 회동이 프라하에서 개최되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CSCE 회원국으로 승인되었다. 2월 28일 제7차 OSCE 고위 관료 회의가 프라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의 즉각적인 휴전과 국경 불가침을 요구했다. 이 회의에서 국경의 변경은 평화적인 방법과 상호간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천명하였고, 모든 영토에 대한 주장을 거부하며, 모든 적대적 선전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월 24일 CSCE 위원회의 추가 회의가 헬싱키에서 개최되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분쟁에 대한 회의를 CSCE의 지원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CSCE 차원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가 계속 진행되었고, 1994년 12월 5~6일에 CSCE 부다페스트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과 관련하여 CSCE의 행동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문건과 관련하여 민스크 회의 공동위원회 기구(Co-Chairs of the Minsk Conference)를 설립해서 “무력 분쟁의 중단과 갈등 당사자에게 초래될 부정적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정치협약 도출을 위해 신속한 협상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부다페스트 정상회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2단계로 이루어진 법적인 기본틀을 채택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합의문 실행을 통해 무장 분쟁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를 예방한다. 즉, 모든 점령지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피난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2) 2단계-민스크 회의를 마지막으로 소집해서 분쟁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민스크 정상회의는 정치협약 채택 이후에도 OSCE 평화유지군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995년에는 분쟁 중단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었고, 1996년 12월 2~3일에 OSCE 리스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OSCE 의장은 아르메니아를 제외한 53개의 OSCE 회원국 모두가 동의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분쟁 해결을 위한 3가지 원칙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1)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권 2) 아제르바이잔 내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합의문에 따른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법적 지위 3) 갈등해소를 위한 조항을 당사자들이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을 포함해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안전 보장 및 이 지역 모든 주민에 대한 안전 보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7년 1월에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간의 OSCE 민스크 회의 “3국” 의장제가 도입되었다. 4월 22일에 유럽의회는 트랜스코카서스 지역의 분쟁에 관한 의결안(1119)을 채택하여 1975년 헬싱키 협정과 1990년 파리 의정서에서 제시한 원칙들에 기초해 이 지역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경 불가침 원칙 2) 해당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 대한 안전 보장, 특히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평화유지군을 통한 안전 보장 3) 아브카지아와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자치를 위해 관련 당사국 모두가 협상에 참여 4) 피난민들의 복귀 및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

1997년 6월 1일 민스크 회의 공동의장은 분쟁 해결을 위한 “패키지 플랜(package plan)”을 도입했다. 이 플랜의 기본 관점은 점령지에서 점령군의 철수와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두가지 핵심 문제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 계획을 반대했던 아르메니아와는 달리 아제르바이잔은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sup>33)</sup>

동년 9월 19일 민스크 회의 공동의장이 “단계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다음 계

32) OSCE의 중재노력에 대한 일지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분쟁 역사적 사실과 전개 내용(2013).” 참조.

33) 아제르바이잔은 현재까지도 이 안의 기본적인 입장을 따르고 있다.

획에 따라 2단계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과거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외곽의 6개 지역(라친(Lachin) 지구 제외)에서 점령군을 철수시키고, 민간인을 복귀시키며, 분쟁지역에 주요 통신망을 복구한다. 2단계는 라친과 슈사(Shusha) 지역과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지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sup>34)</sup>

1997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모든 성원들이 참가한 OSCE 민스크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민스크 회의 공동의장국들에서는 계속 중재안을 모색했다. 그 일환으로 1998년 11월 9일 공동의장은 “공동 국가(common state)”로 불리는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 해결방안이 아제르바이잔 법제와 불일치할 뿐 아니라 국제법의 기준이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제르바이잔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아제르바이잔은 OSCE 민스크 회의가 이전에 제시한 단계적 해결방안의 틀 안에서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에는 민스크 회의 공동의장이 분쟁 문제에 대한 협상을 전담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대통령의 특사를 임명할 것을 제안하여 특사 간의 회담이 세 차례 개최되기도 했다.

2004년에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OSCE 민스크 그룹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회담을 계속했다. 동년 10월 14일 아제르바이잔은 제 59차 UN 총회 의사진행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강제 점령지 상황” 문제를 추가 항목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10월 29일 UN 총회는 사무국의 추천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강제 점령지 상황”을 추가 의제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동 추가 의제 163호를 놓고 UN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sup>35)</sup> 동년 12월 6~7일 제 12차 OSCE 장관회담이 소피아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 대한 장관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해결을 위해 2004년에 이루어낸 성과, 특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간의 3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소위 ‘프라하 절차’라는 합의문을 채택, 이를 통해 양국 외무부 장관이 만나 앞으로의 분쟁해결을 위해 모든 측면을 재검토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이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낸 프라하 절차에 대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아제르바이잔 내 아르메니아의 점령지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등<sup>36)</sup> 국제법에 근거할 때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계속 노정되었다. 민스크 회의 공동의장의 중재로 양국 간 협상 및 양국 정상들의 수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1994년 체결된 정전 상태에서 더 이상의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평화회담은 2009년부터 오히려 교착되기 시작하면서 양국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상호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34)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s/articles/eav012205a.shtml>(검색일: 2013.4.13).

35) Patricia Carley, *Nagorno-Karabakh Searching for Solution*, A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Roundtable Report, no. 25, <http://www.usip.org> (검색일: 2013.1.15)

36) 2010년 5월 NKR에서 총선이 실시되어 아라 하루투이안(Ara Harutyrian)의 자유조국당(Free Homeland Party)이 46%의 지지를 얻어 승리하고 아쇼트 길리안(Ashot Ghulian)의 알차크 민주당(Democratic Party of Artsakh)은 30%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다쉬나크수툰 당(Dashnaksutyun Party)가 22%를 획득했고, 공산당은 4%를 넘기는데 실패했다. 이 선거는 민스크 그룹의 중재국인 러시아, 프랑스 및 미국이 불법선거로 간주했다. 아르메니아는 독립에 대한 결의라며 선거결과를 환영했으나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의 영토 합병 시도의 또 다른 실패작이라며 선거를 비난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분쟁 역사적 사실과 전개 내용(2013).”

## 2. 분쟁의 쟁점과 대안 모색: 국제법의 한계와 현실정치

유럽은 물론 북미대륙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들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OSCE가 오랫동안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은 지적한 바와 같다. 양 국 간 합의 도출이 실패하는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아르메니아가 주장하는 ‘민족자결의 권리’(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와 아제르바이잔이 주장하는 ‘영토보전의 원칙’(the right of territorial integrity)이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sup>37)</sup> PACE(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에서 2005년 1월 25일 공표한 결의안 1416호에서는 “한 국가의 영토의 독립과 탈퇴 문제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민주적 지지에 기초한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민족 추방이나 그 영토에 대한 강제 합병을 초래하는 무력 분쟁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점에 있어 아르메니아인들은 민족자결권을 우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영토보전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즉 자결권이 우선인가, 영토권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리적 대결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와 국제법 학계는 대체로 자결권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제르바이잔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이 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38)</sup> 반면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민족자결의 원리’를 주장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sup>39)</sup> 이에 착안하여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과 같이 영토와 정체성이 연계된 분쟁의 경우 규범적 접근보다는 창조적이고 초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40)</sup>

국제관계에서 민족자결의 원리와 영토보존의 원칙이 사실상 서로 모순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양 개념이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만은 아니다. 즉, 민족자결권은 영토보존의 원칙과 대립하지 않으면서 실현될 수도 있다. 하나의 사례가 ‘내부적인 자결’(internal self-determination)인데, 여기서 자율성(autonomy)은 영토보존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sup>41)</sup>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과 모순되는 것은 결국 ‘분리’(secession)

37) Andrew F. Tully, “Armenia: Yerevan May Be Losing a Diplomatic Battle,” *RFE/RL*, September 18, 2000.

38) PACE의 특별 서기관이자 이 지역 분쟁의 해결방안 및 추천방안의 작성자이기도 한 데이비드 아트킨슨(David Atkinson)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분쟁 역사적 사실과 전개 내용(2013).”

39) 결과적으로 분리를 요구하는 현대의 정치적 운동이 ‘자결’의 명시적인 목표를 둘러싼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빈번하게 폭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40)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제시하고 있는 ‘연합적 자치’(Confederal Autonomy)가 대표적이다. Johan Galtung, *A Theory of Conflict: Overcoming Direct Violence* (Oslo: Kolofon Press, 2010), pp. 64-65; Ki-Joon Hong, “The OSCE’s Intervention in the Nagorno Karabakh Conflict: Limit and Remedy,”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2010년 여름), pp. 381-404.

41) 민족자결은 두 가지 구분되는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내부적인 자결’(internal self-determin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인 자결’(external self-determination)인데, 양 자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자결권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적인 자결’이란 한 국가 내에서의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와 본질적으로 연관된다. 국가는 소수민족에게 그들의 언어사용과 문화적 관행, 정치공동체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장되면 민족이 내부적인 자결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외부적인 자결은 식민 영토, 대외적 군사 점령과 정부 기관에 특정 민족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데 국한된다. 자결의 외부적인 측면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권리와 예측과 지배, 착취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국제사회가 원칙을 갖고 있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Marcelo G. Kohen, *Secessio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Dinah Shelton, “Self-Determination and Secession: The Jurisprudence of

이다.<sup>42)</sup>

영토보존 원칙의 기원은 양 차 대전 이후에 출현했던 국제질서에 대한 현상 유지를 지속시키는데 있었는데, 특히 현상유지는 양차 대전 이후 독립이 인정된 소국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영토보존의 원칙에 대한 제한은 특정한 요건 속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민주정부를 구성할 의무 2) 인권을 보호할 의무 3) 민족자결 원칙을 인정할 의무 4) 오염의 확산을 억제할 의무 5) 영토 혹은 대기나 해상에서의 우발적 사고 6)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의거하여 존중되는 의무. 따라서 '분리'는 영토보존 원칙에 대한 제한에 포함될 수 없다. 즉 국제공동체가 분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영토보존의 사유인 것이다.<sup>43)</sup>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갈등은 소련의 붕괴 이전에 시작되었고, 국가가 아닌 한 지역 내의 아르메니아 무장 세력이 공격을 감행하여 전쟁으로 촉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UN 안보리에서도 지적했듯이, 해당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하는 원칙을 강조할 수 있다.<sup>44)</sup>

분리에 대한 국제법적인 논리가 상기한 것처럼 나름대로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에서 국제법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이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도 약 20년이 되어가지만, 아르메니아와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dnistria)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NKR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역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미승인국가이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회의”에서 규정한 4가지 국가에 요구되는 요건-영구적인 인구, 규정된 영토, 정부, 다른 나라와 대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sup>45)</sup>-중에서 한 가지인 외교능력이 결여된 상태의 국가 아닌 국가로 상태로 존재해 왔다.<sup>46)</sup> 결국 NKR은 법적으로 국가로 행세할 수 없지만, 국제사회가 그 국가를 폭력으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을 국제사회가 국가로 인정할 의무는 없지만, 점유자(an occupier)가 사실상의 '권위'(authority)를 갖고 있으므로 현실정치적으로 '사실상의'(de facto) 정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서 해결책으로 제안된 중요 요소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아르메니아가 지원하는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무장세력이 아제르바이잔에 둘러싸인 점령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은 무력을 사용하여 빼앗긴 영토를 찾으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국제평화유지군을 배치한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되돌아와야 한다. 무역과 통신망을 재개해야 한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지위는 국제사회의 감시하에 카라바흐의 아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ibunals,” in Julie Dahlitz, *Secession and International Law: Conflict Avoidance Regional Appraisals* (The Hague: T.M.C. Asser Press, 2003).

42) Alain Pellet, “The Opinions of the Bandinter Arbitration Committee: A Second Breath for the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 no. 1 (1992), pp. 184-185.

43)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113; William E. Burtler, “Territorial Integrity and Secession: The Dialectics of International Order,” in Julie Dahlitz (2003).

44) Tim Potier, *Conflict in Nagorno-karabakh, Abkhazia and South Ossetia: A Legal Appraisal* (The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1), pp. 35-40.

45)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December 26, 1933, 49 Stat. 3097.

46) 나고르노 카라바흐 공화국을 국가로서 인정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은 국가 구성의 요건으로 ‘다른 나라와 대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대신 ‘외국과 교류하는 정부’를 들고 있다. 이 정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레바논, 독일, 호주와 아르메니아에 대표국을 두고 있으며,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타결을 위한 각종 국제회담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외교적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hahen Avakian, *Nagorno-Karabagh: Legal Aspects* (Yerevan: “Tigran Mets” Publishing House, 2010), pp. 27-30.

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바이잔인들 만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단 이 조치는 상기의 다른 사항들이 모두 이행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남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치단위가 되며, 국제사회가 잠정적인 국가(interim status)로 인정할 것이라는 논리이다.<sup>47)</sup> 그렇지만 국민투표가 어떠한 간에 양 국가와 나고르노 카라바흐 측은 모두 국민투표가 유용하게끔 만드는 일부 조항들을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협상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합의를 이루려는 의지없이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OSCE와 NGO인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합의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sup>48)</sup>

1. 갈등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1994년 정전 정신을 존중하여 무력 사용 금지, 무력 촉발 행위 금지 및 전쟁에 대비해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군비 경쟁을 종식해야 한다.

2. 사실상 존재하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정부는 (a) 점령지에서의 토지, 주택 사유화 및 비즈니스 중단 (b)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인접한 점령 지역에서의 지방 행정 및 인프라구조를 구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c) 남아있는 아제르바이잔 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는, 갈등해결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거에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다수를 이루어 살고 있던 곳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아르메니아는 사실상 갈등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나고르노 카라바흐 정부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3. 협상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분쟁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언급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a) 평화협정 이행과 관련되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무력행사를 하려는 시도의 포기 (b) 협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과 나고르노 카라바흐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OSCE 가 의장을 맡는 합동위원회의 창설 (c)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변의 점령 지역으로부터 아르메니아가 지원하고 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무장세력의 점진적인 철수, 이 철수는 점령지 다섯 군데에서 시작되고 국제평화유지군의 전개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d) 아르메니아가 지원하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무장세력이 일단 켈바자르(Kelbajar) 지역에서 철수하고 무로프(Murov) 산악 지대에서 적절한 보안 조치가 취해지고, 라친 회랑을 통과하는 통행을 보장함으로써 라친 지역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e) 점령세력의 철수와 국제 평화유지군의 진주가 동시에 완료되면, 과거 점령 지역에서 전쟁 전에 자신의 가정을 갖고 있었던, 생활 기반을 빼앗겼던 사람들의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f) 모든 바리케이드의 철거와 분쟁의 결과로 폐쇄되었던 모든 수송 수단과 도로와 철도를 포함한 운송 통행 재개를 포함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g) UN, 적십자사의 국제위원회, OSCE와 NGO를 포함한 국제 기구들과 협력하여 신뢰 구축 조치들을 이행한다. (h)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최종 지위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준비체제의 구축,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나고르노 카라바흐가 잠정적 지위를 획득할 때까지의 조항들이 필요하며, 국제 감시 하에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지위를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수용하고 아르메니아인들에게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한 켈바자르와 라친에서 철수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켈바자르에서의 철수는 아르메니아에게는 최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타결은 국가의 지위를 얻는 주민투표 이후에 가능하다면서 앞선 조건들과 선후 관계가 바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측에서는 켈바자르에서 만약 아르메니아가 철수하면 아제르바이잔 측에

47) International Crisis Group, *Nagorno Karabakh: A Plan for Peace*, Europe Report, no. 167 (October 11, 2005).

48)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5).

서 주민투표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렇게되면 아르메니아는 협상 수단을 상실하게 되고, 나고르노 카라바흐가 군사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위험에 노출된다고 생각하고 있다.<sup>49)</sup>

아제르바이잔 측은 아르메니아 측의 의심에 대해 켈바자르가 주민투표를 하는데 있어 인질이 되어서는 안되며,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난민이 되어 터전을 잃어버린 44,000명의 아제르바이잔들이 즉각 귀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켈바자르와 주민투표 간의 어떠한 연계도 부인하면서 무력 사용 포기과 평화유지군 주둔이 아르메니아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4.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최종적 지위는 자결의 원칙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a) 나고르노 카라바흐 내에서 과거에 아제르바이잔인이 다수였던 지역으로 피난을 갔던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국제협상 결과 나고르노 카라바흐가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 같은 국가 총족의 국제적 요건을 갖췄다고 규정하고 나서 국민투표가 행해져야 하는데, 나고르노 카라바흐가 국가로서 적합한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평화조약 조인 후 최초의 5년 동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b) 나고르노 카라바흐에게는 아제르바이잔과의 병합 혹은 분리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적절한 선택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c)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바이잔인들만 참여해야 한다. (d) 모든 참여 세력들이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것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OSCE가 의장을 맡는 회담에서 적합한 조약의 양식을 만든다.

국제기구와 NGO 측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에 분리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주민투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 측은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 분리, 즉 독립을 선택 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보는 반면에, 아제르바이잔은 아제르바이잔 헌법상 분리를 다루는 주민투표는 허용될 수 없으며, 전국적 범위에서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5.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정부 관리들과 매체들은 상대방에 대해 호전적이고 외국인혐오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협상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관리들은 절차에 관한 정보를 확산하는데 합의해야 하며, 대중들에게 가능한 협상의 요소들을 알리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고도로 민감한 문제에 관한 논쟁을 회피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대중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취해진다.

6. 신뢰를 쌓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기부자들이 재난에 대한 대응책을 포함하여 소규모, 국경간, 지역간 교역 및 인도적이면서 공중 보건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해야 하며, 적대적 상대였던 시민사회, 교사와 언론인들 간에 이해 증진, 관용과 화해를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일단,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국제기부자 회의를 개최하여 과거에 적대적이었던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각각 전쟁 범죄를 조사하여 책임 여부를 가리고, 갈등에 참여는 했지만 심각한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면을 시행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갈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정치적인 조사를 하고, 양국 간 자산 회복과 보상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동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8. UN 안전보장이사회, OSCE, EU 내각회의는 평화협정에 대한 전망을 확대하고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의 보장자들이 협정을 이행할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9) "Minsk Group Plan largely Acceptable to Armenia, Insisits Oskanian," *Armenian Liberty*, 30 June, 2006.

OSCE는 공동의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방 수준에서 합의 사항이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사회, 미디어와 야당 세력을 포괄해야 하며, 점령지역 내 정치, 인권 및 선거와 관련된 요원들을 주재시킨다. EU는 동 지역에 남부 코카서스 특별위원회의 사무실 본부를 개설하여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EU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과 장기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가 이처럼 이론적으로 거의 완벽한 분쟁 해결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장애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제르바이잔인들과 아르메니아인들 간의 역사적 불신 및 이로 인한 상호 불신이며, 피난민 문제나 안보 문제,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다.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바이잔인들이 공히 갖고 있는 관념, 즉 카라바흐 갈등이 자신들 두 민족 간의 문제라고 믿고 있는데에서 탈피해야 한다. 물론 내용적으로 두 민족 간의 갈등이라는 점은 맞지만, 분쟁이 너무 격화되어 국제사회가 중재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국제법 학자 발라예프(Bahruz Balayev)는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놓고 벌이는 양 민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업체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의 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협업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들-대연정(Grand Coalition), 상호 비토(mutual veto), 비례의 원칙(proportionality principle), 분절적 자율성(segmental autonomy)-을 존중할 때 협상 타결은 물론 평화 협정 체결 이후에도 양 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50)</sup>

캠벡(Michael Kambeck)은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 단기적으로는 전쟁을 피하고, 더 나아가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으로 10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 ① 협상 과정에서의 장애물은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
- ② 민스크 그룹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 ③ 민스크 그룹은 협상 형식에서 더욱 장애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 ④ 아제르바이잔은 전쟁위험을 중단하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 ⑤ 단기적으로 합의된 신뢰 구축 조치들이 이행되어야 한다.
- ⑥ 휴전 강화 조약이 조인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 ⑦ EU는 모든 분쟁 세력들에 대해 포괄적인 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⑧ EU는 평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 ⑨ EU는 전쟁이 왜 발발해서는 안 되는지 정확하게 공표해야 한다.
- ⑩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측은 자신들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점(time plays)을 인정해야 한다.<sup>51)</sup>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각자 주장하는 민족자결과 영토보전에 대한 원칙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양자가 혼재해있는 상황에서 최초 분쟁 발생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는 과거의 보스니아(Bosnia)나 코소보(Kosovo) 사례처럼 민족자결 원칙이 관철되어 종국적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

50) Bahruz Balayev (2013), pp. 217-220.

51) Michael Kambeck, “Conclusion: Realistic Scenarios and How to Avoid a War in Nagorno-Karabakh,” in Michael Kambeck and Sargis Ghazaryan (eds), *Europe’s Next Avoidable Wa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pp. 245-251.

는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아르메니아에 불리하며, NKR 독립 선언 이후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르메니아를 제외하고는 외교적으로 독립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아르메니아는 과거에 아제르바이잔 지역이었던 7개의 지역을 점령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반면에 아제르바이잔은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체 영토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영토를 상실하고 약 백만 명의 난민을 안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양국이 협상을 통해 평화를 되찾으려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각자 양보해서 협상을 타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양국이 다시 출발하는 길 밖에 없으며, 협상을 위해 힘써온 중재자들과 그들이 준비해 온 안을 중시하는 태도도 역시 중요하다.

## V. 결론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은 20세기 소련의 민족정책의 산물이지만 소련이 붕괴하고 난 뒤에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특이한 사례이다. 그동안 아르메니아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자결권과 아제르바이잔 측이 고수하고 있는 영토권이 서로 접점을 찾을 만한 계기도 발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도 했다. 또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상호 인정과 존중의 정신이 갑자기 조성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전망을 한다면 현재와 같은 정전 상태에서 당분간 교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측에 유리하지만 이를 강제할만한 권한과 의지를 국제기구와 중재국들이 갖고 있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전쟁을 통해 아르메니아를 굴복시키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를 타파하고 과거 소련시대의 경계로 돌아갈 방법도 없다. 국제사회는 무력을 배제한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무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없다. 다만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량학살을 하거나 인도주의적 원칙에 반하는 잔학행위를 할 때, UN이나 OSCE 등에서 과거 수단이나 시리아에서처럼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의해 무력 개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은 다민족 국가에서 민족정책의 난점을 예증해주는 역사적 경험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대 민족 국가의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속성을 21세기에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실체로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소비에트 정부 초기 스탈린이 주도했던 민족정책의 실체와 폐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으로 갖고 연구해야 하는 과제도 남겨주고 있다.

본문에서 제시했던 국제법 원칙과 현실정치 간의 괴리는 국제정치의 속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제법 원칙에 충실하려는 태도는 독립을 열망하는 민족들과 평화를 갈망하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리주의적인 운동에 대해서도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은 단순히 과거사 혹은 민족분쟁의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반드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민족갈등의 표본과도 같은 비중을 지니고 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이 발생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상기한 분쟁의 속성 자체는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해결에 있어 풀기어려운 새로운 요소들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의 가장 주요한 당사자인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바이잔인들이 협상을 통해 예비적인 원칙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추진하려는 기운이 생성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결국 이 점은 양국은 모두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무력을 동원하

여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전쟁 상태로 되돌아가기에는 지쳤고 회복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같은 미세한 변화의 양상은 현 시점에서 분쟁의 양 당사자와 국제기구 및 유관국들이 지혜를 모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민스크 그룹의 노력과 합의안이 빛을 보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향후에도 꾸준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결국 20세에 본격화된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이 20여 년이 지난 21세기 초에도 지속되고 있고, 향후에 협상의 결정적인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 상태처럼 불안한 정전체제가 유지된다면 21세기의 미래 시점 언젠가 다시 분쟁이 격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제사회는 접근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우평균, 『페레스트로이카와 민족문제: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지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학위 논문(1992).
-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분쟁 역사적 사실과 전개 내용,”  
[http://www.azembassy.co.kr/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5&1](http://www.azembassy.co.kr/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85&1)  
 (검색일: 2013.4.12).
- Alexeyeva, Ludmilla, *Soviet Dissent: Contemporary Movements for National Religious and Human Rights*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5).
- Avakian, Shahan, *Nagorno-Karabagh: Legal Aspects* (Yerevan: “Tigran Mets” Publishing House, 2010).
- Burtler, William, “Territorial Integrity and Secession: The Dialectics of International Order,” in Julie Dahlitz, *Secession and International Law: Conflict Avoidance Regional Appraisals* (The Hague: T.M.C. Asser Press, 2003).
- Cassese, Antonio,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Carley, Patricia, *Nagorno-Karabakh Searching for Solution*, A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Riundtable Report, no. 25, <http://www.usip.org> (검색일: 2013.1.15.).
- Davis, Horace, *Toward A Marxist Theory of Nationalism*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 Dragadzem, Tamara, “The Armenian-Azerbaijani Conflict: Structure and Sentiment,” *Third World Quarterly*, vol. 11, no. 1 (January 1989).
- Fraser, Niall, Keith W. Hipel, John Jaworsky, Ralph Zulian, “A Conflict Analysis of the Armenian-Azerbaijani Dispute,”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4, no. 4 (December 1990).
- Fuller, Elizabeth, “The Karabakh Mediation Process: Grachev versus the CSCE?” RFE/RL Research Report (10 June 1994).
- Gachechiladze, Revaz, “Geopolitics in the South Caucasus: Local and External Players,” *Geopolitics*, vol. 7, no. 1 (2002).
- Galtung, Johan, *A Theory of Conflict: Overcoming Direct Violence* (Oslo: Kolofon Press, 2010).
- Ginat, R. & Vaserman, “National Territorial or Religious Conflict? The case of Nagorno-Karabakh,”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vol. 17, no. 2 (1994).
- Hong, Ki-Joon, “The OSCE’s Intervention in the Nagorno Karabakh Conflict: Limit and Remedy,” 『유럽연구』 제28권 제2호(2010년 여름).
- Hyland, Frans, *Armenian Terrorism: The Past, The Present, The Prospect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1).
- International Crisis Group, *Nagorno Karabakh: A Plan for Peace*, Europe Report, no. 167 (October 11, 2005).
- Jancer, Barbara Wolfe, “Religious Dissent in the Soviet Union,” in Rudolpe I. Tokes (eds),

- Dissent in the USSR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 Kargarlitsky, Boris, Farewell Perestroika (London: Verso, 1990).
- Kambeck, Michael, "Conclusion: Realistic Scenarios and How to Avoid a War in Nagorno-Karabakh," in Michael Kambeck and Sargis Ghazaryan (eds), *Europe's Next Avoidable Wa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3).
- Kohen, Marcelo, *Secessio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Mikaelian, Vardges & Lendrush Khurshidia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History of Mountainous karabagh," *Armenian Review*, vol. 43, no. 2-3 (Summer/Autumn, 1990).
- Mouradian, Claire, "The Mountainous Karabagh Question: Inter-Ethnic Conflict or Decolonization Crisis?" *Armenian Review*, vol. 43, no. 2-3 (Summer/Autumn, 1990).
- Nichol, Jim, "Armenia, Azerbaijan, and Georgia: Political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for U.S. Interes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for Congress 7-5700, April 9, 2009.
- Pellet, Alain, "The Opinions of the Bandinter Arbitration Committee: A Second Breath for the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 no. 1 (1992).
- Potier, Tim, *Conflict in Nagorno-karabakh, Abkhazia and South Ossetia: A Legal Appraisal* (The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1).
- Saroyan, Mark, "The 'Karagagh Syndrome' and Azerbaijani Politics," *Problems of Communism*, vol. 36, no. 5 (1990).
- Shelton, Dinah, "Self-Determination and Secession: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ibunals," in Julie Dahlitz, *Secession and International Law: Conflict Avoidance Regional Appraisals* (The Hague: T.M.C. Asser Press, 2003).
- Smith, Hedrick, *The New Russians* (New York: Random House, 1990).
- Ternon, Yves, *The Armenian Cause* (Delmar, N.Y.: Caravan Books, 1985).
- Tully, Andrew F., "Armenia: Yerevan May Be Losing a Diplomatic Battle," RFE/RL, September 18, 2000.
- Rubenstein, Joshua, *Soviet Dissidents: Their Struggle for Human Rights* (Boston: Beacon Press, 1980).
-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December 26, 1933, 49 Stat. 3097.
- "Minsk Group Plan largely Acceptable to Armenia, Insists Oskanian," *Armenian Liberty*, 30 June, 2006.
- "Nagorno-Karabach - Background,"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war/nagorno-karabach-1.html> (검색일: 2013.4.10).
- <http://www.eurasianet.org/departments/insights/articles/eav012205a.shtml>(검색일: 2013.4.13.).
-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September 24, 1991.



## 러시아연방 북카프카스 지역의 테러와 분쟁 확대<sup>1)</sup>

현승수(한양대)

### I. 서론

러시아연방 서남부에 위치한 북카프카스 지역에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테러와 암살, 치안 부재, 경제적 빈곤과 대량 실업은 북카프카스를 이야기할 때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된 지 오래다. 흔히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북카프카스 지역의 정세 불안은 그 기원을 따지자면 제정 러시아가 이 지역을 식민지로 병합한 20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소연방의 해체와 맞물려 발발한 체첸 분쟁에 기인하는 바 크다. 1994년 12월부터 96년 8월까지 계속된 체치냐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정부와의 전쟁은 결국 체첸인들이 사실상의 독립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끝났다. 그러나 1999년 8월부터 러시아연방군의 체첸 공격으로 재개된 제2차 체첸전쟁은 정확한 종결 시점도 없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sup>2)</sup>

대립하는 양측, 즉 체첸 저항파와 러시아연방 정권 사이의 폭력의 강도는 2차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2년여 동안 정점을 향해 치달다가 그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분쟁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분쟁의 발원지인 체치냐공화국에는 친러파 정권이 수립되어 일견 안정된 듯 보이지만 저항파는 게릴라 투쟁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으며 종종 자살 폭탄 테러 등의 방식으로 연방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다. 그 과정에서 체첸 저항파의 이데올로기는 일개 소수민족의 분리민족주의에서 북카프카스 이슬람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급진적 이슬람주의로 이행했다.

연방 차원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분쟁이 체치냐공화국 영내로부터 주변 북카프카스 공화국들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동 지역에서 무력 분쟁으로 사망한 이들의 수는 700명에 달하며 부상자 수도 525명에 육박한다.<sup>3)</sup> 러시아연방의 국가적 일체성과 안보에서 북카프카스 지역의 분쟁 해결은 최우선 과제이며 러시아 정부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절대 단순하지 않다. 북카프카스 분쟁의 확대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요인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전형적인 현대 분쟁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회 안에 팽배해 있는 불만은 폭력의 형태로 발현되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이러한 폭력의 연쇄는 실업과 빈곤, 부패를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가며 종교가 여기에 불을 지핀다. 북카프카스 분쟁의 확대와 장기화는 단순히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이슬람 과격파 지도자를 처단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러시아의 고민이 있다.

1) 이 글은 필자가 저술한 다음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추후 단행본 게재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입니다. 인용을 하지 말아주시십시오. 현승수, “러시아연방 북카프카스 지역의 분쟁 확대: 장기적 사회분쟁의 관점에서,” 『슬라브연구』, 제27권, 제3호 (2011), pp. 21-60; 현승수, “인구세티야의 위기: 러시아 연방 정부의 북카프카스 정책의 딜레마,” 『슬라브학보』, 제27권, 제3호 (2005), pp. 335-368.

2) 본 논문에서 ‘체첸’은 형용사형으로 민족명을 표기할 때, ‘체치냐’는 공화국명을 표기할 때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인구슈’는 민족명을, ‘인구세티야’는 공화국명을 표기할 때 사용하였다.

3) <http://www.kavkaz-uzel.ru/articles/218940> (검색일: 2013.04.8)

논문은 다음의 순서대로 구성된다. 2장은 북카프카스 분쟁의 발생 배경과 현황을 체치냐와 나머지 공화국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3장은 북카프카스 분쟁의 확대 요인을 분석하고, 뒤이어 4장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북카프카스 정책이 갖는 딜레마를 고찰한다.

## II. 북카프카스 분쟁의 배경과 현황

### 1. 문제의 발원으로서 체첸 분쟁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북카프카스 불안정 상황은 체첸 분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자국의 독립을 피하는 체치냐공화국의 저항파와 이를 저지하려는 연방 정부와의 갈등이 빚은 1·2차 체첸 전쟁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8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를 낳았고 난민만도 100만여 명에 달한다. 1994년 12월에 발발하여 1996년 8월 하사부르트(Khasavyurt) 정전협정에 따라 종결된 제1차 체첸전쟁과 비교할 때, 1999년 8월부터 재개된 제2차 체첸전쟁은 확연히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체첸 저항파의 성격 변화다. 1차 전쟁이 순수하게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와 민족주의적 열망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면, 2차 전쟁은 다분히 종교적인 성격을 띤다.

1999년 중반에 당시 러시아연방 대통령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이 총리로 기용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은 1차 전쟁 이후 혼란이 극에 달해 있던 체치냐공화국을 공격한다. 1차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예상 밖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원인을 언론 장악의 실패에 있었다고 판단한 푸틴은 국내외 언론인들의 체치냐 입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해 2000년 초 체치냐 지역 대부분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다. 또 연방정부는 아흐마트 카디로프(Akhmat Kadyrov)와 그의 아들 람잔 카디로프(Ramzan Kadyrov)로 이어지는 친러파 정권을 세우고 현지의 치안과 안보에 대한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해 왔다.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어서 현지의 군경과 연방정부가 파견한公安부대(주로 연방보안국(FSB) 소속 대테러 부대)와 연방 내무부 소속 부대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시점에서 체치냐공화국의 정세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카디로프 대통령의 친인척과 출신 씨족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연방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강권 통치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의 비호를 받는 일명 ‘카디로프파’(kadyrovtsy)로 불리는 준(準) 군사집단과 군, 경찰이 주민을 상대로 도를 넘는 인권을 짓밟고 있어 대내외의 비판이 거세다. 특히 저항파(반군) 소속원의 가족이나 친척을 인질로 잡고 이들에게 고문과 살해 위협을 가함으로써 저항파의 투항을 유도하거나 반군 소속원의 집과 재산을 방화하는 수법 등이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한편, 공화국 남부 산악지대로 거점을 옮긴 체첸 저항파는 이후 게릴라전을 중심으로 반러 투쟁을 계속했고, 러시아 측과 체치냐 측의 군, 경찰, 민간인을 포함해 수천 명의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저항이 계속되면서 1차 전쟁에서 활약한 저항파 1세대가 거의 제거된 상황 속에서 체첸 저항파 지도부는 투쟁의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를 대신해 강경한 이슬람주의로 경도(傾倒)되었다. 2005년 당시 체첸 저항파 지도자인 사둘라예프(Abdul-Khalim Sadulayev)는 북카프카스의 이슬람교도들을 통합하여 러시아에 저항하는 ‘카프카스 전선(戰線)’의 수립을 선언했다.<sup>4)</sup> 이는 체첸 분쟁을 북카프카스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의지에서 나온 것

이었으며, 러시아·소비에트의 지배하에 있던 북카프카스계 무슬림 민족의 전통적인 반러 감정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2007년 10월에 사들라예프의 뒤를 이어 저항파를 이끌게 된 우마로프(Doku Umarov)는 자신을 '카프카스 수장국'(Caucasus Emirate)의 지도자(emir)로 천명하는 한편, 체첸 독립운동 초기부터 존속하던 저항파 정부의 공식 명칭인 이치케리야 체첸공화국(Chechen Republic of Ichkeria)의 폐지를 선언했다.<sup>5)</sup> 체첸 민족 영토의 고유명칭인 '이치케리야'를 국명에서 삭제한 데에는 향후 체첸 저항의 정향(定向)이 민족주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대내외에 호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대표적인 체첸 저항파 웹사이트 '카프카스센터'(Kavkaz-Center)를 통해 우마로프는 북카프카스 전역에 이슬람법(sharia)를 확립할 것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대의를 표명하고 있다.

카프카스에서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슬람 전사들(mujahideen)이 지하드를 수행하고 있다 ... 카프카스는 다게스탄과 체치냐, 인구셰티야, 오세티야, 노가이 평원, 그리고 카바르디노-발카리야와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를 통합한 지역이다.<sup>6)</sup>

2008년 8월에는 체첸 저항파의 이론가로 알려진 우두고프(Movladi Udugov)가 카프카스 수장국의 영역을 러시아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타타르스탄 등 러시아연방 내 비카프카스 무슬림계 공화국에서도 우마로프에게 충성을 서약한 이슬람 전사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실제 러시아군의 작전으로 사살되거나 생포된 이들 속에는 타타르인이나 바슈키르인의 존재도 확인되고 있다.<sup>7)</sup>

다른 한편, 체치냐에서 상황이 다소 호전되기는 했지만, 2009년부터 불안정 상황이 급속히 재현되고 있어서 체치냐 주민 사이에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2009년 7월에 저명한 인권 운동가인 에스테미로바(Natalya Estemirova)가 유괴되었다가 인구셰티야 영내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나, 같은 해 8월 어린이 재활 센터를 운영하는 사들라예바(Zarema Sadulayeva)와 자브라 일로프(Alik Dzhabrailov)가 살해된 사건은 현재까지도 가해자나 살해 동기가 미궁 속에 빠져 있어 다양한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예증하듯 국제기관의 현지조사 자료를 보면 체치냐 영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줄다가 2009년부터 다시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sup>8)</sup> 혹자는 이를 두고 체첸 저항파가 러시아와 그루지야 간 전쟁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뒤에서 언급하듯 메드베데프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체치냐에서 '대테러작전(kontrterroristicheskaya operatsiya) 체

4) Jim Nichol, "Stability in Russia's Chechnya and Other Regions of the North Caucasus: Recent Developments," CRS Report for Congress (Jan. 27, 2010), p. 5.

5) Tamara Pkhakadze, "What is Hidden Behind the Idea of the Caucasian Emirate?" *ITSTIME* (Nov. 30, 2008), p. 1. [www.itstime.it/Commenti/CaucEmiri.pdf](http://www.itstime.it/Commenti/CaucEmiri.pdf) (검색일: 2010.09.27)

6) "Официальный релиз заявления Амира Докки Умарова о провозглашении Кавказского Эмирата," *Кавказ-центр* (21 нояб 2007). <http://www.kavkazcenter.com/russ/content/2007/11/21/54480.shtml> (검색일: 2010.10.01.) '지하드'(jihad)란 이슬람에서 신을 위해 이교도들과 투쟁하는 성전(聖戰)을 뜻한다.

7) "We Have Taken Up Arms to Establish Laws: Interview with Movladi Udugov, Part I," *Prague Watchdog* (Jul. 24, 2008). <http://www.watchdog.cz/?show=000000-000015-000006-000041&lang=1> (검색일: 2010.10.02)

8)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eport by Thomas Hammarberg,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Council of Europe, Following his visit to the Russian Federation (Chechen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Ingushetia) on 2-11 September 2009," 24 Nov. 2009, p. 36.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b0c03fb2.html> (검색일: 2010.09.27)

제'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한 시점이 2009년 4월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sup>9)</sup>

대통령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체첸 분쟁의 완전한 종결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세다. 무엇보다 체치냐의 현실이 이를 입증하기 때문이다. 신뢰할 만한 통계를 보면 2012년에만 체치냐공화국에서 발생한 무장 충돌로 82명이 사망하고 9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자는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은 물론 민간인을 포함한다.<sup>10)</sup> 또 다른 통계를 보면 2010년 한 해 동안 사살된 이슬람 반군은 80명이고 생포된 사람만 166명에 이른다. 모두 37건의 폭발이 보고되었는데, 여기에는 12건의 악명 높은 자살 폭탄 테러도 포함된다.<sup>11)</sup> 특히 10월 19일 체치냐공화국 수도 그로즈니(Grozny)에 있는 의회 건물에 3~5명의 무장괴한이 난입해 사상자를 낸 사건만으로도 체치냐의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 2. 분쟁의 지역별 동향

미국의 저명한 국제문제연구소인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북카프카스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력 사건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을 2007년 초로 적시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2008~9년에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를 보면 2010년 1~11월 기간 동안 북카프카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은 모두 1,082건으로 이는 2009년의 1,382건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부상자와 사망자의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들어 이슬람 과격파의 공격이 치안 및 공안 기관의 관계자보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위에서도 언급했듯 체첸 민족의 반러 분리주의 운동은 국제 이슬람주의 운동과 연계되면서 분쟁 지역을 북카프카스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폭력이 확산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러 저항의 주체가 민족적으로 훨씬 다양해졌음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체첸 저항파 지도자 우마르프의 카프카스 수장국 수립 선언을 단순히 선동의 일환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 북카프카스의 각 공화국에는 체첸 저항파와 연계된 '자마아트'(jamaat)라는 이름의 이슬람주의 저항파 집단이 카프카스 수장국의 지부처럼 활동하고 있으며, 이하에서 이슬람 저항파, 이슬람주의 과격파, 이슬람 반군으로 명명하는 이들은 대체로 각 공화국의 자마아트와 연계된 자들이다.<sup>13)</sup>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저항파나 이슬람주의 과격파가 존재하는지 단정 지어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러시아에서 흔히 북카프카스의 이슬람 저항파를 '이슬람 지하운동'(Islamskoye podpol'ye)으로 통칭하는데, 이는 그들의 활동이 비밀 결사적 성격을 띠

9) Andrew C. Kuchins, Matthew Malarkey and Sergey Markedonov, "The North Caucasus: Russia's Volatile Frontier," A Report of the CSIS Russia and Eurasia Program (Mar. 2011), p. 2.

10) <http://www.kavkaz-uzel.ru/articles/218940> (검색일: 2013.04.8)

11) Mairbek Vatchagaev, "The Year in Chechnya: Reconstruction Marred by Lingering Insurgency and Inter-Chechen Conflict," *Jamestown Foundation North Caucasus Analysis*, 12-2 (Jan. 21, 2011). [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tt\\_news\]=37393&tx\\_ttnews\[backPid\]=514](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tt_news]=37393&tx_ttnews[backPid]=514) (검색일: 2011.02.01)

12) Jim Nichol, "Stability in Russia's Chechnya and Other Regions of the North Caucasus: Recent Developments," CRS Report for Congress (Dec. 13, 2010), p. 3.

13) '자마아트'란 원래 아랍어로 이슬람교도들의 단체를 의미하지만 북카프카스에서는 통상 정치색을 드러내며 활동하는 이슬람주의 집단의 의미로 사용된다.

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지역에서 목격되는 살인과 공격, 납치 등의 폭력 행위가 모두 이슬람과 관련된 세력들의 소행인 것은 아닐 것이다. 단순 범법자에 의한 범죄도 있고 공화국 정부군이나 러시아군이 자행한 예도 있기 때문이다.<sup>14)</sup>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 지역 정세 불안의 주범으로 자마아트 세력을 꼽으며 이하에서 언급하는 폭력 사건들도 이들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그림 1] 북카프카스 약도<sup>15)</sup>

체첸 분쟁의 북카프카스 지역 확대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현상은 자살 폭탄 테러의 활성화다. 체첸 저항파의 군사 지도자 바사예프(Shamil Basayev)가 조직한 순교 특공대 ‘리야두스살리히’(Riyadus-Salikhin, 아랍어로 ‘낙원의 의인들’이라는 뜻)에 기원을 둔 자살 폭탄 테러는 초기에 주로 체첸 여성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특히 이들 여성의 대다수가 체첸 전쟁에서 남편이나 자식, 가족을 잃은 이들이라는 점 때문에 ‘검은 미망인’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2004년 베슬란 학교 인질 사건과 2006년 바사예프의 죽음으로 인해 체첸 저항파의 자폭 전술은 일단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다시 자폭 테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여 점차 공격의 강도와 범위를 넓혀 오고 있다. ‘순교작전’의 가해자들에는 더 이상 남녀의 구별이 없으며 체첸인에 제한되지 않고 다게스탄공화국 출신이거나 인구슈인 등 민족적 구별도 없다. 또 발생 장소도 연방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해 러시아 각 지역과 북카프카스 전역을 아우르고 있다. 역내 각 공화국의 분쟁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구셰티야공화국

2010년 들어 상황이 다소 변하고 있지만, 2009년까지 불안정 정세가 가장 심각했던 곳은 체

14) Andrei Smirnov, “Kremlin Adopts New Counter-Insurgency Methods in Ingushetia,” *Chechnya Weekly* (Sep. 27, 2007). 체첸 저항파를 중심으로 북카프카스 각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이슬람 자마아트 조직이 일정 정도의 상호연계를 하고 활동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조직 사이에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 각 공화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행위들이 일관된 목표 하에서 자행되는 것도 아니다. 셰퍼(R. Schaefer)가 ‘혼합세력’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듯, 단순히 분쟁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도 있으며, 특별한 이념이나 목표 없이 그저 싸우기 위해서 혹은 조상들이 지니고 있던 저항의 전통을 잇기 위해 전투에 참가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또 단순히 러시아가 싫어서, 러시아에 대한 가족의 복수 등을 이유로 저항파에 합류하는 이들도 섞여 있다. Robert W. Schaefer, *The Insurgency in Chechnya and the North Caucasus: From Gazavat to Jihad* (Santa Barbara, CA: Praeger, 2010), E-book version, Chapter 9, p. 3305 of 4534.

15) <http://politeadigest.files.wordpress.com/2010/07/dig-107-1.gif> (검색일: 2011.06.10)

치냐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구셰티야공화국이다. 최근 이곳은 '새로운 체치냐'라 불릴 정도로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소련 시기 동안 체첸·인구슈자치공화국으로 존속하다가 1992년에 체치냐와 분리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듯, 이 지역은 체첸 분쟁의 여파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 하에 놓여 있다. 인구셰티야 검찰청의 벨하로예프(Uzman Belkharoyev) 검사는 2008년에 동 공화국에서 발생한 무장 공격으로 사망한 군경의 수가 70명으로, 2007년도 수치인 32명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2009년에는 폭력 사건 건수와 사상자 수가 한층 더 증가했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에도 인구셰티야에서는 저항파의 소규모 공격이 계속 있어 왔으며 그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군경 등 전투 병력을 계속해서 증강시켜 왔다.<sup>16)</sup>

현재 인구셰티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세력은 그 규모와 성향이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이슬람주의 세력과 반정부 세력으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사회 불안정과 폭력은 대부분 전자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은 체첸 저항파와 연대하여 이슬람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이슬람주의 과격파 세력들로서 기본 성격은 상기한 체첸 저항파와 유사하다. 2011년 1월 모스크바의 도모데도보(Domodovo) 국제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한 20살의 마고메드 예블로예프(Magomed Yevloyev)는 인구슈인으로 밝혀졌으며, 우마로프가 '카프카스센터'에 올린 범행 예고 동영상에는 그가 동석하고 있다.<sup>17)</sup>

2008년 10월 18일 연방 정부군 소속의 차량대가 나즈란(Nazran) 근교에서 기습 공격을 받아 사망자 다수가 발생한 이후, 같은 달 30일 자지코프(Murat Zyazikov) 대통령이 해임되고 군 장성 출신의 예브쿠로프(Yunus-bek Yevkurov)가 연방 대통령 메드베데프에 의해 공화국 대통령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현지에서 빈발하는 테러와 폭력행위에 맞서 싸울 것과 군·경에 의한 주민의 인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결의가 무색하리 만치 2009년 한 해 동안 공화국은 총체적인 무질서로 빠져들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예브쿠로프 대통령도 폭탄 테러로 중상을 입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더욱이 2009년 들어 인구셰티야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가 빈발해졌다. 일례로 같은 해 8월에 발생한 트럭을 이용한 자폭 테러는 경찰관 21명의 사망과 150명의 민간인 부상을 초래했을 정도였다.

## 2) 다게스탄공화국

체치냐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또 다른 공화국인 다게스탄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북 카프카스 안에서도 특별히 다민족 인구 구성을 자랑하는 다게스탄공화국에서는 그동안 현지 주민 사이에 탈러 분리주의 성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sup>18)</sup> 하지만 1999년 8월 체첸 저항파와 연대한 다게스탄의 이슬람주의 과격파가 공화국 서부에 이슬람 공화국 수립을 선언하고 연방정부와 군사적 충돌을 빚은 경험이 있다. 결국,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제2차 체첸전쟁이 발발한 것이기도 하다.

다게스탄에서는 여전히 이슬람 과격파의 존재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테러 사건이 주로 체치냐와의 접경지대인 공화국의 북부와 중부를 중심으로 발생해 왔다. 세계적인 NGO 단

16) Nichol, op. cit., Jan. 2010, pp. 7-8.

17) '카프카스센터' 홈페이지에 2011년 1월 24일 게재된 우마로프의 범행 예고 동영상은 본 논문의 필자도 직접 확인했으나 이 글을 쓰는 현재, 동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18) 다게스탄공화국의 반러 분리주의의 역사와 민족주의, 이슬람에 관한 최신 연구로는 다음 문헌이 가장 참고할 만하다. Robert Bruce Ware and Enver Kisriev, *Dagestan: Russian Hegemony and Islamic Resistance in the North Caucasus* (Armonk and London: M.E.Sharpe, 2010).

체인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보고서를 보면 다게스탄에서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폭력 사건들은 주로 과격 이슬람주의 단체인 ‘샤리아트 자마아트’(Shariat Jamaat)의 소행이었다. 이 단체는 2007년에 체첸 저항파 지도자 우마로프의 북카프카스 수장국 수립에 연대를 표명한 바 있다.<sup>19)</sup> 2007년 말에는 공화국 중부의 산악 마을 김리(Gimry)에서 연방군과 현지 군경 수천 명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테러리스트 소탕작전을 전개한 바 있으며 당시 수십 명의 마을 주민이 테러리스트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공화국 남부가 완전히 안전지대인 것은 아니다. 2008년부터 남부 지역에서도 정부 건물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이 종종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정부가 현지의 열성 무슬림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여 탄압하는 사례와 그에 대한 보복 공격이 빈번하다.<sup>20)</sup>

사실 2009년 3월, 군 장성 출신의 다게스탄공화국 내무부 장관 마고멧타기로프(Adilgeri Magomedtagirov)는 공화국 영내에 대략 50~70명 정도의 반군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면서 이는 2008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 당국의 대테러 작전이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구체적으로 2009년 2월에는 다게스탄 이슬람 반군 지도자 셰이홀라예프(Omar Sheykhullayev)가, 2008년 7월에는 그의 전임자인 몰라치예프(Ilgar Mollachiyev)가 사살되었음을 예로 들면서 이 두 사람은 우마로프에 의해 임명된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게스탄 내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자신감을 피력했다. “바로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시간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잔당도 모두 처치하게 될 것이다.”<sup>21)</sup> 하지만 그의 발언과는 상반되게 이미 2009년 2월에만 모두 네 차례에 걸친 대테러 작전령이 발동되었고, 같은 해 3월에도 다게스탄 산악 지역에 대대적인 대테러 작전령이 포고되어 반군들과 다게스탄 군경 사이에 치열한 총격전이 전개되었다. 덧붙여 위의 발언이 있는 지 3개월 후 마고멧타기로프 장관은 암살되었다.

북카프카스 정세를 다루는 각종 보고서들은 불안정 확산이 가장 빠르고 심대한 곳을 다게스탄으로 적시한다. 2012년 집계된 총 희생자 수에서 다게스탄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자폭 테러를 비롯한 폭력 현상의 증가도 눈에 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2)</sup>

### 3) 카바르디노-발카리아공화국

200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카바르디노-발카리아도 2005년부터 현지 이슬람 저항파와 체첸 저항파의 연합이 본격화되면서 불안정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2005년 10월에 공화국 수도 날치크(Nalchik)와 주변 지역의 관공서를 공격한 세력은 ‘야르무크’(Yarmuk)라는 이름의 현지 이슬람주의 과격파 그룹과 체첸 저항파였다. 이후 동 공화국 내에서는 이슬람 과격파의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가 빈발했으며 최근까지도 이들과 군경 간의 총격전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북카프카스의 불안정 정세를 전문적으로 분석·보고하고 있는 러시아 웹사이트의 견해에 따르면, 2012년에만 모두 156명이 무장 공격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했고 7건의 폭탄테러가 보고되고 있다.<sup>23)</sup>

동 공화국의 현 상황을 해외 이슬람 과격파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주의자들과 러시아 정부의

19) International Crisis Group, “Russia’s Dagestan: Conflict Causes,” Europe Report N°192 (Jun. 3, 2008), p. 1.

20) Vatchagaev, op. cit.

21) Nichol, op. cit., Dec. 2010, p. 12.

22) <http://www.kavkaz-uzel.ru/articles/218940> (검색일: 2013.04.8)

23) <http://www.kavkaz-uzel.ru/articles/218940> (검색일: 2013.04.8)

비호를 받는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내전’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카바르디노-발카리아 자마아트(지도자인 자카리아(Zakaria))는 자신들의 투쟁이 정부 관료나 경찰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 ‘신앙을 저버린 자들,’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적 성전임을 강조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10년 12월에는 동 공화국의 친정부 이슬람 지도자인 프시하체프(Anas Pshikhachev)와 체르케스 민족전통 연구자로 저명한 치피노프(Aslan Tsipinov)가 각각 유사한 방식으로 살해되었다.<sup>24)</sup>

특히 카바르디노-발카리아의 경우는 2010년 7월에 5개의 송신탑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가 하면 뒤이어 박산(Baksan)에 위치한 수력발전소에 테러 공격이 자행되는 등 다른 북카프카스 공화국들에서보다 테러의 강도가 더 거세며 대담하다. 게다가 이러한 현상은 2010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sup>25)</sup>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 공화국 이슬람주의자들을 이끌던 아미르 세이풀라(Seifullah)가 2010년 3월에 사살된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세이풀라는 체치냐에서처럼 고강도의 저항 활동이 러시아 군의 무자비한 보복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파괴나 테러 활동을 자제해 왔었지만, 그의 사후 이러한 통제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sup>26)</sup>

#### 4)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아 및 기타 지역

상기한 공화국들 외에도 북오세티야와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아에서도 이슬람 과격파 집단에 의한 유흥상점 공격이나 친정부적 성향의 이슬람 종교인에 대한 테러가 보고되고 있다.<sup>27)</sup> 특히 투르크계 민족인 카라차이인과 토착 카프카스계 민족인 체르케스인의 갈등이 심각한 동 공화국에서는 2010년 3월 체르케스인 청년 조직의 활동가 주코프(Aslan Zhukov)가, 또 5월에는 공화국 대통령 고문인 셰브주호프(Fral Shebzukhov)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족문제와 종교적 갈등이 뒤얽혀 심각한 도를 더한다.

한편, 북카프카스 최서단에 위치한 아디게야공화국에서는 2009년 11월 ‘알가르브 자마아트’(al-Garb jamaat) 라는 이름의 이슬람주의 단체가 동 공화국과 북카프카스 전역의 이슬람교도들에게 카프카스 수장국을 수립하기 위한 지하드에 참가하도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체첸 저항파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저항파의 세력 확대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sup>28)</sup>

북카프카스 발 분쟁의 파장은 이제 지역을 벗어나 연방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수도 모스크바에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11년 1월 모스크바 도모데도보(Domodedovo)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자살 폭탄 테러일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구슈인 청년을 주범으로 한 카프카스 수장국 세력의 소행으로 밝혀졌다.<sup>29)</sup> 그 밖에도 2009년 11월 모

24)

<http://www.jihadwatch.org/2011/02/russia-jihadists-murder-three-in-jihad-against-14-billion-ski-resort-plan.html> (검색일: 2011.06.10)

25) 2011년 2월에는 동 공화국 최고의 휴양지인 엘부르스(Elburs) 산 스키 리조트에서 3명의 관광객이 테러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26) Kuchins, et al., op. cit., pp. 4-5.

27) 주민의 대다수가 기독교도인 북오세티야에서 이슬람주의 세력에 의한 폭력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이 상세하다. Emil Souleimanov, “North Ossetia: Jihadization in The Making?” *CACI Analyst* (Jun. 8, 2011). <http://www.cacianalyst.org/?q=node/5573> (검색일: 2011.06.15)

28) 알가르브 자마아트의 공식 성명서는 체첸 저항파 사이트 ‘카프카스센터’에 게재되어 있다. <http://kavkazcenter.com/russ/content/2009/11/24/69334.shtml> (검색일: 2011.06.15)

29) 이 사건으로 민간인 37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다쳤다.

스크바 인근에서 발생한 네프스키 익스프레스 열차 폭발로 승객 27명이 사망하고 90명이 다친 사건이 주목할 만하며, 특히 2010년 3월 모스크바 지하철 자살 폭탄 테러는 사건 발생 장소가 연방 수도의 한복판이라는 점과, 스스로 몸을 터뜨려 40명의 민간인 사망자와 70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주범이 체첸인 여성들이라는 사실이 러시아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들 사건 직후 체첸 저항파를 주축으로 한 카프카스 수장국 세력은 자신들의 소행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북카프카스 무슬림들의 ‘지하드’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러시아 전역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sup>30)</sup>

### III. 북카프카스 분쟁 요인

#### 1. 민족·종교적 요인

북카프카스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슬람을 신앙하는 무슬림들이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슬람 세계에 속해 있었다. 19세기 제정 러시아가 이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북카프카스 지역 소수민족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는데, 당시 그들의 투쟁을 지휘한 것은 다름 아닌 이슬람 종교인들이었다.<sup>31)</sup> 소비에트 시기 무신론 정권하에서도 북카프카스의 이슬람은 생활과 전통 속에서 면면히 명맥을 유지해 왔으며 소연방의 해체를 전후해 불어 닥친 자유화 물결 속에서 이 지역의 이슬람은 빠른 속도로 부활했다. 파괴되거나 폐쇄되었던 이슬람 사원이 복구되었고 금지되던 이슬람 관행이 허용되었다. 사회주의 이념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종교가 차지하게 되었으며 정치와 사회 속에서 이슬람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sup>32)</sup>

이러한 종교 부활 현상이 가장 빠르고 급진적으로 발생한 곳은 러시아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주창하던 체치냐와 인근 다게스탄공화국이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체치냐에서는 체첸 저항파가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저항의 이념을 민족주의로부터 이슬람주의로 바꿨고, 다게스탄공화국은 북카프카스 전역에서 가장 이슬람 전통이 강한 곳일 뿐만 아니라 체첸 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과격한 이슬람주의 세력이 판세를 넓혀 왔다. 흔히 ‘와하비’(wahhabi) 혹은 ‘살라피’(salafi)로 불리는 이들 이슬람주의자는 소연방 해체를 전후해 종교의 자유화가 활발할 당시 중동이나 이집트, 파키스탄 등지에서 북카프카스 지역으로 건너온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관해서는 3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한편, 북카프카스 지역의 서부에 해당하는 카바르디노-발카리아나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아디게야는 상대적으로 이슬람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이들 공화국의 전체 인구에서 토착 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그들이 신앙하는 이슬람의 교파도 세속주의와의 공존에 포용적인 하나피(Hanafi) 학파였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체첸 저항파가 북카프카스 전체를 하나의 신정국가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 서부 공화국들에서도 2007년 이후부터 점차 이슬람주의 자마야트의 테러와 저항 운동이 활

30) 카프카스 수장국 아미르인 우마로프의 범행 시인 동영상은 체첸 저항파의 인터넷 사이트(www.kavkazcenter.com)에 실려 있다.

31)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논문이 상세하다. 정세진, “19세기 카프카스 전쟁과 이슬람 요소,” 『슬라브연구』, 제 21권, 제1호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5).

32) 현승수, “분열된 ‘움마’: 러시아 이슬람의 현재와 공인 종교인,” 기연수 편, 『러시아, 위대한 강대국 재현을 향한 여정』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pp. 407-423.

발해지고 있다. 이는 젊은이들 사이에 이슬람 신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소연방 해체 이후 북카프카스 지역의 정치와 사회를 주도한 담론은 민족주의와 이슬람이었다. 이 두 개의 상호 이질적인 이념의 갈등이 현재의 북카프카스 불안정의 틀을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오늘날 이 지역 민족들의 민족주의는 연방 해체를 전후한 1990년대 전반보다 많이 온건화한 것이 사실이다. 체치냐의 경우가 단적인 사례를 제공하는데, 1차 전쟁 당시 체첸인들의 저항은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이념 정향을 갖고 있었으며, 또 그 안에서 이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다.<sup>33)</sup> 그들의 투쟁은 전적으로 체첸 민족의 탈러 독립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카프카스 수장국의 전략은 종교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민족을 초월하며 북카프카스 산악민 정체성, 나아가서는 무슬림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이다.<sup>34)</sup>

다른 한편, 종교 정체성이 저항파의 이데올로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체첸 저항파 내부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다. 분열이 그것인데, 결과적으로 체첸 저항파는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분리되었다. 하나는 우마로프가 지휘하는 파벌로서 이슬람주의에 기초한 지하드주의를 표방하며 오늘날 러시아군을 상대로 게릴라전과 테러를 전개하는 세력은 이들 그룹이다. 또 하나는 전자와 달리 이슬람주의가 아닌 철저한 체첸 민족주의에 근거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그룹으로서 체첸 망명파 정부를 이끄는 자카예프(Akhmed Zakayev)가 이 파벌을 지도한다. 그는 원래 체첸 저항파 정부의 유럽 특사 자격으로 영국에 망명한 이후, 주로 외교적 수단을 이용해 체첸 독립운동을 벌이던 인물이었다.<sup>35)</sup> 하지만 저항파 내 이슬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사이에 투쟁 방법을 둘러싸고 분열이 일어난 이후, 두 세력은 각자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었고 자카예프 그룹은 테러나 반러 군사 활동에는 개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열은 이슬람 내부에서도 발생한다. 이슬람 신비주의 교단의 전통이 강한 다게스탄과 체치냐, 카바르디노-발카리아에서는 ‘좋은 이슬람’과 ‘나쁜 이슬람’ 사이의 갈등이 분쟁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좋은 이슬람이란 역사적으로 북카프카스 민족들이 신앙하던 온건하고 현실 순응적이며 정치로부터 분리된 이슬람이다. 그에 비해 나쁜 이슬람은 국가와 사회 위에 군림하며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강제하고 불신자들에 대해 지하드를 선포하는 외래 종파 이슬람이다. 이러한 구분 자체가 연방 정부와 각 공화국 세속 정권의 독단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와하비’ 혹은 ‘살라피’로 통칭하는 나쁜 이슬람교도들에 맞서 전통과 참된 신앙을 지키려는 좋은 이슬람교도들의 갈등과 투쟁은 북카프카스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살인, 습격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모든 공화국에서 살라피 이슬람교도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좋은 이슬람과 나쁜 이슬람이라는 단순 이항구도로 북카프카스의 이슬람을 인식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sup>36)</sup>

한편, 오늘날 북카프카스에서 러시아연방으로부터의 이탈을 주장하는 분리주의가 주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카프카스계 각 공화국 정권과 주민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체치냐가 겪었던 분리주의 운동의 후과와 참화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무모한’ 독립 추구보다는 러시아연방 내에서 자치의 확대와 경제적 번영을 지향하는 편

33) 현승수, “체첸 독립운동의 형성과 전개: 두다예프 집권기(1991~96년)의 정치 과정과 이슬람의 역할,”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pp. 481-508.

34) Schaefer, op. cit., p. 3321 of 4534.

35) Nichol, op. cit., Jan. 2010, p. 6.

36) “39% опрошенных жителей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ии проявляют симпатии к ваххабизму,” *Caucasus Times* (May 31, 2010). <http://www.caucasustimes.com/article.asp?language=2&id=20224> (검색일: 2011.06.01)

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sup>37)</sup> 단지, 민족 간 이해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온존하면서 사회적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여기에 각 민족의 민족주의 운동 단체가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카바르디노-발카리아에서의 민족 갈등은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유치에 대한 체르케스인들의 반발,<sup>38)</sup> 북오세티야와 인구셰티야가 프리고로드니(Prigorodny) 구의 영유권을 놓고 30년 이상 갈등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sup>39)</sup> 문제는 인구슈 자마야트가 최근 보여준 것처럼 민족 갈등으로 불만에 쌓인 주민들을 지지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는 이슬람주의와 자민족 중심적인 민족주의는 이론적으로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이지만, 현실적으로 양자 간의 결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2. 사회·경제적 요인

많은 전문가들은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확대되는 테러와 암살, 폭력 사건 등의 불안정 확대는 이 지역의 고질적인 빈곤과 대량 실업 그리고 그 주원인인 부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급증하는 폭력 현상이 상당 부분 종교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부패와 실업이 깊게 뿌리박혀 있다는 것이다. 연방 전체와 비교하면 북카프카스 지역의 실업률이 월등히 높으며, 특히 체치냐와 인구셰티야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2006년에 세계은행(World Bank)이 『카프카스의 청년층: 위험에서 기회로』라는 제목으로 펴낸 보고서는 북카프카스 지역의 젊은이들이 치안기관에 만연한 부패와 억압을 지역 안정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등의 치안기관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뇌물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그 대표 사례로 체치냐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주민을 상대로 한 금품 요구나 갈취를 목적으로 한 주민 탄압도 심각하다고 말한다. 북카프카스 각지에서 보내오는 현지 발 기사 등을 통해 볼 때 이러한 뇌물과 금품 요구 사례는 일일이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행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좀처럼 개선되지도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0)</sup>

북카프카스에서 목격되는 부패 현상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에트 유산’적 측면을 분명히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이 러시아연방 안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이고 또 분쟁과 사회적 무질서가 장기간 지속된 곳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북카프카스 특유의 부패 현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집단 차원의 편의 봐주기나 이권을 전제로 한 금전 거래뿐만 아니라, 군경, 공안기관, 국가 공무원의 불법적 직권 남용, 과도한 인권 탄압,

37) Kuchins, et al., op. cit., p. 5.

38) 2014년 동계올림픽 경기장 중 하나인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공화국 영내의 크라스나야 폴라나(Krasnaya Polyana)는 체르케스인들의 역사적 고지(故地)이며 1864년 그들이 제정러시아에 맞서 싸운 최후의 격전지이다. 특히 2014년은 동 전투로부터 1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체르케스 민족주의자들은 경기장 건설의 중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공화국의 분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39) 원래 프리고로드니 구는 1944년 전까지 체첸·인구슈자치공화국에 속해 있었으며 주민의 대다수는 인구슈인들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인구슈인들이 소개된 후, 동 자치공화국이 소멸하자 이곳은 북오세티야공화국으로 편입되었고 오세트인들의 거주지로 바뀌었다. 1957년 체첸인과 인구슈인이 명예 회복되고 체첸·인구슈자치공화국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프리고로드니 구에 사는 오세트인들과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는 인구슈인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민족 간 대립은 소연방 해체 직후 유혈분쟁으로 비화되었다가 연방 정부의 중재로 일단 중지되었으나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40) Gloria La Cava and Sarah Michael, “Youth in the Northern Caucasus: From Risk to Opportunity,” Environmentall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CSSD) Europe and Central Asia (ECA) Region. The World Bank (2006). [http://ns.worldbank.org/ru/lavaca/full\\_eng.pdf](http://ns.worldbank.org/ru/lavaca/full_eng.pdf) (검색일: 2010.07.04).

대주민 가혹행위 등도 넓은 의미에서 부패현상에 포함될 수 있다.<sup>41)</sup>

북카프카스의 맥락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대테러 작전의 실행자와 그 표적 집단 사이에 모종의 거래나 협력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심이 끊임없이 외부 관찰자들을 괴롭힌다는 점이다. 제1차 체첸전쟁 당시부터 체첸 저항파가 돈을 주고 러시아 군경에게서 무기와 군사 장비를 획득했다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한다.<sup>42)</sup> 혹은 러시아 정재계의 거물들이 체첸 저항파와 거래를 한다거나 러시아 공안기관이 테러 사건을 조작 또는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2005년에 발생한 베슬란 초등학교 인질 사건 당시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테러리스트들이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사실을 놓고 이러한 의구심은 ‘음모론’의 차원을 넘어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상기한 의문점들을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해 버린다 해도 분쟁 해결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북카프카스와 연방 각지의 테러 사건이 북카프카스 역내에서 연방 정부군과 현지 군경이 무리하게 전개한 대테러 작전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명 ‘자치스트키’(zachistki)로 불리는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은 제2차 체첸전쟁이 시작된 1999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1,000여 건에 이른다. 군 병력이 마을을 둘러싸고 집집이 돌면서 숨어 있는 테러리스트나 숨겨 놓은 무기를 내놓도록 강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 전체를 초토화하는 것이 자치스트키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문제는 이러한 무모한 소탕작전이 불법이라는 것이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종종 민간인에 대한 약탈과 불필요한 폭력이 자행된다는 사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일상화된 유괴와 민간인의 행방불명을 연방군이나 현지 군경의 소행으로 보는 현지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위에서도 지적한 ‘카디로프 파,’ 즉 체치냐 대통령 카디로프의 사설 준군사 집단이 주민 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인질의 몸값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한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대, 살해하고 있다는 고발이 서방의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물론, 체치냐의 친러 정권도, 연방 정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sup>43)</sup>

작금의 폭력 증가 현상은 다시금 더 가혹한 자치스트키 작전을 불러오게 될 터이니, 이른바 폭력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주민 사이에 늘어나는 반정부적 감정은 저항파와 테러리

41) 러시아연방이 2002년 11월 20일 채택한 ‘부정부패 금지’에 관한 연방법안은 공무원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닌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는 행위, 즉 뇌물상납과 수뢰, 공금유용, 유착 관계, 사기, 연대보증, 강탈행위 등을 불법적인 부정부패로 규정하고 있다. 한중만은 러시아의 부패와 마피아의 발호를 연관지어 고찰하는 논고에서 그 원인을 경제주체인 기업인과 관료들의 ‘가난’과 ‘탐욕,’ ‘시스템’의 부재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러시아에서는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일수록 부패의 유혹을 견뎌내기가 어려우며 이로 말미암아 국가와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 불감증과 기강해이가 만연되어 있고 이를 개선할 법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할 뿐 아니라 국민의 법문화 수준도 지극히 낮다는 지적이다. 한중만,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아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55집 (서울: 한국동북아학회, 2010), pp. 217-218. 메드베데프 연방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러시아 사회에 뿌리 깊은 독직,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제기와 척결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독직 감시단체의 ‘국제 독직도 순위’ 발표를 보면 러시아는 187개국 가운데 15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2009년도보다 오히려 8단계가 더 낮아진 수치로 구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이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승수, “분야별 2010년 러시아 경제 결산 및 2011년 전망: 정치·사회 분야,” 『2010 Russia Report』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1), pp. 17-18.

42) 현승수, “체첸 전쟁과 국제 이슬람 무자히딘 운동: 아랍인 야전사령관 카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7-2집 (서울: 한국이슬람학회, 2007), pp. 107-134.

43) 카디로프 정권의 형성배경과 부정적 측면에 관해서는 러시아에서 출판된 다음 문헌이 주목할 만하다. A. Malashenko, Ramzan Kadyrov: российский политик кавказ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Москва: РОССПЭН, 2009).

스트 집단에 대한 북카프카스 청년들의 참가를 부채질한다. ‘국제위기그룹’의 보고서는 다게스탄의 대표적인 이슬람주의 과격파 단체인 ‘샤리아트 자마아트’가 착실하게 소속원을 늘릴 수 있는 원인으로 현지 군경의 가혹 행위와 부패를 꼽고 있다.<sup>44)</sup>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인권 운동가 슈베도프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그는 북카프카스에서 활동하는 반군이 자신의 생각에는 700~900명 정도의 규모에 지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반군의 숫자가 아니라 일반 주민 사이에 섞여 있는 반군 지지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있다고 말한다. 반러시아, 반정부 감정이 고조될수록 주민들의 성향은 점점 더 과격해질 것이고 그 결과 테러를 자행하는 반군에 가담하는 주민의 수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45)</sup> 러시아가 북카프카스에서 계속 시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테러리즘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저명한 이슬람 문제 전문가 말라셴코(Aleksei Malashenko)의 경고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sup>46)</sup>

여기서 연방 정부의 북카프카스 정책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생 러시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연방 정부의 북카프카스 정책은 크게 3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옐친 시기의 화·전양면적 노선에서 푸틴 집권기의 무력을 통한 해결 노선 그리고 메드베데프 정권기의 사회·경제 문제 해결 우선 정책이었다. 이들 노선의 변화는 각 연방 정권의 성격과도 관련되지만, 러시아가 처한 현실 그리고 북카프카스 지역 정세의 추이에 따라 초래된 측면이 많다. 또 푸틴과 메드베데프의 쌍두 체제가 보여주는 한계로 인해 메드베데프 집권기의 지역 정책에 총리로서 푸틴이 관여했을 것이 확실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지난 20여 년간 러시아 연방 정부의 북카프카스 정책은 분쟁 해결이 시급한 체치냐와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성을 두되, 발생하는 사안과 각 공화국 상황에 따라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이는 북카프카스 전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한 일관되고 통합된 북카프카스 지역 정책이 부재했음을 의미한다.

8년에 이르는 푸틴 집권기 동안 러시아연방 정부의 북카프카스 정책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는 북카프카스를 국제 테러리즘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러시아가 이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적해야 할 것은 북카프카스 역내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과격파의 활동이나 정치·사회적 불안정 현상에 대해 푸틴 정부가 협박과 무력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는 사실이다. 푸틴 집권기 동안 연방 정부는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찰과 연방군, 연방보안청(FSB) 병력의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sup>47)</sup> 이는 연방 당국이 동(同) 지역의 치안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 무력 기관의 역량 자체도 나아진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향성은 북카프카스를 신속히 안정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향성 역시 체치냐공화국을 염두에 둔 것인데, 요컨대 국제 이슬람주의 과격파 세력과 결탁한 저항파를 축출하고 카디로프 부자의 영도력 하에 안정된 체제를 재건설한다는 것이다.<sup>48)</sup>

44) International Crisis Group, op. cit., pp. 12-14.

45) Nichol, op. cit., Dec. 2010, p. 13.

46) Nichol, op. cit., Jan. 2010, p. 5.

47) 막스 베버(Max Weber)가 지적했듯 합법적 폭력 수단의 통제가 국가 건설의 관건이다. 푸틴 집권기의 러시아에서는 이른바 실로비키(силловики)로 통칭되는 무력 기관들, 즉 군과 보안기관, 법 강제 기구들이 득세했으며 북카프카스에서도 연방군과 내무부 소속 군, 연방보안청 등이 치안과 대테러작전을 담당하면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다. Brian Taylor, “Putin’s ‘Historic Mission’: State-Building and the Power Ministries in the North Caucasus,”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4, No. 6, 2007, pp. 4-5.

48) 아흐마트 카디로프가 2004년 5월 폭탄 테러로 사망한 뒤 그의 아들인 람잔 카디로프가 2007년 3월 대통령에 임명되었다.

사실 푸틴 집권기 동안 북카프카스, 특히 체치냐에서 활동하는 반러파 저항 세력에 의한 테러가 현지는 물론 연방 수도 모스크바까지 위협하는 수준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더욱이 푸틴이 대통령에 재선되어 집권 2기를 시작한 2004년, 북카프카스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테러가 빈발하면서 푸틴의 북카프카스 정책에 대한 안팎의 비난이 고조되었다. 그 해 5월 9일에 체치냐공화국의 친러파 대통령인 아흐마트 카디로프가 폭탄 테러로 사망했으며 6월에는 인구셰티야공화국의 중심도시 나즈란(Назрань)과 카라불라크(Карабулак)에서 테러리스트 집단의 무장 공격으로 군과 경찰 병력이 다수 사살되었다. 9월, 북오세티야공화국의 시골 마을인 베슬란(Беслан)에서 발생한 학교 인질 사건은 체첸 저항파 세력이 자행한 것이었으며 테러리스트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푸틴의 강경 진압 작전으로 300명 이상의 민간인(그 대다수가 어린이)이 사망했다.

베슬란 사건 직후, 푸틴은 이 모든 테러 사건이 결국 ‘국가 행정 기구의 약화’에서 초래된 것이며 안보 및 치안에 대한 가일층의 관심과 법 집행 강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그동안 민선으로 선출되던 연방주체의 장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천명했다. 또 북카프카스 지역을 포괄하는 남부연방관구의 대통령 전권대표에 드미트리 코자크(Д. Козак)를 임명했다.<sup>49)</sup> 코자크는 푸틴 행정부에서 탁월한 행정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그가 남부연방관구를 책임지게 된 사실 자체가 푸틴의 북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관심을 시사해주는 것이었다. 그런 명성에 걸맞게 코자크는 장기 집권과 부패로 비판을 받고 있던 다게스탄공화국과 카바르디노-발카리아공화국의 대통령을 해임하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던 하킴 쇼게노프(К. Шогенов) 카바르디노-발카리아 내무부 장관을 경질시키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sup>50)</sup> 그러나 푸틴의 수직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통치 방식과 코자크의 탈중앙적 현지 접근 방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코자크는 북카프카스 지역 특유의 전통적인 씨족 구조를 활용하고 현지 지역 행정기구들의 비효율성과 부패의 척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의 통치 엘리트들은 북카프카스 지역의 내부 상황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주로 무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 주력했다.<sup>51)</sup> 결국 푸틴은 코자크를 해임하고 2007년 9월, KGB 출신의 그리고리 라포타(Г. Рапога)를 그의 후임에 앉혔다.<sup>52)</sup>

푸틴 집권기 연방 정부의 북카프카스 정책에 관해 러시아의 저명한 이슬람 민족문제 전문가인 알렉세이 말라셴코(А. Малашенко)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연방은 체치냐에만 신경을 쓸 뿐 주변 공화국들을 방치함으로써 불안정화의 지역적 확대를 조장했다. 둘째, 연방은 북카프카스 역내 각 공화국과의 관계를 지도자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기반을 두게 만들므로

49) 연방관구 제도는 푸틴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2000년 5월, 연방정부의 효율적 정책 수행과 지방 통 제권의 확립을 위해 처음 시행되었다. 연방관구의 대통령 전권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서 연방법과 헌법, 대통령 지침에 따라 활동하고 다음과 같은 권한 및 임무를 갖는다. 연방 정책 및 대통령의 주요 노선에 대한 이행 실태 관리 및 감독, 대통령에게 연방관구 내 안보 및 정치·사회·경제 상황 보고, 관구 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 조정 및 지방정부 정책의 조율,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관할지역내 사회경제발전 프로그램 작성, 헌법이나 연방법에 위배되는 지방정부의 헌법 및 법령 효력의 중지 건의 등이다. 홍완석 편저, 『러시아 연방 인문공간의 이해 I: 21개 공화국 탐구』(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22쪽. 한편, 남부연방관구는 북카프카스 역내 공화국들 외에 스타브로폴변강과 크라스노다르 변경, 볼고그라드주와 로스토프주 등을 포함했으나 2010년 1월, 북카프카스연방관구가 따로 분할되어 나갔으며 아디게야공화국은 남부연방관구로 편입되었다.

50) Pavel Baev, “The Russian Military Campaign in the North Caucasus: Is a Victory in Sight?” (paper presented at the North Caucasus Conference, Jamestown Foundation, September 14, 2006). [www.jamestown.org/docs/Baev-14Sep06.pdf](http://www.jamestown.org/docs/Baev-14Sep06.pdf)

51) *Хинштейн А.* Чикаго с кавказским акцентом // Московский комсомолец. 2006. 26-27. апр.

52) B. Taylor, “Putin’s ‘Historic Mission,’” p. 7.

써 전략적 실수를 범해 왔다는 것이다. 셋째, 이 같은 개인적 권력에 의한 통치 정책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또 다른 불안정화의 리스크를 낳았다.<sup>53)</sup>

한편 2008년 5월, 푸틴의 후계자로서 집권한 메드베데프는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뿌리 깊은 족벌주의(nepotism)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푸틴 집권기에 설치된 남부연방관구의 분할을 통해 북카프카스연방관구를 새로 조직하는 것이었으며, 알렉산드르 홀로포닌(A. X. Лопонин)을 동 관구의 대통령 전권대표로 임명하여 이 지역에서 메드베데프 자신의 리더십을 그대로 유지 및 활용하는 것이었다.<sup>54)</sup> 2010년 1월 시행된 이 정책은 연방과 북카프카스 공화국 간 관계를 개인적 관계로부터 전권대표를 통한, 보다 기능적인 관계로 개선하고자 한 시도였다.

위에서 말라센코도 지적하고 있듯, 자치 공화국과 연방의 관계가 개인적 관계에 기초하여 구축된 결과, 공화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연방 측이 무시하기가 어려웠다. 이 같은 상황은 체치냐공화국 대통령인 람잔 카디로프(Р. Кадыров)와 연방 간 관계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었다. 카디로프는 자신의 의지를 푸틴 총리의 의지와 연결 지워 정당화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요구를 연방 측에 관철시켜 왔다.<sup>55)</sup> 카디로프 뿐 아니라 푸틴 시기에 성장한 이 지역 권위주의적 성향의 지도자들은 공화국 정권 내부에서 자행되는 부정부패의 주축이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연방이 추진하는 정책과 그 결과를 검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홀로포닌이 경제 담당 부총리를 겸직하는 특수한 형태를 취한 것도, 대통령실과 내각이 연계하여 북카프카스 문제에 연방이 주도하는 형태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북카프카스연방관구의 창설은 이 지역 엘리트들의 인사이동과도 연동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2009년 중반, 체치냐에서 대테러작전의 공식적인 종결을 선언한 이후 도리어 악화되기 시작한 북카프카스 지역 정세 의 책임을 묻는 측면도 겹쳐서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56)</sup> 남부연방관구 전권대표인 블라디미르 우스티노프(В. Устинов)가 연방관구 분할에 따라 사실상 북카프카스의 책임자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내무 차관으로서 북카프카스의 대테러 작전을 책임지던 아르카디 예디레프(А. Едилев)가 경질되었으며, 2006년 푸틴에 의해 다게스탄 대통령에 임명된 무후 알리에프(М. Алиев)도 사실상 해임됐다. 하지만 연방 정권 내부의 세력 관계나 지역 공화국의 복잡한 인맥 관계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으로서 이들 인사를 단독으로 해임시키기보다는 연방관구 분할과 새로운 전권대표의 임명이라는 중대 사안을 명목삼아 해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카프카스연방관구 창설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홀로포닌의 전권대표 지명이 보여주듯 이 정책이 사회·경제 문제를 주요한 정책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치안 확보 및 안보를 중시한 접근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sup>57)</sup> 이는 메드베데프가 북카프카스 문제에 관해

53) Малашенко А.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когда закончилась война // Pro et Contra. 2008. сен.-дек.

54) Bogdan Nedeia, "Russian Policies in the North Caucasus," Center for Conflict Prevention and Early Warning Occasional Papers, Vol. 4, No. 7, 2011, p. 4.

55) 람잔 카디로프는 연방이 체치냐를 제압하는데 기여했던 친러파 체첸 군벌인 술립 야마다예프(С. Ямадаев) 등을 권력에서 배제시키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대를 해산시키는 한편, 자신을 위한 내무부 특수부대를 조직했다. 또 2009년 4월에 메드베데프가 선언한 체치냐공화국 영내의 '대테러작전 체제'의 종결 역시 카디로프가 연방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던 것이었으며, 공화국 내 국제공항 건설도 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홀로포닌의 임명에도 카디로프는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tt\\_news\]=4869](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tt_news]=4869)(검색일: 2012.7.14)

56) 2010년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연방대통령 메드베데프와 검찰총장국 조사위원회 의장, 내무부 장관 등 연방 정부의 최고위급 관료들이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는데, 연방 정부가 내놓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북카프카스에서 러시아 당국에 저항하여 발생한 군사 행위는 2009년에 비해 4.5배나 증가했다. 다음을 참조할 것. 현승수, "러시아연방 북카프카스 지역의 분쟁 확대."

57) 언론에서는 전권 대표로 이바노프를 점찍었는데 이는 연방 정부가 기존 방식대로 무력에 의해 문제를 해결

자주 실업이나 고용 문제 그리고 부정부패 등이 무장 세력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는 바 크며, 따라서 이들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던 사실로부터도 명백하다. 즉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푸틴과는 다른 관점에서 북카프카스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58)</sup>

이 같은 연방의 북카프카스 정책의 변화는, 이 지역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방 정부, 특히 메드베데프의 적극적인 자세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부터 큰 성과를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 하나는 북카프카스 공화국들과 푸틴 중심의 연방 정부 사이에 형성되어 온 이해와 인맥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북카프카스에 아무런 연고도 갖고 있지 않은 홀로포닌의 임명이나 다게스탄 전임 대통령의 아들인 마고메드살람 마고메도프(M. Магомедов)가 대통령에 임명된 사실 자체가 연방 내 세력구도와 북카프카스 현지 엘리트들의 수용가능한 선택지에 불과했고 따라서 현 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은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푸틴과의 쌍두 체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입안 및 추진하기 힘든 메드베데프 개인의 한계도 지적받아 왔다.<sup>59)</sup>

그러나 메드베데프 집권기의 북카프카스 정책이 갖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이 지역 문제의 핵심을 사회·경제적 측면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세르게이 마르케도노프(S. Markedonov)는 메드베데프의 북카프카스 정책을 “정치도, 종교도 언급하지 말라!”는 한마디로 표상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서 2010년 10월 4일 러시아연방 정부가 발표한 118 페이지 짜리 <<2025년까지 북카프카스연방관구의 사회·경제 전략>> 제하의 보고서를 들고 있다. 동 전략의 목표는 “동 관구 내 지역들의 실물부문을 가일층 발전시키고 취업의 기회를 창출하며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마르케도노프는 메드베데프 정부가 북카프카스의 총체적 위기 상황의 원인을 정치나 종교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실패가 예견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sup>60)</sup> 정치와 종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개발과 투자로 상황 호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은 북카프카스 지역 문제의 근본 원인이 러시아인 주민들의 급격한 감소에 있다고 생각하는 연방 정부가 코사크인들의 북카프카스 지역 이주 증가를 독려하거나 러시아정교회를 통한 이 지역 주민들의 개종을 권유하려 한다면 또 다른 민족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sup>61)</sup>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연방 경제부와 재정부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예산 책정에 애를 먹으면서 아직까지 최종 승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때문에 북카프카스 정세는 2010년 이후 더욱 악화일로를 치달았으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연방 정부가 북카프카스 지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지 주민들의 견해가 증가했다. 이후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일련의 테러 사건들로 인해 경제와 사회 문제의 개선으로 북카프카스 지역 안정화를 꾀하려던 메드베데프의 노선은 연방 차원에서도, 또 북카프카스 현지에서도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푸틴 집권기에 종종 비판받아 왔던 북카프카스 공화국들의 연방

---

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사이며 유능한 실무가이자 사업가로 평판이 높던 홀로포닌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가 경제와 사회 문제임을 명백히 해 주는 것이었다.

58) 2009년 6월 9일 다게스탄공화국의 수도 마하치칼라에서 메드베데프가 행한 연설을 참조할 것. [http://archive.kremlin.ru/eng/speeches/2009/06/09/1904\\_type82912type82913\\_217581.shtml](http://archive.kremlin.ru/eng/speeches/2009/06/09/1904_type82912type82913_217581.shtml)(검색일: 2012.6.11)

59) B. Nedea, “Russian Policies in the North Caucasus,” p. 4.

60)

<http://www.opendemocracy.net/od-russia/sergei-markedonov/strategy-for-north-caucasus-don%E2%80%99t-mention-politics-or-religion>(검색일:2012.7.1)

61) B. Nedea, “Russian Policies in the North Caucasus,” p. 5.

예산 의존도를 낮춰 보고자 2011년 북카프카스 공화국들에 투입하던 연방 자금의 액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자립도가 낮은 북카프카스 일부 공화국들의 파산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남은 자금을 치안 유지에 퍼부어야 하는 딜레마를 유발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다.<sup>62)</sup>

### 3. 국제정치적 요인

북카프카스의 분쟁 확대에는 국제정치적 요인도 무시하지 못할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체첸 분쟁이 북카프카스 전역과 연방 수도까지 확대된 데에는 체첸 저항운동의 ‘아랍화’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연방 정부가 기본적으로 체첸 저항파를 외래 이슬람에 감염된 타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했다. 이러한 시각은 1차 체첸전쟁 말기부터 이미 러시아연방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9.11 사건 이후 범세계적인 반이슬람주의적 풍조가 확산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물론 연방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요구라는 체첸 분쟁의 또 다른 본질을 왜곡할 정도로 심하게 확대·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체첸 저항파의 성격 변화와 그로 말미암은 북카프카스 전역으로의 분쟁 확대에 외부로부터의 지하드주의적 이슬람 유입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1차 체첸전쟁에 참가했던 이른바 ‘아랍 아프간들’(Arab-Afghans)이 체치냐와 인근 다게스탄으로 근본주의적 이슬람을 전파했으며 민족주의적 저항을 이슬람 성전인 지하드 운동으로 변질시키는 데 상당 정도 기여했기 때문이다. 2002년 모스크바 시내의 두브로브카(Dubrovka) 극장에서 벌어진 인질 사건과 2004년 체치냐와 국경을 접한 북오세티야공화국의 베슬란(Beslan)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체첸 분쟁의 아랍화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시 체치냐와 북카프카스 각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테러리스트들은 아랍어로 쓴 현수막과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여성 인질범들은 검은색 차도르를 전신에 두르고 있었다. 이러한 중동식 이슬람 관행은 카프카스의 종교 전통과는 크게 다르다.

체첸 저항운동의 아랍화는 저항파의 투쟁 방식도 바꿔 놓았다. 체첸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1차 전쟁은 식민지 제국 러시아 국가에 대한 체첸 독립 국가의 투쟁이었고 따라서 정규전과 유격전을 중심으로 한 전략과 전술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2차 전쟁에서는 러시아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체첸 저항파의 정규전 중심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게릴라전과 자살 폭탄 테러를 중심으로 군경은 물론 민간인까지 무차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전술이 주가 되었다. 특히 자폭 테러는 알 카에다와 탈레반 등 중동과 서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지하드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신종 공격 수법으로 체첸 저항파와 북카프카스 분쟁의 아랍화 과정을 통해 이 지역에도 도입되었다. 2007년 체첸 저항파 지도자인 우마로프가 카프카스 수장국 수립을 천명한 시점에서 이제 체치냐와 북카프카스계 공화국에서 활동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알 카에다 등 국제 지하드운동 네트워크 속에 정식으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게 되었다.<sup>63)</sup>

62)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0년 다게스탄공화국에서 발생한 무장집단의 활동과 피해에 관한 통계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범강제기관들이 제시하는 수치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카프카스와 관련된 모든 수치는 ‘터무니없는’(nonsense) 허위라고 질책했다. *RIA Novosti*, Nov. 19, 2010.

63) *Ibid.*, p. 10. 체첸·북카프카스 분쟁과 알 카에다 등 국제 지하드 네트워크와의 상관성에 관해서는 아직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Bryan Glyn Williams, “Allah’s Foot Soldiers: An Assessment of the Role of Foreign Fighters and Al-Qa’ida in the Chechen Insurgency,” Moshe Gammer (ed.), *Ethno-Nationalism, Islam and the*

또 중동, 터키를 비롯한 외국 무슬림 무장병들이 북카프카스의 반러 저항 운동에 직접 참가하거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이미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 분쟁의 세계적 결합을 설명해 주는 사례가 된다. 다게스탄의 마고멧타기로프 내무장관은 2009년 2월에는 작전 중에 터키 출신의 알 카에다 소속 무장병을, 또 같은 해 8월에는 모한네드(Mohanned)라는 이름의 알 카에다 간부를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모한네드는 알 카에다가 특별히 다게스탄의 지하드를 지도할 목적으로 파견한 고급 요원이었다는 것이 다게스탄 당국의 주장이다.<sup>64)</sup> 그러나 외국인 무장병들의 숫자나 활동 양상을 둘러싸고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분분하며 아직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서방 국가들의 부정적 인식이다. 앞에서 언급한 체첸 저항운동과 북카프카스 역내 이슬람 저항파의 아랍화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북카프카스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재고시켰는데, 이러한 인식은 9·11 이후 범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 이슬람 테러 분위기 속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1차 체첸전쟁에서 미국과 서방 정부가 보여준 체첸인 저항운동에 대한 동정론은 오늘날 거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그럴수록 북카프카스 지역의 이슬람 저항파는 반서구, 반기독교적 자기논리를 강화하면서 분쟁을 종교화하기가 쉬워진다는 데 북카프카스 분쟁의 역설이 존재한다.<sup>65)</sup>

셋째, 러시아의 대(對)카프카스 정책과의 연관이다. 러시아는 2008년 8월 그루지야와의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카프카스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조지아를 비롯한 남카프카스에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교통로에 해당하는 북카프카스 지역의 정세 안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19세기 초중반 제정 러시아가 경험했던 역사적 교훈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북카프카스를 러시아 국가의 일부로서 통합하기보다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카프카스 패권 유지를 위한 '전선'(frontier)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up>66)</sup> 또 러시아와 적대관계에 있는 그루지야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북카프카스의 정세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2차 체첸전쟁 당시, 그루지야 정부가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인 판키시(Pankisi) 계곡에 난민으로 위장한 체첸 저항파들을 은닉시켜 주었다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항의와 이로 말미암은 양국 갈등은 군사적 충돌과 참여한 외교전으로 비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조지아 정부가 북카프카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카프카스 민족 정체성에 호소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러시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분쟁 다발 지역인 카프카스의 정세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V. 결론

오늘날 북카프카스 지역의 분쟁은 체치냐로부터 다게스탄과 인구셰티야 등의 동부 지역을 거쳐 이제는 카바르디노-발카리아와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등 서부 공화국들로 뚜렷하게 확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이 논증하고자 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 정부와 일부 연구자

*State in the Caucasus: Post-Soviet Disorder* (London: Routledge, 2007).

64) Nichol, op. cit., Dec. 2010, pp. 12-13.

65) 체첸 저항파의 인터넷 사이트인 '카프카스센터'에는 반러시아는 물론, 반이스라엘, 반서구, 반기독교의 논조가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를 무슬림 지역과 이교도의 지역으로 양분하며 이교도 지역을 지하드로 파괴해야 한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66) Kuchins, et al., op. cit., pp. 19-20.

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카프카스 분쟁이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것도, 또 체첸 분쟁과 무관한 독자적 분쟁도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소연방 해체를 전후해 체치냐가 분리·독립의 움직임을 가시화한 시점에서 북카프카스의 불안정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불안정은 점차 분쟁으로 격화·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카프카스의 분쟁은 에이저가 적시한 것처럼 ‘장기적’ 분쟁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분쟁이 단순한 정책적 변화나 경제 상황 개선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북카프카스 정세의 안정화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연방 정부는 사활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카프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동반한 불안정 상황은 푸틴 이 생각하듯 외부세력의 음모와 저항파의 존재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연방 정부에 저항하는 이들 저항파 속에는 러시아와 현지 군·경의 잔학행위로 가족과 친척, 친구를 잃고 복수를 맹세한 일반 주민이 상당수 섞여 있다. 그들은 저항파가 주창하는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노출되어 있고 또 이용당하기 쉽다. 현지 주민 사이에 러시아인들의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군사 행동에 반감을 느끼고 저항파에 심정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분쟁 연구가인 에드워드 에이저가 충고하듯 집단 간의 상호 배타적인 경험이나 공포, 신념체계가 공동체의 반목을 영속화하여 장기적 사회분쟁을 고착화하는 상호 적대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정세진. “19세기 카프카즈 전쟁과 이슬람 요소.” 『슬라브연구』, 제21권, 제1호.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05.
- 한종만. “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 마피아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55집. 서울: 한국동북아학회, 2010.
- 현승수. “체첸 전쟁과 국제 이슬람 무자히딘 운동: 아랍인 야전사령관 카타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7-2집. 서울: 한국이슬람학회, 2007.
- \_\_\_\_\_. “분열된 ‘움마’: 러시아 이슬람의 현재와 공인 종교인.” 기연수 편. 『러시아, 위대한 강대국 재현을 향한 여정』.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 \_\_\_\_\_. “체첸 독립운동의 형성과 전개: 두다예프 집권기(1991~96년)의 정치 과정과 이슬람의 역할.”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 \_\_\_\_\_. “분야별 2010년 러시아 정세 결산 및 2011년 전망: 정치·사회 분야.” 『2010 Russia Report』.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1.
- Малашенко, А. *Рамзан Кадыров: российский политик кавказ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Москва: РОССПЭН, 2009.
- Azar, Edward. “Protracted International Conflicts: Ten Propositions.” Azar, E. and Burton, J. (eds.).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Brighton, UK: Wheatsheaf Books, 1986.
- \_\_\_\_\_. *The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 Theory and Cases*. Aldershot: Dartmouth, 1990.
- \_\_\_\_\_. “The Analysis and Management of Protracted Social Conflict.” Volcan, J. et al. (eds.). *The Psycho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s, Vol. II*. Massachusetts: Lexington, 1991.
- Cava, Gloria La and Michael, Sarah. “Youth in the Northern Caucasus: From Risk to Opportunity.” Environmentall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CSSD) Europe and Central Asia (ECA) Region. The World Bank (2006).  
[http://ns.worldbank.org/ru/lavaca/full\\_eng.pdf](http://ns.worldbank.org/ru/lavaca/full_eng.pdf) (검색일: 2010.07.04)
-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eport by Thomas Hammarberg,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 the Council of Europe, Following His Visit to the Russian Federation (Chechen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Ingushetia) on 2-11 September 2009.” 24 Nov. 2009.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b0c03fb2.html> (검색일: 2010.09.27)
- Glasl, F. “The Process of Conflict Escalation and Roles of Third Parties.” Bomers, G. B. J. and Peterson, R. B. (eds.). *Conflict Manage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Hague: Kluwer Nijhoff Publishing, 1982.
- International Crisis Group. “Russia’s Dagestan: Conflict Causes.” Europe Report N°192 (Jun. 3, 2008).
- Kuchins, Andrew C., Malarkey, Matthew and Markedonov, Sergey. “The North Caucasus: Russia’s Volatile Frontier.” A Report of the CSIS Russia and Eurasia Program (Mar. 2011).

- Malarkey, Matthew and Moore, Lucy. "Violence in the North Caucasus. Summer 2010: Not Just a Chechen Conflict." CSIS (Sep. 2, 2010).
- Malashenko, Alexey. "The North Caucasus Today: The View on the Ground and from Moscow." Event Summary.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Nov. 21, 2008).
- Nichol, Jim. "Stability in Russia's Chechnya and Other Regions of the North Caucasus: Recent Developments." CRS Report for Congress (Jan. 27, 2010).
- \_\_\_\_\_. "Stability in Russia's Chechnya and Other Regions of the North Caucasus: Recent Developments." CRS Report for Congress (Dec. 13, 2010).
- Pkhakadze, Tamara. "What is Hidden Behind the Idea of the Caucasian Emirate?" *ITSTIME* (Nov. 30, 2008). [www.itstime.it/Commenti/CaucEmiri.pdf](http://www.itstime.it/Commenti/CaucEmiri.pdf) (검색일: 2010.09.27)
- Schaefer, Robert W. *The Insurgency in Chechnya and the North Caucasus: From Gazavat to Jihad*. Santa Barbara, CA: Praeger, 2010. E-book version.
- Smirnov, Andrei. "Kremlin Adopts New Counter-Insurgency Methods in Ingushetia." *Chechnya Weekly* (Sep. 27, 2007).
- Souleimanov, Emil. "North Ossetia: Jihadization in The Making?" *CACI Analyst* (Jun. 8, 2011). "<http://www.cacianalyst.org/?q=node/5573> (검색일: 2011.06.15.)
- Vatchagaev, Mairbek. "The Year in Chechnya: Reconstruction Marred by Lingering Insurgency and Inter-Chechen Conflict." *Jamestown Foundation North Caucasus Analysis*. 12-2 (Jan. 21, 2011). [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tt\\_news\]=37393&tx\\_ttnews\[backPid\]=514](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tt_news]=37393&tx_ttnews[backPid]=514) (검색일: 2011.02.01.)
- \_\_\_\_\_. "Rebel Attacks in Kabardino-Balkaria Skyrocket." *Jamestown Eurasia Daily Monitor*. 8-25 (Feb. 4, 2011). [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tt\\_news\]=37460&tx\\_ttnews\[backPid\]=7&cHash=634b3e4634](http://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ttnews[tt_news]=37460&tx_ttnews[backPid]=7&cHash=634b3e4634) (검색일: 2011.02.11)
- Waltz, Kenneth. *Man, the State an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 Ware, Robert Bruce and Kisriev, Enver. *Dagestan: Russian Hegemony and Islamic Resistance in the North Caucasus*. Armonk and London: M.E.Sharpe, 2010.
- Williams, Bryan Glyn. "Allah's Foot Soldiers: An Assessment of the Role of Foreign Fighters and Al-Qa'ida in the Chechen Insurgency." Gammer, Moshe (ed.). *Ethno-Nationalism, Islam and the State in the Caucasus: Post-Soviet Disorder*. London: Routledge, 2007.
- <http://archive.kremlin.ru/text/appears/2009/03/214412.shtm> (검색일: 2011.02.07)
- <http://www.caucasustimes.com/article.asp?language=2&id=20224> (검색일: 2011.06.01)
- [http://csis.org/files/publication/100902\\_Violence\\_in\\_the\\_North\\_Caucasus\\_Summer\\_2010.pdf](http://csis.org/files/publication/100902_Violence_in_the_North_Caucasus_Summer_2010.pdf) (검색일: 2011.06.01.)
- [http://faculty.human.mie-u.ac.jp/~peace/ipra\\_papers/jongman.doc](http://faculty.human.mie-u.ac.jp/~peace/ipra_papers/jongman.doc) (검색일: 2011.06.01)
- [http://www.gks.ru/free\\_doc/doc\\_2011/monitor/info-stat-03-2011.rar](http://www.gks.ru/free_doc/doc_2011/monitor/info-stat-03-2011.rar) (검색일: 2011.07.01)
- <http://www.itstime.it/Commenti/CaucEmiri.pdf> (검색일: 2010.09.27.)
- <http://www.jihadwatch.org/2011/02/russia-jihadists-murder-three-in-jihad-against-14-billion-ski-resort-plan.html> (검색일: 2011.06.10)

<http://www.kavkazcenter.com/russ/content/2007/11/21/54480.shtml> (검색일: 2010.10.01)

<http://kavkazcenter.com/russ/content/2009/11/24/69334.shtml> (검색일: 2011.06.15.)

<http://www.kremlin.ru/transcripts/5979> (검색일: 2011.02.07)

<http://www.kremlin.ru/transcripts/9559> (검색일: 2011.02.12.)

<http://politeadigest.files.wordpress.com/2010/07/dig-107-1.gif> (검색일: 2011.06.10)

<http://www.watchdog.cz/?show=000000-000015-000006-000041&lang=1>(검색일: 2010.10.02.)

<http://politeadigest.files.wordpress.com/2010/07/dig-107-1.gif> (검색일: 2011.06.10)





